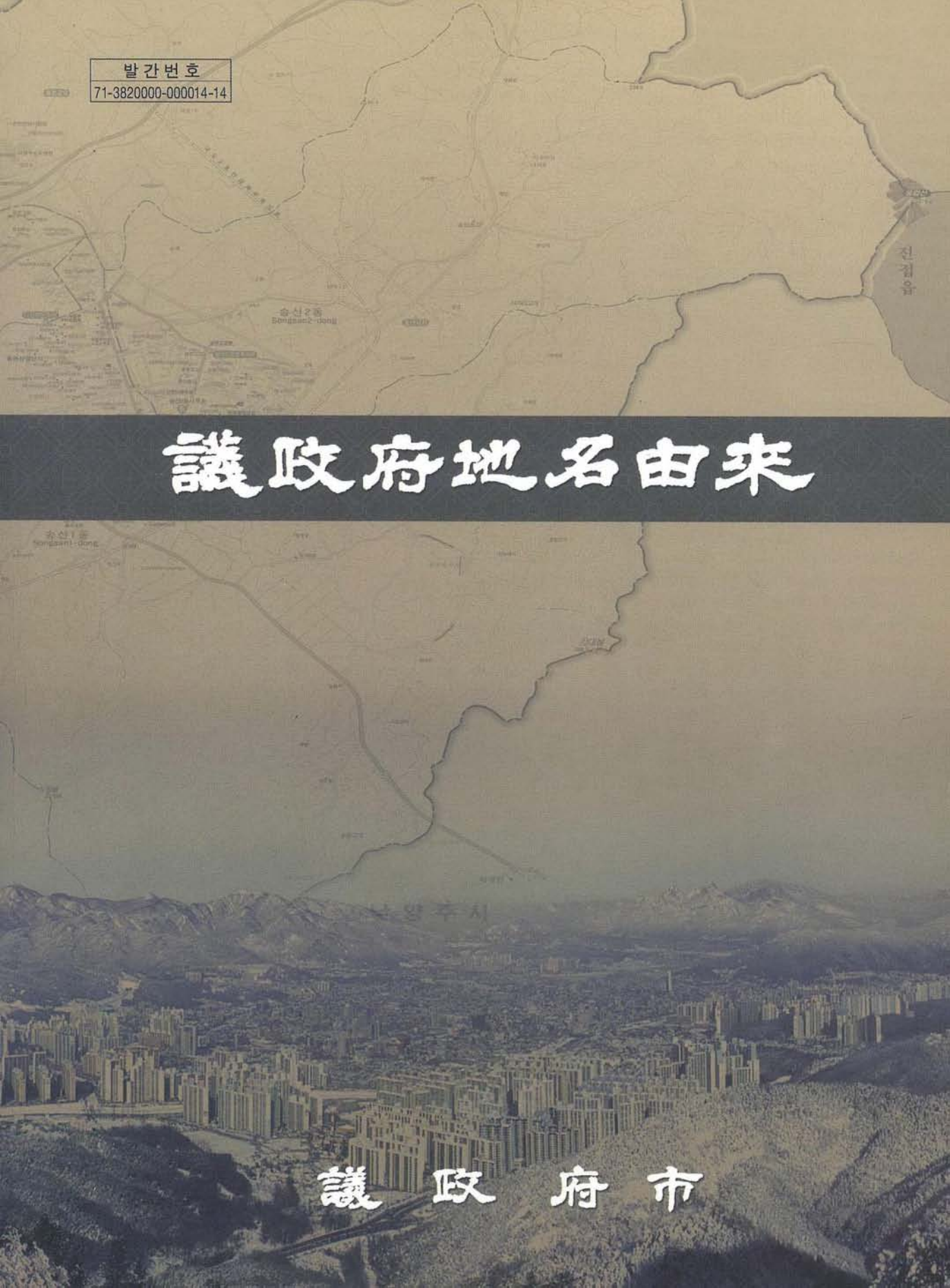
발간번호
71-3820000-000014-14

議政府地名由来



議政府市

議政府地名由来

발간사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향의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의정부시 지명유래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수천 년 간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녀온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서울북쪽의 관문도시이자 경기북부의 경제 · 사회 · 교통 · 교육 · 문화 등에 중심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의정부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향의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의정부시 지명유래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명' 은 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 고장의 얼굴입니다. 요즘 급격한 산업화 · 도시화 · 세계화에 따라 우리고유의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가옥구조가 변하며, 마을의 형태도 도로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로 재조성되었기 때문에 옛 정취를 찾기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골짜기마다 사연이 서려있고, 바위마다 전설이 어려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자신 있게 들려줄 이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정부 지명유래' 의 발간으로 유서 깊은 우리 의정부의 잊혀진 옛 지명의 유래를 새롭게 조명하여 고장의 역사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후손들에게 의정부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정부 지명유래' 의 발간에 참여해주신 홍정덕 의정부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자가 의정부시를 알리고 우리나라 향토연구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년 1 월

의정부시장 김 문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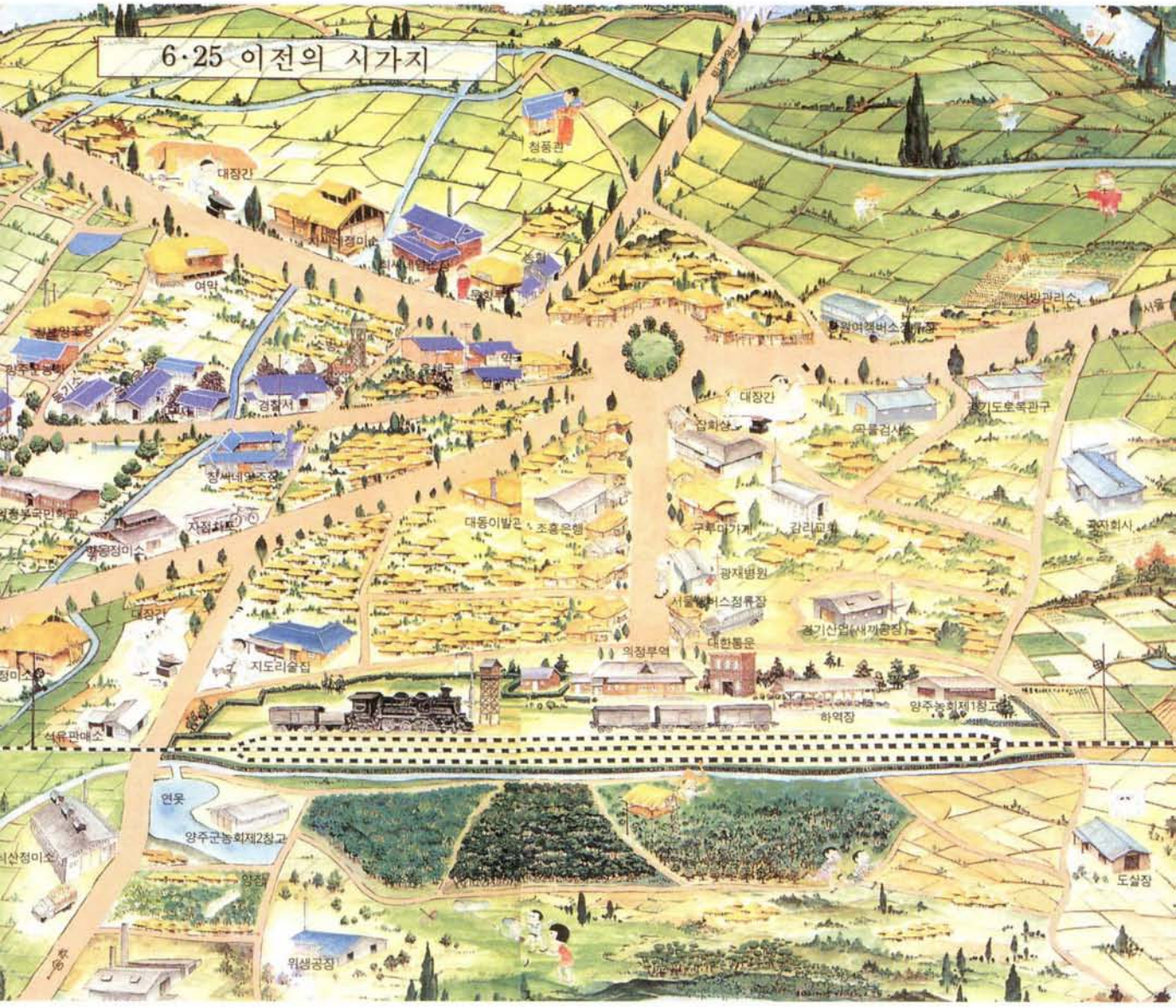
고지도에 나타난 의정부 일대

景都圖(天下輿地圖冊중)
1750년대 筆寫本 · 紙本彩色
29.5×34.5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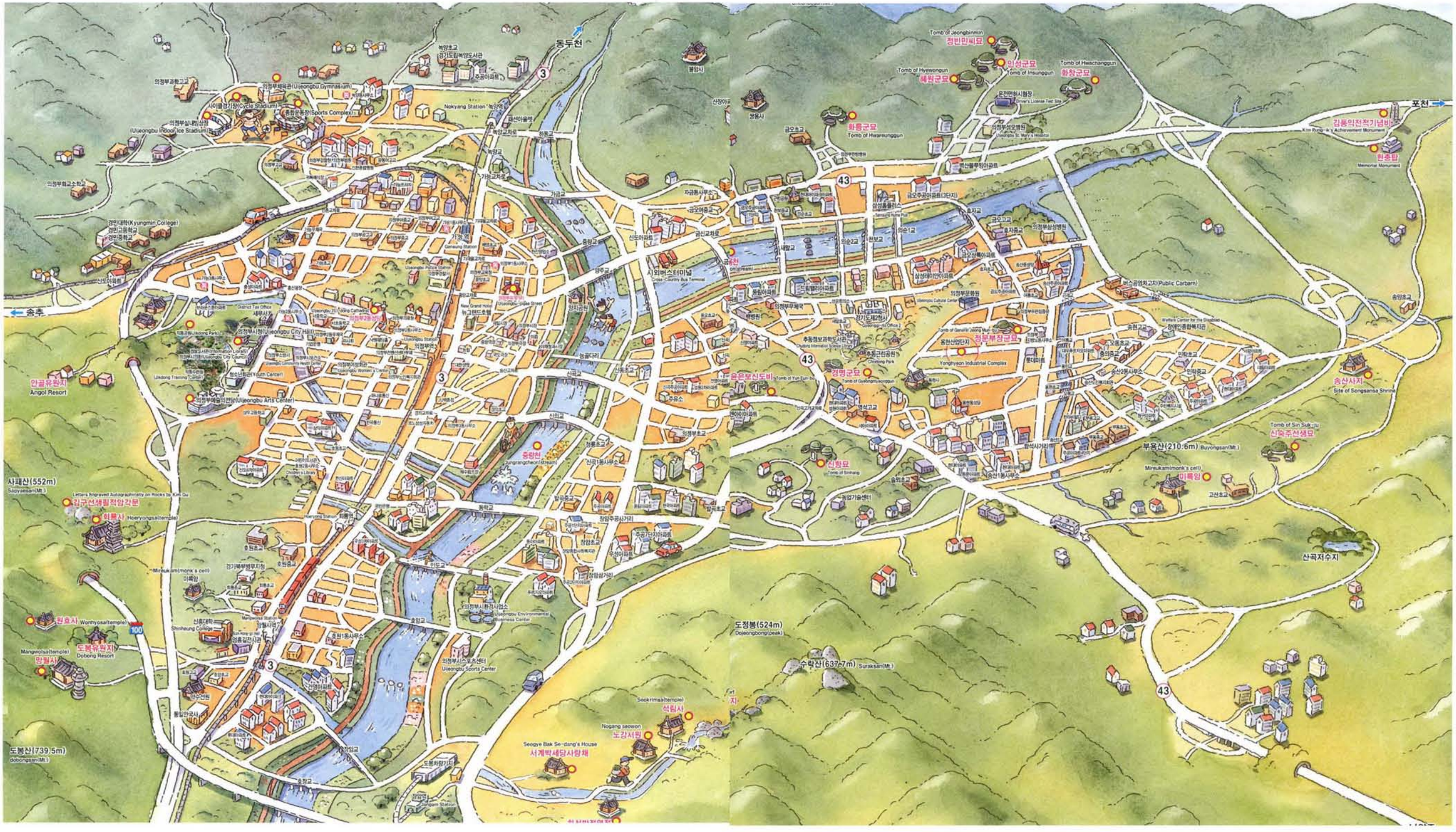
漢陽圖
1760년대 筆寫本 · 紙本彩色
92.4×80.8cm 華白所藏

고지도
1861년

漢陽圖(大東輿地圖 중)
1861년대 本板本 · 紙本水墨
30×35cm 개인소장


6·25 이전의 시가지
청풍관
대장간
여관
경찰서
대장간
잡화상
대동이발관
조흥은행
구루마가게
광재병원
의정부역
대한통운
하역장
지도리술집
석유판매소
연못
양주군농회제2창고
양잠
위생공장
도살장
시방관리소
서울
경기도로록관구
곡물검사소
공지회사
경기산업(새끼)공장
양주농회제1창고

현지도
의정부관내


동두천
송추
포천
의정부과학고
의정부체육관(Uijeongbu Gymnasium)
사이클경기장(Cycle Stadium)
의정부실내빙상장
(Uijeongbu Indoor Ice Stadium)
통합운동장(Sports Complex)
Nokyang Station '녹양역'
경민대학(Kyungmin College)
경민고등학교
경민중학교
신도아파트
의정부시청(Uijeongbu City Hall)
의정부시립미술관
의정부예술의전당(Uijeongbu Arts Center)
안골유원지
Angol Resort
사패산(552m)
Sapyeosan(Mt.)
김구선생휘적암각문
회룡사
Hoeryongsa(temple)
원효사
Wonhyosa(temple)
도봉유원지
Dobong Resort
망월사
Mangwolsa(temple)
도봉산(739.5m)
dobongsan(Mt.)
중랑천
Jungrangcheon(stream)
사외버스터미널
Cross Country Bus Terminal
의정부시스포츠센터
Uijeongbu Sports Center
석림사
Seokrimsa(temple)
노강서원
Nogang seowon
서계박세당사랑채
Seogye Bak Se-dang's House
도봉차량기지
Dobong Depot
불암사
봉릉사
화릉군묘
Tomb of Hwareunggun
혜원군묘
Tomb of Hyewongun
정빈민씨묘
Tomb of Jeongbinmin
인성군묘
Tomb of Insunggun
화창군묘
Tomb of Hwachanggun
김동익전적기념비
Kim Dong-ik's Achievement Monument
현충탑
Memorial Monument
청부부장군묘
Tomb of General Jeong Bu
경명군묘
Tomb of Gyeongmyeongun
윤은보신도비
Tomb of Yun Eun-bo
신향묘
Tomb of Sinhang
송산사지
Site of Songsansa Shrine
신숙주선생묘
Tomb of Sin Suk-ju
부용산(210.6m)
Buyongsan(Mt.)
미륵암
Mireukam(monk's cell)
산곡저수지
도정봉(524m)
Doseongbong(peak)
수락산(637.7m)
Suraksan(Mt.)
동두천시청
의정부시청
의정부역
의정부교
가능교
가능역
중랑교
신곡교
신흥교
동막교
의정부시환경사업소
Uijeongbu Environmental Business Center
의정부시립도서관
의정부시립박물관
의정부시립미술관
의정부시립도서관
의정부시립박물관
의정부시립미술관
의정부시립도서관
의정부시립박물관
의정부시립미술관

■ 의정부1동

■ 의정부2동

■ 의정부3동

■ 호원1동

■ 호원2동

■ 장암동

동사무소전경

신곡1동, 2동, 송산1동

■ 신곡1동

■ 신곡2동

■ 송산1동

■ 송산2동

■ 자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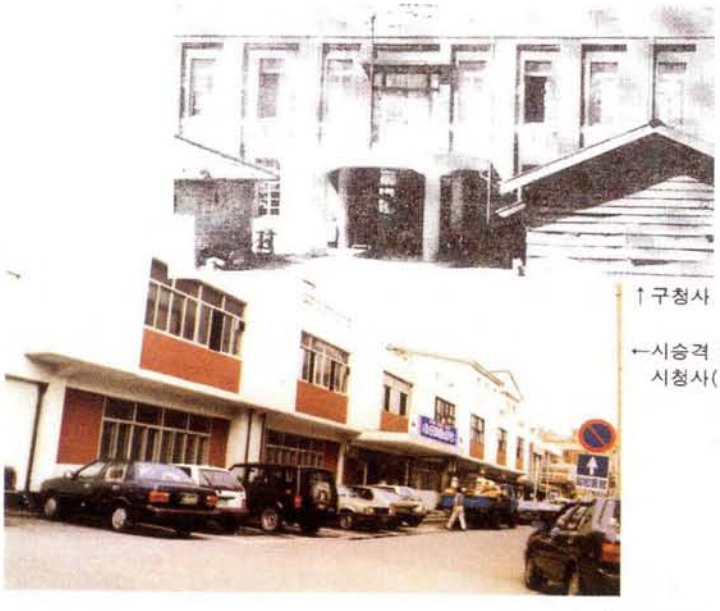
■ 가능1동

■ 가능2동

■ 가능3동

■ 녹양동

시청사의 변모



↑구청사

←시승격 당시의 시청사(1963)

↓현재의 시청사

목 차(目次)

⇨ 제 1 편 의정부시의 연혁 23
⇨ 제 2 편 의정부시의 유래 33
⇨ 제 3 편 동의 연혁과 유래 39
○ 제1장 의정부동 41
- 연 혁
- 지명유래
○ 제2장 호원동 51
- 연 혁
- 지명유래
○ 제3장 장암동 69
- 연 혁
- 지명유래
○ 제4장 신곡동 79
- 연 혁
- 지명유래
○ 제5장 송산동 95
- 연 혁
• 제1절 용현동 95
- 연 혁
- 지명유래
• 제2절 고산동 107
- 연 혁
- 지명유래

• 제3절 산곡동 123
- 연 혁
- 지명유래
• 제4절 민락동 133
- 연 혁
- 지명유래
• 제5절 낙양동 147
- 연 혁
- 지명유래

○ 제6장 자금동 165
- 연 혁
• 제1절 자일동 165
- 연 혁
- 지명유래
• 제2절 금오동 177
- 연 혁
- 지명유래

○ 제7장 가능동 185
- 연 혁
- 지명유래

○ 제8장 녹양동 197
- 연 혁
- 지명유래

⇨ 찾아보기 203

여 백

제1편 의정부시의 연혁

여 백

제 1편 의정부시의 연혁

의정부시(議政府市)는 서울 북쪽의 관문도시(關門都市)이자 경기 북부의 교통 · 산업 · 경제 · 교육 · 문화의 중추도시이다.

경원선(京元線) 철도와 평화로(平和路)가 시가지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교외선(郊外線) 철도가 도봉산 서쪽 기슭을 감싸 도는가 하면, 43번 국도는 천보산(天寶山) 분수령(分水嶺)을 넘어 철원(鐵原) 방면으로 연결되는 한수이북(漢水以北)의 심장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는 예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돼 왔다.

한편 남쪽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道峰區)와 시계(市界)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양주시 양주동(楊州市 楊州洞)과 포천시 소흘읍(抱川市 蘇屹邑), 서쪽으로는 양주시 장흥면(長興面), 동쪽으로는 남양주시 별내면(南楊州市 別內面)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봉산(道峰山) · 수락산(水落山) · 천보산(天寶山)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어 아늑한 느낌이 들 뿐 아니라, 40만 시민의 젖줄인 중랑천(中浪川)이 남류(南流)하여 한강(漢江)에 이르고 있어 산세(山勢)가 수려하고 인심(人心)이 중후한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이곳의 형승(形勝)은 "세 영(嶺)이 하늘에 꽂힌 듯 하다"[1] 라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적혀 있으며, 고려 말의 성리학자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깎아지른 듯한 세 영(嶺)이 푸른 하늘 아래 꽂힌 듯한데, 가파른 길이 얼어붙어 말이 못가네"[2] 라고 읊기도 했다. 아마 그는 조선 개국 초(朝鮮開國初)에 태조 이성계의 부름을 저버리고 여주(驪州)로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이곳을 지나다 이렇게 읊었으리라.

1963년에 시로 승격된 의정부시는 고조선(古朝鮮) 때는 진(辰), 삼한시대(三

1) 『新增東國輿地勝覽』券11, 楊州牧條 "形勝三嶺揷天"

2) 『위의 책』券11, 楊州牧條 "李穡詩 截然三嶺揷靑天峻路長氷馬不前"

韓時代)에는 진한(辰韓) 땅에 딸려 있었다고 하나, 그 경계가 확실치 않고, 다만 고구려 때에 매성현(買省縣, 일명 昌化)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내소군(來蘇郡)이라 부르다가 고려 태조 왕건 때에는 견주(見州), 현종 9년(1018)에는 양주(楊州), 충렬왕 34년(1308)에는 한양부(漢陽府)로 이름이 변천돼 왔다.

조선 태조 3년(1394)에 개경에서 한양부(옛 양주)로 도읍을 옮기면서 그 이듬해에 주민들을 옛 견주 지역으로 이주시킨 후 양주군(楊州郡)으로 삼았다.[3]

그 후 태조 6년(1397)에는 양주부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13년(1413)에 양주도호부(楊州都護府)로 이름을 고치면서 그 밑에 견주(見州) · 사주(沙州) · 풍양(豊壤) 등 세 현(縣)을 두었는데, 지금의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견주, 동두천시는 사주, 남양주시는 풍양에 속해 있었다.

세조 12년(1466) 관제개혁 때 양주목(楊州牧)으로 승격되었다.

본래 고구려 매성군(買省郡)인데, 창화군(昌化郡)이라 하기도 한다. 신라 경덕왕이 내소(來蘇)라 고쳤다. 고려 초에는 승격하여서 견주(見州)라 하였고, 현종(顯宗) 9년에는 양주에 예속시켰다.

조선조 태조 3년에 도읍을 한양부(漢陽府) 곧 옛 양주에 정한 다음, 부의 관아를 동촌(東村) 대동리(大洞里)에 옮기고, 강등하여 양주지사(楊州知事)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승격하여 부(府)로 만들었다. 6년에 또 부치를 견주 옛터로 옮기고, 그대로 양주라 불렀다.

태종 13년에 예에 따라 도호부로 고쳤다. 세조 12년에 승격하여서, 목(牧)으로 만들고 진(鎭)을 설치하였다.[4]

연산군대에 이르자 의정부지방은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지 10년 되던 해 8월, 도성(都城)을 중심으로 사방 1백리 안을 임금의 놀이터로 삼을 것을 명령했다.

"옛글에 이르기를, '온 하늘 밑이 왕의 땅 아닌 것이 없고, 온 나라 사람이 왕의 신민 아닌 것이 없다.' 하였으니, 만약 다른 나라 토지를 침범하여 차지한다면 잘못이지마는, 내 나라 땅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서쪽은 홍복산(洪福山) 혜음현(惠陰峴)으로부터 공순릉(恭順陵)에 이르기까

3) 『太祖實錄』券7, 太祖4年 6月 戊辰條 "改漢陽府爲漢城府移其吏民于見州爲楊州郡"

4) 『新增東國輿地勝覽』券11, 楊州牧條 "建置沿革 本高句麗買省郡一云昌化郡新羅景德王改來蘇高麗初陞見州顯宗九年屬楊州本朝太祖三年定都于漢陽府卽古楊州移府治于東村大洞里降爲知楊州事夫幾復陞爲府六年又移府于見州古址仍稱楊州太宗十三年改爲都護府世祖十二年陞爲牧置鎭"
『世宗實錄地理志』楊州都護府條 "太祖三年定都于漢陽移府治于東村大洞里降爲知楊州事四年乙亥陞爲府治府使丁丑又移府治于見州古基"
『世宗實錄地理志』楊州都護府條 "太祖三年定都于漢陽移府治于東村大洞里降爲知楊州事四年乙亥陞爲府治府使丁丑又移府治于見州古基"
『輿地圖書』楊州條 "太祖三年定都于漢陽府卽古之楊州也移府治于東村大洞里降爲知楊州事未幾復爲府治見州古址仍稱楊州"
『輿地圖書』楊州條 "太祖三年定都于漢陽府卽古之楊州也移府治于東村大洞里降爲知楊州事未幾復爲府治見州古址仍稱楊州"
『大東地志』券3, 楊州條 "太祖三年定都于漢陽政置漢城府別置漢陽于東村大洞里今峨嵯山之陽稱古楊州面降爲知楊州事未幾陞爲府六年又移府治于見州古址"

지, 동쪽은 수락산(水落山)으로부터 녹양평(綠楊坪)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표(禁標) 안에 넣고, 큰길을 아차산(峨嵯山) 등지로 나가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여 수목이 무성해지기를 기다리면 금수(禽獸)도 살게 되어 연병(練兵)과 사냥을 할 수 있을 터이니, 경기관찰사 안윤덕(安潤德)이 이계동(李季仝)과 함께 가서 금표를 세우되, 화원(畵員) 2인을 데리고 가서 지형을 그려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5]

5) 『燕山君日記』13輯 656面, 燕山10年 8月 16日(癸酉)條

이렇게 연산의 명령이 떨어지자, 도성(都城) 동북쪽으로 양주(楊州) · 포천(抱川) · 광주(廣州) 일대와, 서남쪽으로 파주(坡州) · 고양(高陽) · 과천(果川) · 김포(金浦) 지방에 사는 남녀 2만여 명이 강제로 쫓겨나면서 농토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다.

"인가(人家)를 철거하고 금표(禁標)를 세우니, 멀리 쑥대밭만 바라보이고, 사람 사는 것을 볼 수 없다. 비록 일반 백성들이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더라도 감히 금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기록을 보아도 그 당시 의정부가 얼마나 황폐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던 해인 1506년에 양주(楊州)가 다시 복치(復置)되어 불곡산(佛谷山) 밑에 관아를 두니 지금의 양주시 유양리(楊州市 維楊里)이다.

한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양주목에는 34개 방면(坊面)이 있는데, 조선 후기 각 방면의 지경(地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시북곡면(柴北谷面) · 둔야면(芚夜面)의 전역과 내동면(內洞面) · 별비곡면(別非谷面)의 일부가 오늘날 의정부시에 해당한다.

주내(州內)	곧 읍내(邑內)이다. 사방 십리
고주내면(古州內面)	동쪽으로 처음 10리, 마지막 30리 거리
회암면(檜岩面)	북쪽으로 처음 20리, 마지막 30리 거리
어등산면(於等山面)	동쪽으로 처음 20리, 마지막 30리 거리
천천면(泉川面)	동쪽으로 처음 10리, 마지막 20리 거리

진답면(陳畓面)	북쪽으로 처음 20리, 마지막 40리 거리
현내면(縣內面)	북쪽으로 처음 30리, 마지막 45리 거리
이담면(伊淡面)	북쪽으로 처음 30리, 마지막 50리 거리
산내면(山內面)	북쪽으로 처음 50리, 마지막 60리 거리
청송면(靑松面)	북쪽으로 처음 50리, 마지막 80리 거리
영근면(嶺斤面)	북쪽으로 처음 60리, 마지막 80리 거리
석적면(石積面)	서쪽으로 처음 30리, 마지막 40리 거리
광석면(廣石面)	서쪽으로 처음 25리, 마지막 35리 거리
백석면(白石面)	서쪽으로 처음 10리, 마지막 40리 거리
장흥면(長興面)	서남쪽으로 처음 20리, 마지막 50리 거리
신혈면(神穴面)	서남쪽으로 처음 50리, 마지막 60리 거리
시북곡면(柴北谷面)	남쪽으로 처음 10리, 마지막 30리 거리
둔야면(芚夜面)	남쪽으로 처음 15리, 마지막 30리 거리
내동면(內洞面)	동쪽으로 처음 25리, 마지막 30리 거리
별비곡면(別非谷面)	동쪽으로 처음 30리, 마지막 50리 거리
접동면(接洞面)	동쪽으로 처음 40리, 마지막 50리 거리
진벌면(榛伐面)	동쪽으로 처음 50리, 마지막 70리 거리
건천면(乾川面)	동쪽으로 처음 40리, 마지막 60리 거리
진관면(眞官面)	동쪽으로 처음 40리, 마지막 60리 거리
금촌면(金村面)	동남쪽으로 처음 60리, 마지막 70리 거리
상도면(上道面)	동쪽으로 처음 70리, 마지막 100리 거리
하도곡면(下道谷面)	동쪽으로 처음 80리, 마지막 100리 거리
와공면(瓦孔面)	남쪽으로 처음 50리, 마지막 85리 거리
독음면(禿音面)	남쪽으로 처음 50리, 마지막 70리 거리
구지면(龜旨面)	남쪽으로 처음 40리, 마지막 70리 거리
고양주면(古楊州面)	남쪽으로 처음 60리, 마지막 80리 거리
망우리면(忘憂里面)	남쪽으로 처음 50리, 마지막 60리 거리

노원면(蘆原面)	남쪽으로 처음 30리, 마지막 50리 거리
해등촌면(海等村面)	남쪽으로 처음 15리, 마지막 30리 거리

갑오개혁 이듬해인 고종 32년(1895)에 전국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府), 366군(郡)을 새로 설치할 때 한양부 양주군(漢陽府 楊州郡)으로 되었다가, 다음 해에는 경기도 양주군(京畿道 楊州郡)이 되었다.

한일합방 후 1912년 5월 23일 공포된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경기도편에 의하면 양주군의 경우 32개 면(面), 343개 리(里)를 두었는데, 그 중 시북면(柴北面)과 둔야면(芚夜面) 그리고 내동면 · 별비면 일부가 오늘날 의정부시의 모체(母體)로서 그 방리(坊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북면(柴北面) 19개 방리

자일리(自逸里) · 귀락리(歸樂里) · 금곡리(金谷里) · 상서오리(上西梧里) · 중서오리(中西梧里) · 하서오리(下西梧里) · 삼귀리(三歸里) · 오목리(梧木里) · 민락리(民樂里) · 곤제리(昆弟里) · 양지리(陽地里) · 궁촌리(宮村里) · 직동(直洞) · 가좌리(佳佐里) · 어릉리(魚陵里) · 입석리(立石里) · 양현리(楊峴里) · 녹양리(綠楊里) · 비우리(碑遇里)

둔야면(芚夜面) 15개 방리

의정부리(議政府里) · 파발막리(擺撥幕里) · 호동(虎洞) · 누원리(樓院里) · 장수원리(長水院里) · 본둔야리(本芚夜里) · 신촌리(新村里) · 동막리(東幕里) · 추동리(楸洞里) · 발이술리(鉢伊述里) · 장자리(長者里) · 조암리(鳥岩里) · 탑석리(塔石里) · 양현리(陽峴里) · 어룡리(魚龍里)

내동면(內洞面) 3개 방리

입암리(笠岩里) · 고산리(高山里) · 산곡리(山谷里)

별비면(別非面) 19개 방리

도감리(都監里) · 흑석리(黑石里) · 광암리(廣岩里) · 화접리(花蝶里) · 간촌리(間村里) · 동촌리(東村里) · 영지리(靈芝里) · 동학리(東鶴里) · 응달리(應達里) · 덕동리(德洞里) · 묘동리(廟洞里) · 퇴계원리(退溪院里) · 서촌리(西村里) · 거묵리(巨墨里) · 마전리(麻田里) · 식송리(植松里) · 삼안리(三安里) · 전도리(全道里) · 내곡리(內谷里)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을 정비함에 따라 시북면과 둔야면을 병합함에 그 머리글자(字)를 따서 시둔면(柴芚面)이 되었고, 내동면(內洞面)과 별비면이 별내면(別內面)으로 되면서 동리 명칭도 폐치분합(廢置分合) 되었는데, 그 때 바뀐 이름은 다음과 같다.[6]

6) 楊州郡誌編纂委員會 『楊州郡誌』1992

시둔면(柴芚面) : 시북면(柴北面) · 둔야면(芚夜面)

의정부리(議政府里) : 의정부리(議政府里) · 파발막리(擺撥幕里)

자일리(自逸里) : 자일리(自逸里) · 귀락리(歸樂里)

금오리(金梧里) : 금곡리(金谷里) · 상서오리(上西梧里) · 중서오리(中西梧里) · 하서오리(下 西梧里)

가릉리(佳陵里) : 가좌리(佳佐里) · 어릉리(魚陵里) · 직동(直洞)

녹양리(綠楊里) : 입석리(立石里) · 양현리(楊峴里) · 녹양리(綠楊里) · 비우리(碑遇里)

낙양리(洛陽里) : 곤제리(昆弟里) · 양지리(陽地里) · 궁촌리(宮村里)

민락리(民樂里) : 민락리(民樂里) · 삼귀리(三歸里) · 오목리(梧木里)

호원리(虎院里) : 호동(虎洞) · 누원리(樓院里) · 장수원리(長水院里)

용현리(龍峴里) : 어룡리(魚龍里) · 양현리(陽峴里) · 탑석리(塔石里)

신곡리(新谷里) : 신촌리(新村里) · 본둔야리(本芚夜里) · 동막리(東幕里) · 추동리(楸洞里) · 발이술리(鉢伊述里)

장암리(長岩里) : 장자리(長者里) · 조암리(鳥岩里)

별내면(別內面) : 별비면(別非面) · 내동면(內洞面)
청학리(靑鶴里) : 동학리(東鶴里) · 응달리(應達里)
고산리(高山里) : 고산리(高山里) · 입암리(笠岩里)
산곡리(山谷里) : 산곡리(山谷里) · 흑석리(黑石里)
용암리(龍岩里) : 도감리(都監里) · 거묵리(巨墨里)
광전리(廣田里) : 광암리(廣岩里) · 마전리(麻田里)
덕송리(德松里) : 덕동리(德洞里) · 식송리(植松里) · 묘동리(廟洞里)
둔접리(芚蝶里) : 화접리(花蝶里) · 간촌리(間村里) · 영지리(靈芝里) · 삼안리(三安里) · 노원면 불암리(蘆原面 佛岩里) 일부
퇴계원리(退溪院里) : 퇴계원리(退溪院里) · 전도리(全道里) · 내곡리(內谷里)

1922년 10월 1일 양주군청이 주내면 유양리에서 시둔면 의정부리로 옮겨 오면서부터 의정부는 양주군의 심장부를 이루기 시작했다.[7]

1938년 10월 1일 시둔면이 양주면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4년 뒤인 1942년 10월 1일(府令 제243호)에는 의정부읍으로 승격되었다.

읍으로 승격된 지 20년만인 1962년 11월 21일 국가 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 공포된 법률 제1176호에 따라 1963년 1월 1일 의정부시로 승격됐다.

시로 승격될 당시의 인구는 5만 7천 2백 59명 이었으며, 관할면적은 72.88k㎡, 11개 법정동과 36개 자연부락을 갖고 있었다.

1970년 7월 1일(시조례 제218호) 가능2동을 가능2동과 가능3동으로 분동함으써 12개 행정동을 두었다.

1980년 4월 1일(법률 제3169호)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高山里)와 산곡리(山谷里)가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13개 법정동, 55개 자연부락으로 늘었으며, 관할면적은 81.59k㎡ 확장되었다.

1994년 7월 1일(시조례 제1470호) 장곡동을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함으로써 13개 행정동을 두게 되었다.

1995년 3월 2일(시조례 제1514호) 신곡동을 신곡1동과 신곡2동으로 분동함

7) 『朝鮮寰輿勝覽』楊州郡編 "高宗三十二年乙未例改爲郡置郡守去壬戌移置于議政府令因之"위 책은 1929년 10월 延安李秉廷의 저서로 당시의 沿革 · 山川 · 郡勢 · 土産 · 遺蹟 · 人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으로써 14개 행정동을 두었다가, 1998년 10월 14일(시조례 제1765호) 의정부1동과 의정부4동을 의정부1동으로 통폐합함으로써 13개 행정동을 갖게 되었다.

2003년 2월 3일(시조례 제1979호) 호원동을 호원1동과 호원2동으로 분동하고, 같은 날 송산동을 송산1동과 송산2동으로 분동하였는데, 송산1동은 용현동 · 고산동 · 산곡동 등 3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송산2동은 민락동 · 낙양동 등 2개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의정부시 관내에는 15개 행정동을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편 의정부시의 유래

여 백

제 2 편 의정부시의 유래

"의정부"라는 지명은 언제부터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 '조선 제3대 태종이 방번(芳蕃)과 방석(芳碩)을 살해하고 소란을 일으키자 태조는 불충불의(不忠不義)한 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여 함흥(咸興)으로 옮겼다. 이후 태종은 여러차례 사자(使者)를 보내어 용서를 빌었으나 태조는 사자를 감금, 살해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함흥(咸興)의 사(使)"또는 함흥차사 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났다. 그러나 이후 태조는 화가 누그러지는 듯하면서 태종2년(1402) 12월에 지금의 의정부까지 돌아오게 되었다. 태종은 부왕을 맞으려고 천막을 치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태조는 활의 명수이기 때문에 중신 하륜(河崙)은 부왕 태조가 반드시 태종을 해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천막에 큰 기둥을 많이 세웠다. 그 결과 태종은 순간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피하였기 때문에 다행히도 부왕의 화살을 맞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곧 잔치가 시작되자 태종은 '헌수(獻壽)'의 뜻으로친히 부왕 태조에게 잔을 올려야만 하나, 이 또한 하륜의 지략으로 하륜 자신이 잔을 올렸다고 한다. 이리하여 태조는 결국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의 의정부지방에 장기간 머물렀다고 한다. 의정부 3정승을 포함한 각 대신(大臣)들은 한양보다도 지금의 의정부로 와서 정무(政務)를 의논하고 결재를 태조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의정부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전한다.'[1]

이상의 내용은 비록 후대의 기록에서 확인된 것이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연한 역사의 사실로 조선 초기 이래 전승되어 오던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제가 의정부지방에 철도를 부설할 때의 기록 사항에서도 일제시대 이전 조선시대부터 '의정부'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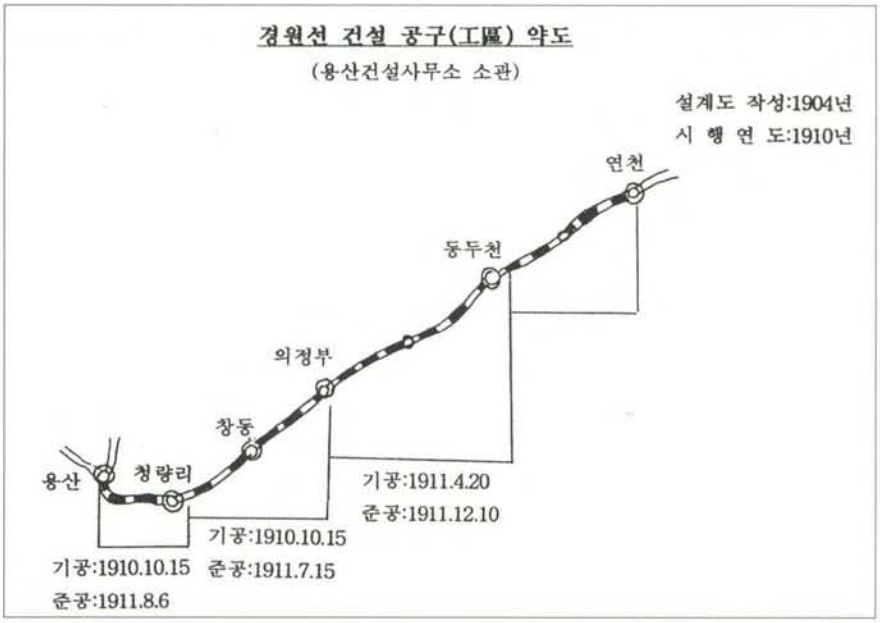
일제는 경원선 철도 부설을 위해 한국 강점 초기부터 부지의 측량과 철도 건

1) 朝鮮地方行正學會『京畿地方의 名勝史蹟』1937, 7. pp.193~194.
議政府市,『市政二十年史』, 1983. pp.47~49.
議政府市,『議政府地理志』, 1990. pp.31~40.
議政府市,『市政三十年史』, 1994. pp3.~7.

설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하였다. 경원선은 용산역을 기점(起點)으로 하여 청량리, 의정부, 동두천, 연천 등으로 뻗어 나가는 15개의 공구(工區)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용산에서 청량리 까지는 1910년 10월 15일에 기공(起工)하여 1911년 8월 6일에 준공되었고, 청량리에서 의정부 구간은 제2공구로서 제1공구와 마찬가지로 1910년 10월 15일에 착공되었다. 그러나 준공은 1911년 7월 15일에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미 당시에 의정부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일제 당국은 경원선 철도 부설을 위한 도면작성과 측량계획을 이미 1904년에 완성하였는데, 이때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의정부라는 지명을 그대로 이용하여 측량 및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이다. 어느 지방의 지명이든 그것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사학자들이 사료(史料)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지방의 지명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행정구획을 재조정한다거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에 상당한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지명을 확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의정부라는 지명은 오랜 전통을 지니면서 내려온 것이 틀림없다. 「京元線建設工區略圖」를 참고할 때 확신은 더욱 뚜렷하여 진다.[2] 의정부라는 지명은 조선

2) 『조선철도사(朝鮮鐵道史)』에 경원선건설공구약도(京元線建設工區略圖)와 함께 선로의 방향과 지세(地勢)의 개관, 공사보고 등의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 바 「용산→창동→의정부→연천」의 지명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어 "의정부"라는 지명이 1904년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선철도사(朝鮮鐵道史)』제1권, 1915;『한국철도사(韓國鐵道史)』제2권, 1977, pp.97~102).

초기부터 사용되어 내려온 것이며, 1912년 5월 23일자로 공포된 지방행정구역 조정시에 의정부리라고 한 것도 물론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설에는 아래와 같은 설도 있다.

기존의 지명유래인 태조 환궁관련 기사는 본 의정부 지역의 지명 유래와 역사적 실재로서는 관련이 없으며, 본 의정부시의 지명은 <둔야>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를 간단히 재론하자면 <의정부>라는 지명은 <둔야>, 또는 <둔뱀이> 즉 <역둔토(驛屯土)>에서 오래하였는데 바로 의정부 지역에 <의정부(議政府)>소속의 <의정부 둔(議政府 屯)>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로부터 유래하여 <의정부>라는 지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태조환궁설화(太祖還宮說話)>의 기본이 되는 <함흥차사(咸興差使)>는 <조사의(趙思義)의 난(亂)>과 관련하여 유추(類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3] <조사의의 난>과 관련하여 발생한 태조의 환궁은 당시의 수도가 한양(漢陽)이 아닌 개성(開城)이었던 관계로 당연히 개성 북방에서 일어나야 하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이성계의 환궁과 이를 맞이하는 이방원의 영접이 1402년 (태종 2년)

3. 함흥차사는 함흥에 머무르는 태조의 환궁을 설득, 촉구하기 위하여 태종으로부터 파견된 특사, 즉 차사(差使)들이 태조에게 죽임을 당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명칭의 유래이거니와 실제로 <조사의의 난>에 가담하고자 북행한 이성계가 함흥에 머무른 시간은 길어야 불과 달포에 지나지 않고 파견된 차사 가운데 실제 피살당한 사람이 없어 이는 그 후 후세인들에 의하여 유추, 왜곡된 사건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함흥지역에서 죽었고 흔히 함흥차사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박순 또한 실제로는 태조가 함흥에 도착하기 이전 반군에 대한 선무공작 중에 조사의 반군에 의하여 피살되었으므로 그 역시 정확한 의미의 함흥차사가 될 수는 없다. 그는 차사가 아니었고 태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함흥차사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12월 8일 황해도 금교역(金郊驛)에서 있었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4. 태종 2년 12월 8일(정사)

○ 임금이 금교역(金郊驛)에 나가서 태상왕을 맞이하고, 장전(帳殿)으로 들어가서 헌수(獻壽)하였다.[4]

5. 태종 2년 12월 8일 (정사)

○ 태상왕이 서울로 돌아왔다.[5]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현재의 의정부시 지역이 이미 <의정부>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에 관련하여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는 의정부 지역을 <의정부(議情埠)>라고 표기하여 실제로 조선후기에 우리 지역이 <의정부>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대동지지의 이와 같은 지명 표기는 다음의 두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의정부>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났다는 기존의 공식자료인 1904년의 <경원선 건설공구약도>와 1912년의 <지방행정총람>보다 훨씬 이전인 적어도 1863년 이전에 이미 <의정부>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과 둘째는 대동여지도 및 지리서 <대동지지를>만든 김정호가 일부러 <의정부>를 <議政府>가 아닌 <意情埠>로 표기하여 이를 의미상 명백히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의정부(議政府)>가 최고 행정기관의 관청 이름이어서 이를 지명과 구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의역(意譯)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종 사료, 특히 조세자료에는 명백하게 양주 지역에 <의정부둔(議政府屯)>이 나타나고 있어 이 <의정부둔>이 <둔야(芚)>, 즉<둔배미 = 둔토 = 의정부 소속 역둔토>의 지명 발생 배경이 되고 있음은 확연하다. 따라서 본 시(市)의 지명 유래를 <태조환궁설화>에서 찾는 것은 그 역사성에서 오류이다.

제3편 동의 연혁과 유래

여 백

제1장 의정부동

議政府洞

의정부동(議政府洞)

1. 두험소(逗驗沼) 터	8. 일본신사(日本神社) 터	15. 마당방위	22. 구(舊) 장터	29. 파발막 또는 두험)
2. 시둔면사무소(柴芚面事務所) 터	9. 한내(恨川)	16. 경성방직공장(京城紡織工場)터	23. 독짓네다리	30. 새장터
3. 경찰서터	10. 방죽계	17. 붕대공장 터	24. 샘들 터	31. 가재울(佳佐洞)
4. 동명사립학교(東明私立學校) 터	11. 신흥부락(新興部落)	18. 간장공장 터	25. 연백촌(延白村)	32. 서낭당 터
5. 일본인학교 터	12. 도살장 터	19. 고래뼈공장 터	26. 월남촌(越南村)	
6. 양주군청 터	13. 참나무계	20. 관솔공장 터	27. 병막 터	
7. 여각(旅閣) 터	14. 무당바위	21. 새끼줄야적장 터	28. 백련이보(洑)	

제1장 의정부동(議政府洞)

연 혁

의정부동은 원래는 둔야면(芚夜面) 의정부리와 파발막리(擺撥幕里)였으나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시둔면(柴芚面) 의정부리(議政府里)가 되었다. 1953년에는 의정부리를 동구(東區), 서구(西區), 남구(南區), 북구(北區)등 4개구로 나누었다가 1956년에 동구를 의정부1리, 서구를 의정부2리, 남구를 의정부3리, 북구를 의정부4리로 개칭하였다. 그 후 1964년 5월 8일 「의정부시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의정부 1 · 2 · 3 · 4동으로 개칭하였고, 1998년 10월 14일 의정부시 조례 제1764호에 의거 의정부4동이 의정부1동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1동은 조선 선조(宣祖)때 교통 · 통신기관의 하나인 두험천참(逗驗川站)이라는 파발막이 있었던 곳으로 옛날에는 파발막이라고 불리었던 곳이다. 제일시장을 비롯한 큰 시장이 산재해 있는 상업중심지역일 뿐 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각급 단체가 자리잡고 있는 시의 중심부이다. 의정부2동은 군사시설이 주둔하고 있고 동(洞) 면적의 46%가 군사보호구역으로써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던 곳이었으나 신시가지개발과 수도권 전철의 개통으로 개발 · 발전중인 곳이다. 의정부3동은 동(東)으로는 30만 의정부시민의 젖줄인 중랑천(中浪川)이 남류(南流)하고 있으며, 서(西)로는 의정부2동, 남(南)으로는 호원동, 북(北)으로는 의정부1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의정부병무지청을 비롯하여 세무서, 우체국, 노동부사무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의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었다.

지명유래

1. 두험소(逗驗沼) 터

두험소는 가능동의 곧은골개울(直洞川)에서 흘러오는 물로 형성되었던 큰 소(沼)로 현재 신곡교(新谷橋) 상류일대에 있었으며, 의정부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곧은 골개울의 흐름을 현재의 신시가지 방향으로 바꾸어 없어졌다고 한다.

2. 시둔면사무소(柴芚面事務所) 터

시둔면사무소 터는 구(舊) 시청 자리로 의정부1동 193번지이며, 현재 태영플라자 백화점이 들어서있다.

3. 경찰서터

경찰서 터는 의정부1동 194번지로, 6.25사변이후 의정부2동 420번지로 이전하였다.

4. 동명사립학교(東明私立學校) 터

동명사립학교의 전신은 도평의원(道評議員) 이사항(李思恒)씨가 의정부3동 구 장터에 세운 대정의숙(大正義熟)으로, 최병호씨가 이를 인수하여 의정부1동 151번지 1,200여평 대지에 150여평의 건물로 동명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교사는 박명근(朴命根)씨와 홍모씨(이름은 미상)로 다른 공립학교와는 달리 한글을 가르쳤다고 한다. 학생은 오전반, 오후반, 야학반 등을 합쳐 250여명 정도였는데, 양주면이 읍이 된 다음해인 1943년부터 학생들이 양주국민학교로 편입되면서 폐교되었다. 최병호씨는 1944년에 양주농업학교(현재의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전신) 개교 당시에도 강진구씨와 함께 대지의 일부를 희사하였다고 한다.

5. 일본인학교 터

일본인학교는 일제시대 당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개설된 일본인들만이 다니던 학교였다. 현재 의정부1동 199번지인 그랜드호텔과 시민공원 자리에 있었다.

6. 양주군청 터

양주군청 터는 현재 의정부1동 190번지인 의정부1동사무소 자리에 있었으며, 이 곳에서 도로 건너편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양주지사가 있었다.

7. 여각(旅閣) 터

여각 터는 의정부1동 155번지로 현재의 구터미널이 있는 부근에 있었으며, 상인들을 위한 숙소와 마구간, 외양간등이 있었다고 한다.

8. 일본신사(日本神社) 터

일본신사 터는 의정부1동 203번지로 지금의 중앙감리교회 자리다.

9. 한내(恨川)

한내는 현재 시청 정문 북쪽에서 곧은골개울(直洞川)과 만나 곧게 흘러 두험소(逗驗沼)에 이르던 물의 흐름을 의정부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신시가지로 돌려 흐르게 하여 새로 생긴 개울이다. 흔히 개울을 부르는 속칭과 정식 명칭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의 청계천이 그 정식 명칭 청계천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는 대게 <개천>으로 불린 것이 그 예이다.

<백석천(白石川)>이 한내로 불린 것 역시 동일한 궤도 위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한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커다란 개울, 또는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이다. 우리 말 <한>에 <크다>, 또는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이는 서울의 한강이나 한 밤중이라는 단어들에 이미 잘 나타나 있다.

백석천의 규모나 이 백석천이 흘러드는 중랑천이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을 감안

하고 또 그 위치가 신시가지의 한 복판을 흐르는 것을 감안하여 한내의 의미를 벌판의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이라는 의미로 본다.

10. 방죽계

방죽계는 의정부2동 411번지의 일대로, 이 곳에 있는 큰 저수지를 큰 방죽이라고 불렀고, 작은 저수지를 작은 방죽이라고 불렀다. 방죽은 방축(防築)이 변음된 것인데, 의정부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곧은골개울을 현재의 신시가지 방향으로 돌려 흐르게 하여 방죽 주위의 논에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문태영(文泰榮)씨가 곧은골개울 상류 지점에 있는 보(洑)을 막아서 인공으로 수로(水路)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비행장과 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가능1동과 의정부2동이 일부로 나뉘어져 있다. 안골로 들어가는 입구 교각 위쪽에 그의 공적비가 서 있다.

11. 신흥부락(新興部落)

신흥부락은 의정부2동 128번지 일대로, 6.25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형성한 마을이다.

12. 도살장 터

도살장 터는 지금의 전화국 부근으로 6.25사변 전까지 소를 도축하는 도살장이 있었으며, 도살장에서 한내(恨川)로 물이 흐르는 곳에 장못(長淵)이라는 긴 연못이 있었다.

13. 참나무계

참나무계는 사패산 약수터로 오르는 길에 큰 참나무가 서너 그루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4. 무당바위

무당바위는 참나무계 뒤 문예회관 위쪽에 있는 바위로, 무녀(巫女)들의 치성을 드리며 굿을 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5. 마당방위

마당바위는 무당바위를 지나 작은 언덕을 넘으면 사패산을 오르는 능선에 있는 바위로 마당같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에 움푹 파인 모양이 게와 같아서 게바위라고도 한다.

16. 경성방직공장(京城紡織工場) 터

경성방직공장 터는 흥선로(興宣路)를 따라 곧은골 삼거리로 가는 길의 왼쪽으로 의정부2동 427번지에 있었으나 6.25사변 때 없어졌다.

17. 붕대공장 터

붕대공장 터는 경성방직공장 터 아래 의정부2동 423번지로, 일제시대에 군수품의 하나로 붕대를 만들던 곳이었다.

18. 간장공장 터

간장공장 터는 경성방직공장과 붕대공장 사이인 의정부2동 428번지에 있었으며, 일제시대에 군수용으로 간장을 만들던 곳이었다.

19. 고래뼈공장 터

고래뼈공장 터는 현재 석천빌딩이 있는 부근인 의정부2동 523번지로 군수용으로 고래뼈를 가공하던 곳이었다.

20. 관솔공장 터

관솔공장 터는 의정부2동 436번지로, 관솔의 기름을 뽑아 일본군 비행기의 연료등 군수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21. 새끼줄야적장 터

새끼줄야적장 터는 현재 의정부역 서부광장 사거리 근방인 의정부2동 494번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집하(集荷)한 새끼줄 수백만 묶음을 야적하였던 곳이었다. 이 새끼줄은 일본군이 난방연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22. 구(舊) 장터

구장터는 현재 의정부3동사무소가 있는 부근인 의정부3동 134번지 일대에 있던 우시장과 5일장이 서던 장터로 장소가 협소하여 현재 양주군청이 있는 의정부동 220번지로 이전하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23. 독짓네다리

독짓네다리는 현재의 백석천교(白石川橋)에서 50m 정도의 위쪽에 있었던 나무다리로, 근방에 독을 굽는 가마가 있어서 지게에 독을 지고 다리를 건너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4. 샘들 터

샘들 터는 현재의 세무서가 있는 의정부3동 368번지 일대로, 샘물이 풍부하여 빨래터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25. 연백촌(延白村)

연백촌은 의정부3동 163번지 일대로, 6 · 25사변 당시 황해도 연백의 피난민들이 마을을 형성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6. 월남촌(越南村)

월남촌은 의정부3동 136번지와 137번지 일대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970년대 말 이후부터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7. 병막 터

병막 터는 의정부3동 129번지 일대로, 일제시대에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던 곳이었다. 이 곳에 있는 개울을 병막개울이라고 하였다.

28. 백련이보(洑)

백련이보는 소랭이다리 아래 개울을 막아 논농사에 이용하던 보(洑)를 말한다.

29. 파발막 또는 두험천참(逗驗川站)

파발막은 조선시대의 서울에서 경원(京元) 아오지(阿吾地)까지 가는 첫 번째 파발막인 두험천참이 있었던 곳이다. 예전에는 의정부4동 일대를 파발막리라고 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시둔면(柴芚面) 의정부리(議政府里)로 병합되었다.

30. 새장터

새장터는 구장터의 우시장이 협소하여 옮겨지면서 이곳에서는 6 · 25사변 전까지 우시장이 섰는데 장날이면 영 · 호남에서도 올라 올 정도로 꽤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31. 가재울(佳佐洞)

가재울은 한문으로 가좌동(佳佐洞)이라고 표기되며 이 지명은 어릉리(魚陵里)와 합하여 현재 가능동(佳陵桐)이 되었다. 따라서 가좌동은 가재울을 한문으로 채록하면서 붙인 이름인바 우리말이 한문으로 채록되면서 그 의미가 바뀐 의정부 지역의 대표적 예(例)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가좌(佳佐)는 지명으로는 해석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조어(造語)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재울의 우리말 유래를 <가재가 많은 연못이 있었다>로 보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울은 황새울, 장자울의 예에서 보듯이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수식하는 말이 가재인데 이와 동일한 구조의 지명이 의정부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고, 의정부 이외의 지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지명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의정부 지역에서는 고산동의 가잿말, 민락동의 가재골, 자일동의 갓골이며 의정부 이외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울의 가좌동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가재는 가쟁이 , 가장자리의 의미로 가쟁이에서 'ㅇ'이 탈락하여 축약된 형태이다. 따라서 가재울은 가장자리마을, 맨 끝에 있는 마을로 보아야 정확하다. 실재로 현재 가재울 지역의 어디에도 가재가 많이 살던 연못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가재는 연못에 살지도 않는다. 주지하는 바 가재는 물이 맑은 일급수의 계곡이나 작은 똘에 서식하지 큰 여울이나 연못에는 살지 않는다.

32. 서낭당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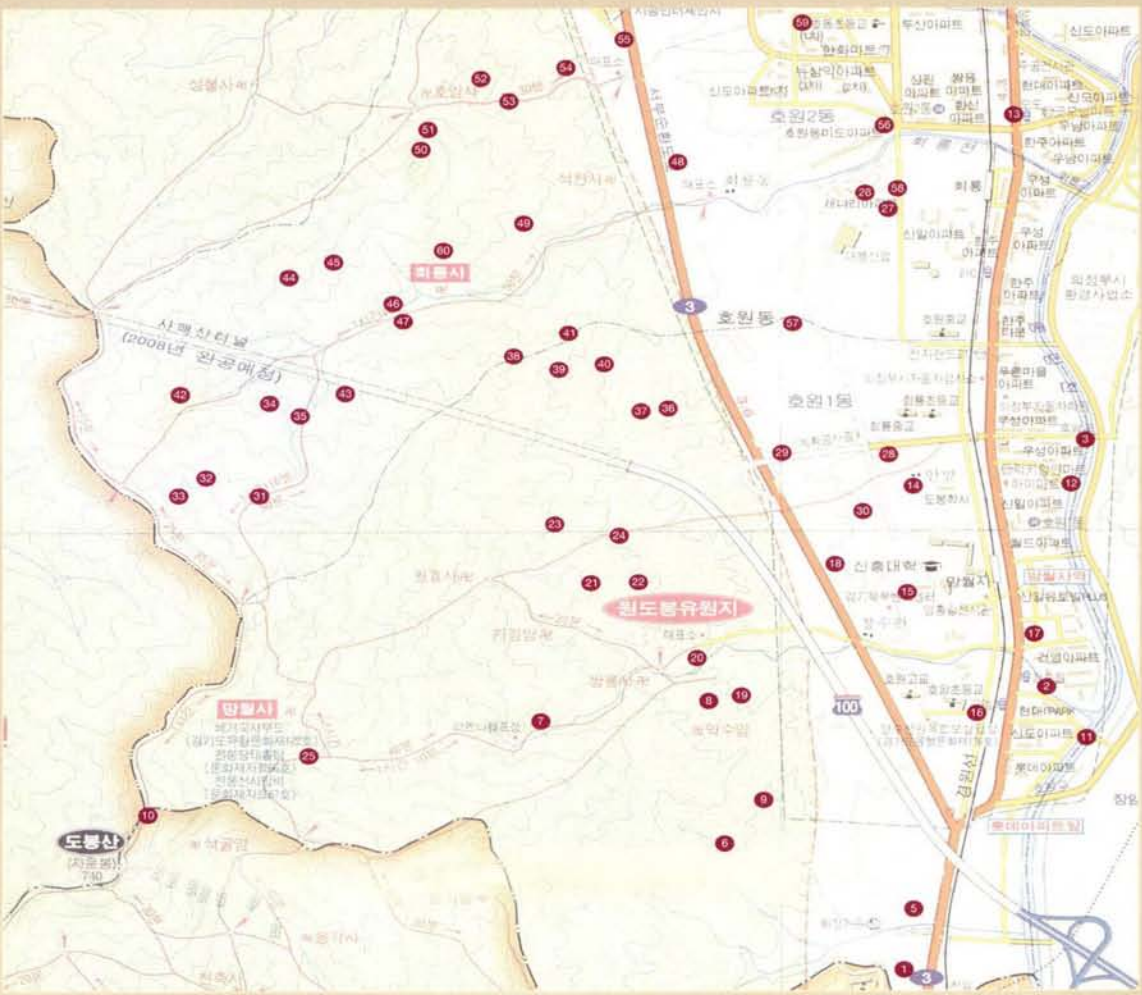
서낭당 터는 평화로를 닦으면서 이 곳에 있던 사낭당 참나무를 베어 버리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 나무를 없애 버리려고 하자 가재울의 아낙네들이 참나무 주위를 돌면서 없애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제2장 호원동

녹양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금오동
자금동
신곡2동
신곡1동
자일동
낙양동
용현동
민락동
고산동
호원동
장암동
산곡동

虎院洞

호원동(虎院洞)



1. 다락원(樓院)	13. 동백나들이	25. 망월사계곡(望月寺溪谷)	37. 절터골	49. 법당골
2. 장수원(長水院)	14. 안말과 바깥말	26. 제주마을	38. 옥수골(玉水谷)	50. 삼성재(三城峙)
3. 구바위소(沼)터	15. 진등	27. 고소리밭	39. 병문안(兵門內)	51. 굉암(轟巖)
4. 삼형제소(三兄弟沼)	16. 새말	28. 진등	40. 비석거리	52. 범굴
5. 연못계 터	17. 주막거리 터	29. 영당(影堂) 터	41. 이성재(二城峙)	53. 도끼바위
6. 공주묘골	18. 밤나무골	30. 약수골	42. 무지치(無至峙)	54. 너러바위
7. 험한골	19. 도둑골	31. 매바위	43. 선녀바위	55. 진등
8. 독박골(독바위골)	20. 개구리바위	32. 얹힌 바위	44. 배나무골	56. 외미
9. 거북골	21. 족두리 바위	33. 구멍바위	45. 무학골(無學谷)	57. 갱개
10. 만장봉(萬丈峰)	22. 용무골(龍舞谷)	34. 안평전	46. 춘추좌전과 효경을 간행한 잡터	58. 전좌(殿座)마을
11. 성지(城址) 터	23. 호랑이코배기바위	35. 고인돌	47. 사기막	59. 조개골 (졸개골)
12. 딸딸이밭	24. 독바위(甕岩)	36. 벼락바위	48. 회룡골(回龍谷)	60. 김구 석굴암

제2장 호원동(虎院洞)

연 혁

호원동은 서울시와 접하는 의정부시의 관문으로서 동(東)으로는 중랑천(中浪川)을 사이에 두고 장암동(長岩洞)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西)로는 도봉산(道峰山)이 펼쳐져 있는 의정부시의 최남단 동(洞)이다. 본래는 호동(虎洞) · 누원리(樓院里) · 장수원리(長水院里)였던 것을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호자(虎字)와 원자(院字)를 따서 시둔면(柴芚面) 호원리(虎院里)로 개칭하였다. 1956년에는 당시의 둔야면(芚夜面) 호동(虎洞)을 호원1리, 누원리(樓院里)와 장수원리(長水院里)를 호원2리로 분할하였다.

이후 1964년 5월 8일「의정부시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호원1 · 2리를 합하여 호원동으로 개칭하였다가 지난 1995년말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부터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2002년 11월 말에는 6만2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동으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2003년 2년 3일 호원 1 · 2동으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명유래

1. 다락원(樓院)

조선시대에 함경도 원산에서 강원도 철원을 거쳐 포천에서 다락원을 통해 서울로 가는 상품 교역의 길이 번창하였는데, 서울로 들어서는 관문인 이곳에 누원점(樓院店)이라는 상점이 생기게 되면서 다락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곳

다락원에는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의 물품이 집하되어 서울로 반입되면서 중간 상인들의 거점이 되었다. 또한 원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건어물을 사재기 해두었다가 서울 상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거나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 서울 상인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누원은 상누원(上樓院)과 하누원(下樓院)으로 번창하였는데 상누원은 지금의 서울시 도봉동이고 하누원은 의정부시 호원동이다.

2. 장수원(長水院)

조선시대에 이 곳에 원(院)이 있었는데 다락원을 거쳐 서울로 가는 상인들이 이곳에서 쉬어가면서 주막거리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장수원이라는 지명은 구바위소에서 흘러오는 물이 하류의 삼형제소까지 길게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구바위소(沼)터

구바위소는 회룡사계곡(回龍寺溪谷)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구바위에 부딪혀 형성되었던 소(沼)로 명주 한 필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었으나,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물의 흐름을 외미 갱개로 바꾸어 놓아서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4. 삼형제소(三兄弟沼)

삼형제소는 작은 소(沼) 세 개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연이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맏형소(沼)는 망월사계곡(望月寺溪谷)에서 흘러나오며, 둘째형 소(沼)는 석천동계곡(石泉洞溪谷)에서 흘러나오며, 셋째소(沼)는 공주묘골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구바위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합쳐져서 소(沼)를 이루었다.

5. 연못계 터

연못계 터는 다락원에서 공주묘골을 오르자면 개울을 건너기전 연못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집이 들어서 있다.

6. 공주묘골

공주묘골은 도봉산(道峰山) 중턱의 골짜기로 조선 중종(中宗)의 둘째 딸인

의혜공주(懿惠公主)와 그 남편 한경록(韓景祿)의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배나무골과 샘골(사이골)이 있는데, 배나무골은 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샘골은 서울시와 경계를 이루기도 하고 샘물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7. 험한골

험한골은 오르기가 힘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 곡식을 쌓아 놓은 노적과 같이 생긴 노적봉이 있으며, 대문과 같이 생긴 대문 바위와 족두리와 같이 생긴 족두리 바위(얹힌바위)가 있다.

8. 독박골(독바위골)

독박골은 공주묘골의 오른쪽 골짜기로 독처럼 생긴 독바위(甕岩)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독바위는 옛날사람들이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빌던 곳이다.

9. 거북골

거북골은 독박골의 아랫쪽 골짜기로 비석을 받치던 거북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 만장봉(萬丈峰)

만장봉은 도봉산 상봉(上峰)에 있는 봉우리로 바위가 수직 절벽으로 높이 솟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만장봉에 대해서 매월당 김시습과 낙곡 진익한이 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장봉

도봉첨수(道峰尖岫)

(峯勢嵯牙如劒鋩)이빨 같이 솟은 산봉우리 무딘 창끝 같고 /
(瘦藤老栢凌風霜)늙은 소나무와 등나무는 바람 서리 이기었네
(幡幢査蕩列梵刹)아득히 나부끼는 깃발마다 절들이 널려 있고 /
(雷電閃爍摩靑蒼)천둥치면 번개는 푸른 하늘을 가리네
(湛 湛霜風惱客眠)서리맞은 단풍은 골치 아픈 나그네 잠재우고 /

(霏霏岩溜漱人腸)바위 위에 내려 녹은 물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씻어내리
(望中不盡眉宇寒)하염없이 바라보니 눈시울만 시렵고 /
(木落天高回雁行)나무위로 떨어질 듯 하늘높이 기러기 날아 올라가네

(梅月堂 金時習)

만장봉(萬丈峰)

(峰名萬丈幾年今)만장봉이란 그 이름 지금까지 몇 해나 되었는지 /
(臍崒嵂勢莫禁)높고 가파른 절벽 어마어마 하기도 하지
(蜿若伏龍蟠地骨)꿈틀거리는 용이 땅으로 내려와 엎드린 것 같은데 /
(快如飛鶻劃天心)잽싸게 나는 송골매는 하늘을 가르는 것 같네
(生嶺黑莫應經到)산꼭대기에 자생하는 송이버섯은 채취를 당했고 /
(崒壁蒼松不滿尋)절벽에 푸른 소나무 드믄드믄 서 있네
(直谷登臨最高頂)높은 절벽을 곧바로 올라가 볼까 /
(眠看滄海手捫參)푸른 바다로 눈길을 돌리고 절벽바위만 세 번 어루만졌네

(樂谷 陳翼漢)

11. 성지(城址) 터

성지 터는 호원동 106번지 일대로 6.25사변 전까지는 이 곳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지명은 영(營)재, 병문안(兵門案), 이성(二城)재, 삼성(三城)재, 둔뱀이와 관련된 것이다.

12. 딸딸이밭

딸딸이밭은 넓은 모래밭으로 갈대만 무성하여 농사에 전혀 쓸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3. 동백나들이

동백나들이는 장수원의 주막거리로 통하는 길로 봄이 되면 길손이 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동막골의 입구이다.

14. 안말과 바깥말

안말과 바깥말은 장수원 뒤의 마을로, 산 밑쪽은 안말이라고 하고 바깥쪽은 바깥말이라고 한다. 안말은 안평대군의 영당과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이 지명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지명이다. 산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으므로 안말, 그보다는 바깥 쪽에 위치하여 바깥말이다. 아마도 전국의 우리말 지명 가운데에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명일 것이다. 문제는 조사자가 이 안말의 유래를 안평대군과 연관시켰다는 것이다. 안평대군의 묘와 신도비는 현재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의 문화유적에는 그와 관련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 진등

진등이라는 명칭은 의정부에 20여곳이 있는데, 이 곳은 호원동사무소(虎院洞事務所) 뒤에서부터 밤나무골까지의 기다란 진흙 등성이를 말한다.

16. 새말

새말은 호암초등학교 옆 회룡천 근처에 있는 마을로, 6.25사변 후 새로 마을이 생기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17. 주막거리 터

주막거리는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장수원의 주막거리를 말한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18. 밤나무골

밤나무골은 망월천(望月川)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경기 제2도청이 건립되기 이전에 북부 출장소가 들어서 있었다.

19. 도둑골

도둑골은 일제시대의 독립군과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독립군이 일본 헌병의 감시로 군자금과 식량조달이 여의치 않자 야간을 이용하여 농민들의 도움

으로 식량을 조달하였는데, 당시 농민들은 넉넉치 못한 식량을 내주면서 일제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이 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섭섭하여 도둑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지명이 의정부내에 다섯 곳이 있다. 이 곳은 신원사가 있는 골짜기로 큰 골짜기는 장도둑골이라고 하고 작은 골짜기는 도둑골이라고 한다.

20. 개구리바위

개구리바위는 바위의 모양이 개구리나 두꺼비의 입과 같이 만장봉 쪽으로 튀어 나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21. 족두리 바위

족두리바위는 개구리바위 위쪽의 능선에 있는 바위로 족두리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며, 얹혀 있다고 해서 얹힌 바위라고도 한다.

22. 용무골(龍舞谷)

용무골은 망월사계곡의 쌍용사 밑에 있는 골짜기로 용이 놀았다는 깊은 소(沼)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암반(岩盤)만 남아 있어 물이 깊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다.

23. 호랑이코배기바위

호랑이코배기바위는 용무골 왼쪽의 작은 계곡에 있는 바위로 그 모양이 호랑이 등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24. 독바위(甕岩)

독바위는 원효사계곡에 있는 바위로 홀로 서 있는 큰 바위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25. 망월사계곡(望月寺溪谷)

망월사계곡은 망월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망월사는 창건연대가 의정

부에서 가장 오래 된 사찰로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8년(639)에 해호스님이 선덕여왕의 명을 받아 창건한 것으로 신라의 서울 월성(月城)을 바라보면서 왕실의 융성을 빌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창건당시의 터는 지금의 망월사에서 서쪽으로 1㎞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 약수터가 있는데 도봉산에서 가장 깨끗하고 유명한 약수터라고 한다.

26. 제주마을

제주마을은 회룡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을로 6.25사변 이후 서너채 들어서면서 당시의 마을이 제주도와 같이 물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일설이 있다. 이 마을을 둘러싸고 휘어 흐르는 규모있는 여울이나 강이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더구나 이를 굳이 '제주'와 비교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억지스럽다. 실제 이와 같은 형상의 지향이 형성되었다하여도 하회마을의 예에서 보듯이 마을을 둘러 싼 강이나 여울을 상형하는 지명이 나타나지 이를 하필 견문한 적도 없는 제주에 빗대어 지명을 짓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제주마을의 제주를 동제나 선제를 주관하는 제주(祭主)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다.

27. 고소리밭

고소리밭은 현재 회룡초등학교 부근 일대로, 일제시대에 도봉산의 화강암을 채취해 가면서 이곳에서 돌을 다듬어 이 곳이 돌밭이 되자 여기서 자란 고사리가 보통 고사리보다 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8. 진등

진등은 연말 뒤의 등성이로 바닥이 흙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긴 등성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29. 영당(影堂) 터

영당 터는 세종의 셋째아들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영정을 모신 영당이 있었

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0. 약수골

약수골은 안말 위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로 약수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체력단련장이 있다.

31. 매바위

매바위는 약수터 위쪽은 있는 바위로 호원동에서 바라보면 매의 머리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리 보인다고 한다.

얹힌바위

32. 얹힌 바위

얹힌 바위는 매 바위 위쪽에 있으며, 바위 위에 바위가 얹혀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손으로 밀면 약간씩 움직인다고 하여 흔들바위라고도 한다.

33. 구멍바위

구멍바위는 얹힌 바위 위쪽에 있는 바위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4. 안평전

안평전은 구멍바위 너머 안골에 있는 작은 분지로 안쪽에 있는 넓고 평평한 땅이라는 뜻으로 붙여졌다. 평전(平田)에는 사전상의 의미가 두가지 있는데, ① 평평하고 넓은 밭, 그리고 ②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이다. 안평전은 이중 ②의 의미를 가진 말로 지리산의 세석평전과 같은 계통의 단어라고 보겠다. 따라서 안평전은 안+평전으로 구성되어 그 의미는 안쪽에 있는 평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5. 고인돌

고인돌은 매 바위 밑에 있으며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개석 위로 참나

무가 자라고 있다.

36. 벼락바위

벼락바위는 절터골 입구 오른쪽에 있으며, 벼락을 맞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바위가 쪼개져 있다.

37. 절터골

절터골은 절이 있었던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곳에 있는 폭포를 절터폭포라고 한다. 또한 폭포아래 삼층 바위가 있으며,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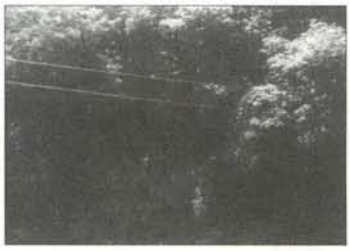
절터폭포

38. 옥수골(玉水谷)

옥수골은 이성(二城)재 옆의 계곡으로 물이 맑고 깨끗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억수골이라고도 불린다.

39. 병문안(兵門內)

병문안은 이성(二城)재 아래쪽으로 예전에 군사를 훈련시키던 곳으로 추정된다. 삼성(三城)재, 이성(二城)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문안

40. 비석거리

비석거리는 숙종 때에 세워진 남원 권씨의 비석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1. 이성재(二城峙)

이성재(二城峙)는 병문안 북쪽 능선에 돌로 성을 쌓은 것을 말한다. 이곳에 봉화대도 있었다고 한다.

42. 무지치(無至峙)

무지치(無至峙)는 위 골짜기로 골이 험해서 사람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3. 선녀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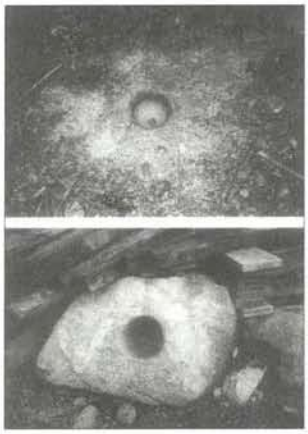
선녀바위는 회룡사(回龍事)에서 무지치로 올라가는 골짜기에 있으며 큰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약 100m정도 암반이 드러나면서 비가 오면 그 위로 폭포가 흐르는데 그 경치가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44. 배나무골

배나무골은 무학골 오른쪽 골짜기로 문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45. 무학골(無學谷)

무학골은 배나무골 너머 동쪽 골짜기로 무학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학골은 예순비구니(禮順比丘尼)가 『춘추좌전(春秋左傳)』과 『효경(孝經)』을 간행한 집터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골짜기에는 이성계(李成桂)가 왕이 된 후 무학대사(無學大師)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돼지바위가 있다.



춘추좌전(春秋左傳)과 효경(孝經)을 간행한 터

46. 춘추좌전(春秋左傳)과 효경(孝經)을 간행한 집터

이 집터는 1635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예순비구니(禮順比丘尼)가 『춘추좌전(春秋左傳)』과 『효경(孝經)』을 직접 번역하여 국문으로 언해(諺解)를 만들어 출판한 곳이다. 예순비구니(禮順比丘尼)는 녹양동에서 이귀(李貴)의 딸로 태어나 김자겸에게 출가하였다가 그의 죽음으로 회룡사의 여승이 되어 불교에 귀의 하였다.

47. 사기막

사기막은 회룡사 앞 골짜기로 사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고 현재도 그 파편이 많이 출토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48. 회룡골(回龍谷)

회룡골(回龍谷)은 회룡사 입구의 마을로서 회룡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회룡사(回龍寺)는 1300여 년 전 신라 의상(義湘)스님이 창건하였으며 원명(原名)은 법성사(法性寺)였다. 이성계(李成桂)가 왕위에 오르기 전 이 절에서 3년간 무학대사(無學大師)와 함께 경륜을 폈다고 한다. 그 후 이성계가 이 곳으로 무학스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임금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여 법성사 대신 회룡사로 고쳤다고 한다. 회룡사 정문 입구에서 아래쪽으로 약 10m정도에 회룡사 계곡과 회룡사 폭포가 있다.

49. 법당골

법당골은 회룡골 개울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무당들이 치성을 드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병풍과 같이 생긴 병풍바위가 있으며, 위쪽에는 깨끗한 샘물이 나오는 약수터가 있다.

삼성재

50. 삼성재(三城峙)

삼성재는 무학골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 곳은 성지(城址)터와 이성재(二城峙), 병문안(兵門內)등과 관련된 곳으로 사면이 바위로 되어 있어 적군이 올라 올 수 없는 지형이며 500명 내지 700명의 군사가 은신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이다.

굉 암

51. 굉암(轟巖)

굉암은 삼성재에서 직선으로 100m정도 아래쪽에 있으며, 작은 바위 위에 큰 바위가 얹혀 있다. 바위 뒤쪽으로는 넓은 공간이 있으며 그 곳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먼 곳의 소리까지 들린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일설이 있다.

이 바위는 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바위이다. 중종실록은 녹양지역에서 강무를 베풀면서 국왕의 지휘소인 전좌의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찰관을 현지에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에 이 바위가 등장한다.

파견좌상 대장(左廂大將) 조윤손(曺閏孫), 우상대장(友廂大將) 황침(黃琛), 병조 참비 조인규(趙仁奎) 등이 아뢰기를,

"녹양장(綠楊場) 대열(大閱)하는 곳의 전좌(殿坐)할 자리를 간심(看審)해보니 도봉산(道峯山) 거암(擧巖) 아래 산기슭이 동쪽으로 추동(楸洞)을 향하여 있는데 중산(中山)과는 거리가 5~6리쯤 동네 어귀가 평탄하고 광활해서 10만 병마(兵馬)라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하니, 그곳에서 대열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 31년 7월7일 (경신))

여기에 나타나는 도봉산 거암이 바로 굉암이다. 실록에는 이 바위가 허공에 들려있다는 이유로 거(擧), 즉 들린 바위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현지의 지명인 굉(轟)의 문자적 의미는 큰 소리가 난다라는 뜻으로 이 바위의 명칭은 큰 소리가 나는 바위라는 어색한 뜻이 되어 버린다. 따로 그 연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 바위의 지명 유래를 명칭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그 명칭에 대한 설명이 바로 바위에 올라와 들으면 작은 소리라도 다 잘 들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을 유래로 바위의 명칭을 굉암, 즉 큰소리가 나는 바위로 명명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여기에서 지명 유래에 대한 설명인 "들린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바위에 대한 실록의 명칭은 거암(擧巖), 즉 "들린 바위"이다. 그리고 굉암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소리가) 잘 들린다> 이다. 그렇다면 두 개의 명칭에 모두 <들린>이 공동으로 내포되어 있다. 만일 이 바위의 속칭이 들린 바위였다면 실록의 필자는 이를 한역(漢譯)하여 당연히 거암(擧巖)이라 하였을 것이고, 이후 이 속칭을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듣고 한역(漢譯)하였다면 이를 들리는 바위로 오인하여 굉암(轟巖)이라고 잘못 명명하였을 개연이 있다는 것이다.

위의 자료를 검토하여 이 바위의 명칭을 실록에 나타난 대로 거암(擧巖)이라 하던가 원래의 우리말 이름 그대로 들린 바위라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바위의 형상은 허공에 들려있다.

52. 범굴

범굴은 일명 백인굴 또는 박쥐굴이라고도 한다.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굴이라 하여 백인굴이라고도 하고, 박쥐가 살았다고 하여 박쥐굴로도 불린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 말 우왕 1년 봄 이성계가 아직 등극하기 전 무학대사와 함께 이 산에 와서 대업경륜을 위한 기도를 3년이나 올렸다고 한다.

도끼바위

53. 도끼바위

도끼바위는 호암사 가기전 오른쪽 계곡밑에 있으며, 일명 메아리바위라고도 불린다. 이 도끼바위는 바위의 절반이 잘려져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이 바위를 자를 당시 바위에서 피가 나왔다고 한다.

54. 너러바위

너러바위는 일명 노루바위라고도 하며 삼성재 아래에 있는 넓적한 바위로 마을사람들이 이 바위 앞에서 빨래를 한 후 옷을 바위에 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55. 진등

진등은 범굴과 회룡굴 중간의 얕은 등성이로 찰 진흙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56. 외미

외미는 갱개 옆의 마을로 일제시대에 일본인만 거주하였고 이들의 묘가 마을 뒷산에 있어서 왜묘라고 부르다가 변음되어 외미가 되었다고 한다는 일설이 있어왔다. 그러나 일본인은 무덤을 만들 때 이를 화장하여 작은 유골기에 담고 이 유골기를 가족묘에 합장하는 오래 된 습성이 있다. 민속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유습이 남는 것이 바로 장례 풍속이다. 이는 거처를 옮긴 후에도 자신이 배운 방식을 쉽게 바꾸거나 버리지 않는 대표적인 민속이다.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무덤을 만들고 그것이 마을의 지명 유래가 되었다는 설명도 불합리하거니와 하물며

그렇다면 그것이 불과 50여 년 이전의 일이니 마땅히 그 유적이 현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설사 한 두기의 무덤이 있는 것만으로 마을의 지명이 생길 일은 만무하지 않은가? 거기에 더하여 왜(倭)라는 명칭은 일종의 비칭인데 이 비칭을 사용한 지명이 일제시대에, 일본인에 의하여, 일본인 거주 지역에 생겼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다.

외미는 <외+미>로 구성된 지명이다. 미는 얕은 고개나 낮은 언덕을 의미하는 우리말로서 의정부 장암동의 배내미, 신곡동의 당내미, 용현동의 무내미, 된내미나 서울 수유리(水踰里)의 우리말 명칭인 무네미등에 나타나는 흔한 지명이다. 따라서 외미는 외딴고개, 외진 언덕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우리말 지명이다. 실제로 의정부의 낙양동 지역에 외미둑이라는 지명이 현존하고 있다.

만일 <왜묘>가 음운적으로 변화한다면 <애묘>로 되지 <왜>보다 더 어려운 <외>로 퇴행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외미의 기존 지명 유래를 재검토해야 하는 당위성이 된다.

57. 갱개

갱개는 회룡골에서 외미 앞으로 흐르는 개울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회룡골에서 구바위소까지 흐르던 회룡천(回龍川)의 흐름을 바꾸어 다시 개울을 내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8. 전좌(殿座)마을

전좌마을은 회룡골 입구마을로서 조선왕조 개국 초 왕자의 난으로 상심한 태조(太祖)가 함흥으로 간 후 돌아오지 않다가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설득으로 환궁하게 되었다. 이에 태종이 이 곳까지 마중나와서 부자가 상봉하게 되었는데 그 때 임금이 좌정하였던 자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일설에는 이성계(李成桂)가 왕이 된 후 무학대사를 만나러 왔다가 쉬어간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재고를 요한다. 의정부시의 기존 지명 유래인 <태조 환궁 설화>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유일한 역내 지명이 바로 이 전좌 마을의 지명

유래이다. 그러나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설화에 바탕한 지명 유래는 역사성에서 실재가 아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태조 대신에 왕이 된 정종은 바로 수도를 옛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옮기게 되고 이후 태종 8년 다시 한양으로 환도하기까지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 아닌 개성이었다.

유후사(留後司)로 환도(還都)하니, 공후(公侯)는 모두 따르고, 각사(各司)에 서는 반씩만 따랐다. 태상왕이 거가(車駕)를 움직이니, 회안군(懷安君) 이방간(李芳幹)과 각 사의 관원 한 사람씩이 따랐는데, 길이 정릉(貞陵)을 지나니, 두루 살펴보고 머뭇거리면서 또 말하기를,

"처음에 한양(漢陽)으로 옮긴 것은 오로지 내 뜻만이 아니었고, 나라 사람과 의논한 것이었다."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갔다. (정종 1년 3월 7일 무인)

따라서 태종 2년에 발생한 태조의 환궁 사건 역시 그 무대는 당연히 개성이었다. 북쪽 함흥으로부터 서울로 돌아오는 태상왕을 나아가 영접한다면 개성보다도 더 북쪽에서 맞이하여야 사리에 맞는 일이고 실제로 실록은 그 영접이 황해도 금교역(金郊驛)에서 이루어졌다고 날자와 장소,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 임금이 금교역(金郊驛)에 나가서 태상왕을 맞이하고, 장전(帳殿)으로 들어가서 헌수(獻壽)하였다.

태상왕이 서울로 돌아오다. (태종 2년 12월 8일 정사)

따라서 전좌마을에 대한 기존의 지명 유래는 명백히 그 역사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좌(殿座)라는 것은 국왕의 보좌, 혹은 국왕이 나와 앉음이라는 의미로 실록을 비롯한 공식 기록에서는 왕의 지방 행행(行幸)시 임시로 거처하는 장

소를 지칭할 때 주로 쓰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록은 중종 31년 7월 녹양에서의 강무를 앞두고 국왕이 전좌할 장소를 간심하여 보고하였는데 바로 전좌마을 뒷산을 전좌의 장소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강무와 관련되어 나타난 지명이 아닌 가도 생각된다. 그러나 전기 중종 31년의 강무는 사정 끝에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국왕 중종이 현재의 전좌마을에 전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를 비록 중종 31년의 강무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녹양이 종종 강무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언젠가 이 마을에 국왕이 전좌하였던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사건이 실재했다면 마을 이름이 전좌로 유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 마을의 정확한 명칭이 <정잣머리>라는 현지 구전도 있다. 만일 이 마을의 명칭이 정잣머리라면 이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전좌가 정자로 변이 되었을 가능성인데 이는 음운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정자의 들머리"가 본 명칭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좌가 정자로 변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록자가 정자를 전좌로 오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정잣머리는 이른 바 정자계열의 지명으로서 의정부에도 장암동의 정자마을, 고산동의 정자마을등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치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59. 조개골 (졸개골)

조개골은 범골마을 앞 능선 너머에 있으며, 졸개골 이라고도 불려진다.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60. 김구 석굴암(白凡祠)

김구 석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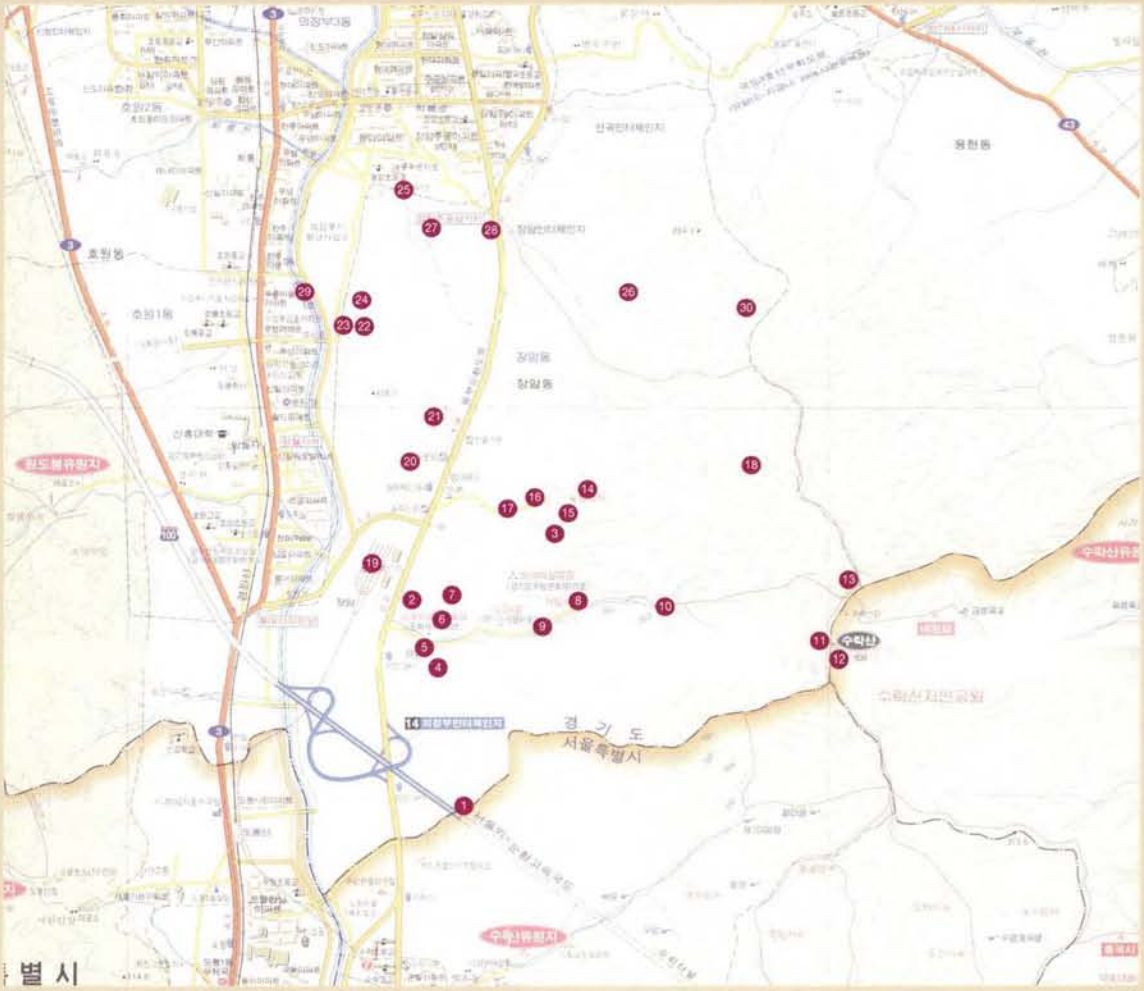
김구 석굴암은 회룡사 서쪽에 있는 천연동굴로 백범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에 한 때 피신하였던 곳으로 광복 후에도 이곳에 자주 들러 소요하며 고금을 회상하곤 하였다고 한다. 1949년 6월 26일 오후 3시에 석굴암에서 백범을 모시고 "石窟庵 佛 戊子仲秋游此 白凡 金九"라는 명문제막식(銘文除幕式)을 가질 예정이였으나, 그날 백범이 암살되어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의정부에서는 선생의 피 묻은 조끼 조각을 시신으로 삼아 당시 양주초등학교 교정에서 영결식을 거행한 후 이 곳 석굴암 앞에 안치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석굴암에 선생의 위패를 모셨으며 이곳을 백범사라고 한다.

제3장 장암동

녹양동
금오동
자금동
자일동
가능1동
낙양동
가능2동
의정부1동
신곡2동
가능3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신곡1동
용현동
민락동
호원2동
고산동
장암동
호원1동
산곡동

長岩洞

장암동(長岩洞)



1. 옥수당개울	7. 장재울(長者洞)	13. 오리봉(鴨峰)	19. 밤나무골	25. 동막골(東幕谷)
2. 양지말	8. 석림사계곡(石林寺溪谷)	14. 쌍암사(雙岩寺)	20. 봉화재	26. 절터골
3. 진등	9. 청풍정(淸風亭) 터	15. 매봉재(鷹峰)	21. 산보골	27. 진등
4. 벌말	10. 선유곡(仙遊谷)	16. 기와집터	22. 영(營)재	28. 개쟁이개울
5. 응달말	11. 기차바위(東峰)	17. 정자마을(위말)	23. 구바위	29. 느름내개울
6. 서계 박세당학당터	12. 동봉서원(東峰書院) 터	18. 치마바위	24. 여근곡(女根谷)약수	30. 배내미고개

제3장 장암동(長岩洞)

연 혁

장암동은 원래 둔야면(芚夜面)의 장자리(長者里)와 조암리(鳥巖里) 일부, 그리고 동막리(東幕里)를 합쳐 장자리와 한자씩 따서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때 시둔면 장암리(長巖里)로 개칭되었다. 1964년 5월 8일「의정부시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장암동이 되었다. 장암동은 신곡동과 함께 행정동인 장곡동에 속해 있어 동사무소를 30년간이나 갖지 못하다가 1994년 7월 1일에 인구 증가로 분동(分洞)되어 장암동사무소를 갖게 되었다.

지명유래

1. 옥수당개울(玉水堂川)

옥수당개울은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경계를 이루는 개울로 수락산으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 내려서 붙여진 이름이다.

2. 양지말

양지말은 서계 박세당 학당(西溪 朴世堂 學堂)터가 있는 곳을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진등

진등은 양자밀 앞의 능선으로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긴 등성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4. 벌말

벌말은 진등의 아래쪽에 있으며, 산을 등지지 않고 사방이 논들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삼형제소, 운구너머, 장안보 등이 있다. 운구너머는 벌말을 넘어가는 얕은 등성이의 산이며, 장안보는 벌말 앞 논에 물을 대는 보(洑)이다.

5. 응달말

응달말은 응달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계 박세사당이 심었다는 대나무

6. 서계 박세당 학당(西溪 朴世堂 學堂) 터

서계 박세당은 인조 7년(1629)에 남원부사 정(灯)과 양주 윤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숙종때의 실학파 학자로서 예조좌랑, 병조좌랑, 춘추관 기사관을 거쳐 홍문관교리 등을 지내다가 40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장암동 석천동(石泉洞)으로 돌아와 궤산정(簣山亭)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손수 농사를 지으며『색경(穡經)』이라는 농사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으며 고전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하였다. 궤산정을 중심으로 뒤편에는 서계의 고택(古宅)이 있고 주위에는 그가 심었다고 전해오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들이 지금도 무성함을 자랑하고 있다. 서계 박세당 학당터는 궤산정 북쪽에 위치한다. 이 곳에는 서계 영당이 있고 영당 앞에 서계 박세당이 심었다는 대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 이 곳 계곡을 석천동 계곡이라고 하는데 서계 선생이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이다.

7. 장재울(長者洞)

장재울은 수락산 기슭에 있는 마을로서 조선 숙종(肅宗)때 서계 박세당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이 곳에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그 인품이 관후(寬厚)할 뿐만 아니라 직간보국(直諫輔國)하여 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

데, 관후장자(寬厚長者)가 사는 곳이라 하여 장자동이 되었다. 지금은 변음되어 장재울이라고 부른다.

8. 석림사계곡(石林寺溪谷)

석천동

석림사계곡은 석림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림사의 최초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자주 머물던 수락사지(水落寺址)에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이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했다고 하니 서계의 생존연대(1629~1703년)로 보면 석림사의 초창은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곳에는 큰골, 긴골, 험한골, 열두개울 등이 있다.

9. 청풍정(淸風亭) 터

청풍정은 노강서원(鷺江書院) 앞에 있는 정자로 현재는 주춧돌만 남아 있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삼각산 중흥사(重興寺)에서 공부하다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책을 불사르고 사육신의 시신을 거둔 후에 처음에는 청풍정에 숨었다가 폭천정사(瀑泉精舍)로 옮겨 은둔하였다고 한다.

청풍정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선생이 매월당 김시습을 추모하기 위해 영당(影堂)을 짓고 그 앞에 세운 정자로 제자들과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다. 주추의 크기는 높이 90㎝, 아래 폭 60㎝, 위 폭 38㎝ 정도이며 모두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주추간의 거리는 가로 2.2m, 세로 2.4m인 것으로 보아 정자의 평면적은 1.6평 정도로 추측된다. 정자 아래쪽 계곡 암면에는 수락동천(水落洞天)이라는 암각이 남아 있다. 이 글씨는 남구만의 글씨로 추정된다.

10. 선유곡(仙遊谷)

선유곡은 석림사 위에 계곡으로 옛날에 선녀가 와서 놀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험막골, 중소난골(中小難谷), 열두바퀴 계곡이 있는데 험막골은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중소난골은 선녀탕 밑 오른쪽 골짜기인데 이곳 역시 험하다고 한다. 열두바퀴 계곡은 수락산에 골짜기가 많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큰골 또는 긴골 등으로도 불린다.

11. 기차바위(東峰)

기차바위(동봉)

기차바위는 기차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의 이름은 동봉이다. 남양주시 청학리에서는 이 바위가 향로같이 생겼다고 하여 향로바위(향로봉)이라 부른다. 이 곳에 관한 서계 박세당의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봉(東峰)

(東峰已無舊精舍) 동봉(東峰)에는 이미 옛 정사(精舍)가 없는데
(道人風流誰繼者) 도인(道人)의 풍류를 누가 이어 받을 꼬
(西溪老翁住溪畔) 서계(西溪) 노옹(老翁)이 시냇가에 살아
(獨愛東峰行坐看) 동봉(東峰)을 사랑하여 홀로 바라보노라
(東峰高入星漢邊) 동쪽 봉우리의 높은 저 기상은
(道人道超隨夷前) 도인의 높은 뜻을 드러낸 듯 하건만,
(凡僧俗士不好事) 땡중과 삿된 무리들 이를 반기지 않아
(道人遺蹟今莫記) 도인의 그 남은 자취 이제 간 곳 없어라
(寂寞空岩今久倚) 적막한 빈 바위만 옛날처럼 여전한데
(東峰月照西溪水) 동봉에 뜬 달이 서계 시냇물을 비추네

(西溪 朴世堂)

동봉서원 축대

12. 동봉서원(東峰書院) 터

동봉서원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을 모셨던 청절사(淸節祠)를 말한다. 사액은 청절사에 내려졌으나 이 곳의 유림들은 동봉서원이라고 불렀다. 이 동봉서원의 전신은 폭천정사(瀑泉精舍)인데 폭천정사는 매월당 김시습이 10여년간 은거하던 곳으로 김시습이 서거정(徐居正)과 시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남양주시 청학리 사람들은 이 곳을 매월당 서당터라고 부른다.

13. 오리봉(鴨峰)

오리봉은 기차바위 동북쪽에 있는 봉우리로, 오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4. 쌍암사(雙岩寺)

쌍암사는 장암동 192번지로 수락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초의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며, 경내 계곡에 두 개의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쌍암사중건기(雙岩寺重建記)에 의하면 고종 17년(1880)에 화주(化主) 불운(佛雲)과 유원니(有願尼)가 중건하였다. 그 후 6.25사변으로 인하여 완전히 소실된 것을 1956년 구순복니(具順福尼)가 법당과 요사를 중건하였다.

쌍 암

15. 매봉재(鷹峰)

매봉재는 박세당 묘 위쪽에 있는 봉우리로 매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6. 기와집터

구한말 참봉벼슬에 있던 조씨의 집터이다.

17. 정자마을(위말)

정자마을은 예전에 정자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이 정자마을 안에는 샘내기라는 수질이 좋은 우물이 있으며, 수삼매기라는 빨래터가 있다.

18. 치마바위

치마바위는 오리봉 서쪽 밑에 있는 바위로 생김새가 주름을 잡은 치마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19. 밤나무골

밤나무골은 아름드리 밤나무가 무성히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해방 후 밤나무를 베고 배나무를 심어 배밭이 되었다고 하며, 현재는 장암역과 7호선

기지창이 들어서 있다.

20. 봉화재

봉화재는 장암역 옆산인 안산의 맨 위 봉우리로, 봉화를 올리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봉화재 앞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안고래라는 논이 있다.

21. 산보골

산보골은 산보할 수 있는 오솔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원산에서 누원을 거쳐 서울로 가는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었으며, 이 곳에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22. 영(營)재

영재는 병문안 · 이성재 · 삼성재의 지명유래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 이 곳에 병영(兵營)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이 고개를 아리랑고개라고도 하는, 아리랑고개는 6.25사변 당시 군부대에서 나오는 휘발유를 자전거에 싣고 힘들게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3. 구바위

구바위는 본래 밑으로 구바위소(沼)가 있어서 구바위의 9층 계단을 통해서 구바위소로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갱개로 물의 흐름을 바꿔 놓으면서 연못은 없어지고 구바위는 지상으로 2층만이 남게 되었다. 이 구바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장군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여막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묵는 상인들을 닭이 울기전에 연못에 밀어 넣어 죽이고는 돈과 물건을 가로채며 살았는데, 이를 며느리가 알고 관가에 고발했다고 한다. 그 며느리가 부르던 노래도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길주 명창 가는 베장사야 / 닭이 운다고 떠나지 마라 /
정닭의 울음이 아니고 / 맹장군의 인닭의 울음이다."

24. 여근곡(女根谷) 약수

여근곡 약수는 이 곳에 있는 바위의 모양이 여근(女根)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 바위에서 소량의 샘이 나오는데 그 물이 유명하다고 한다.

25. 동막골(東幕谷)

동막골은 수락산 아래 신성통상주식회사가 있는 마을로서 장수원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동막골은 독막골로서 이 역시 전국에 걸쳐 흔하게 나타나는 지명이다. 독막돌의 음운이 변이 되어 동막골이 되는데, 주지하는 바 독막골은 독을 짓는 막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의정부 독막골은 발곡(鉢谷)으로도 표기되고 바리솔이라는 우리말 지명으로도 남아있다. 모두 사기를 굽던 독막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하겠다.

26. 절터골

절터골은 동막골에서 상봉(上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이끼가 껴서 검게 보이는 재바위와 6.25 사변 때 폭격으로 이내 움푹 패인 움푹바위, 구멍이 뚫린 구멍바위가 있다.

27. 진등

진등은 바닥이 진흙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주공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28. 개쟁이개울

개쟁이개울은 장암동과 신곡동의 경계를 이루는 개울로, 개쟁이라는 샘물이 있었던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가재울에서 살펴본 것처럼, 끝을 의미하는 가장이 계열의 지명으로 파악된다. 가장이가 가쟁이로 이 가쟁이가 다시 개쟁이로 변이된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개울의 이름을 따서 샘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면 몰라도, 샘의 이름을 따서 훨씬 큰 개념의 개울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회(府會)의 기미가 짙게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쟁이 개울은 마을 끝에 있는 개울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9. 느름내개울

느름내개울은 두험소에서 구바위까지의 물의 흐름이 완만하여 물이 누리게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0. 배내미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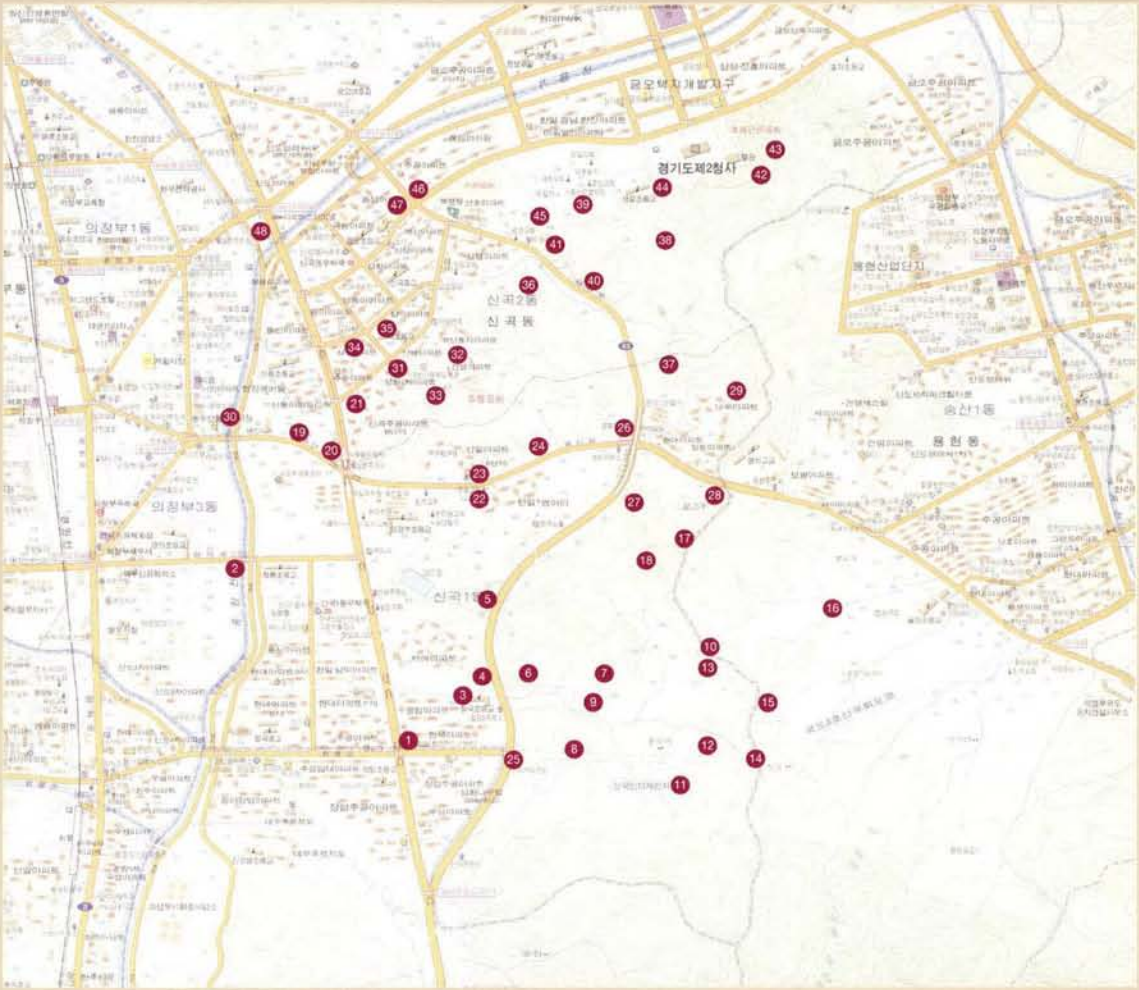
배내미고개는 상봉과 항미봉 사이에 있는 고개로 동막골에서 만가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만가대로 내려가는 골짜기가 배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4장 신곡동

녹양동
금오동
자금동
자일동
가능1동
낙양동
가능2동
의정부1동
가능3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호원2동
고산동
호원1동
장암동
산곡동

新谷洞

신곡동(新谷洞)



1. 공석들
2. 청룡부리
3. 발이술리(鉢伊述里)
4. 날개터골
5. 삼태봉
6. 황새모탱이
7. 바위백이
8. 안산
9. 주막거리 터
10. 둔뱀이(本芚夜)
11. 바랑굴골
12. 응달말
13. 양지말
14. 당내미고개
15. 다랑굴고개
16. 장굴고개
17. 오산릉
18. 지른너미
19. 동오리(東梧里)
20. 고인돌 터
21. 바랑골
22. 가래울(楸洞)
23. 비석거리
24. 윗골
25. 개다리골
26. 옻물샘
27. 앉은뱅이봉
28. 공고개마을
29. 오무작골
30. 신곡교(新谷橋)
31. 바위백이모퉁이
32. 능골(陵谷)
33. 시루봉
34. 마외들
35. 찬우물
36. 뒷개울
37. 불당골
38. 뒷골
39. 신촌(新村, 새말)
40. 등산너머
41. 진등(황등산)
42. 민치골
43. 송지나무골
44. 모릉구지
45. 앞자리
46. 독두소와 독개울
47. 거북나루
48. 두험내다리(楊州橋)

제4장 신곡동(新谷洞)

연 혁

신곡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둔야면(芚夜面) 신촌리(新村里), 추동리(楸洞里), 발곡리(鉢谷里), 본둔야리(本芚夜里)를 시둔면 신곡리(新谷里)로 개칭하여 오다가, 1964년 5월 8일「의정부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신곡동이 되었다. 신곡동은 장암동과 함께 행정동인 장곡동에 속해 있었으나 1994년 7월 1일 장암동과 분리되었고, 1995년 3월 2일 인구증가로 분동(分洞)되어 추동리, 발곡리, 본둔야리는 신곡1동이 되었고, 신촌리(新村里)와 동오리(東梧里) 일부는 신곡2동이 되었다. 신곡동이라는 이름은 신촌리와 발곡리에서 한자씩 따서 지은 것이다.

지명유래

1. 공석들

공석들은 들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근방에는 외둥지와 밭나들이가 있는데, 외둥지는 들판과 땅이 기름져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밭나들이는 청룡부리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2. 청룡부리

청룡부리는 가래울에서 발이술리(鉢伊述里)로 가는 모퉁이로 이 앞에 안산

이 있어서 안산모탱이라고도 불렸으며, 이 위에 고인돌이 있어서 바위모탱이라고도 불렸다.

3. 발이술리(鉢伊述里)

발이술리는 가래울에서 나는 가래나무를 재료로 하여 바리때(鉢)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바리때를 만드는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있다. 발이소리(鉢伊所里) 또는 바리솔, 발곡(鉢谷)등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가래울의 지명 유래에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작성된 바리솔의 지명 유래 역시 같은 개연 속에서 동일한 재검토의 여지를 가지게 된다.

바리솔은 지명 그대로 바리를 만들던 마을이다. 이 경우 비라를 바리때로 이해하는가, 사발(沙鉢)로 이해하는 가가 지명 유래 파악의 핵심 관점이 된다고 본다. 발(鉢)의 문자적 의미는 바리때이지만 이 글자는 흔히 사발(沙鉢)의 약어로도 널리 통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가래울에 연관한 지명으로 이해하였지만, 동막에 관련한 지명으로 보려 한다. 즉 독막에서 사발을 굽던 마을로 보려는 것이다. 이는 가래울이 가래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자연 조건을 전제로 하여 그렇다는 말이다. 동시에 본동 소재 다랑굴 고개밑에 그릇을 굽는 옹기 가마가 있었다는 조사 역시 이를 뒷받침 하는 방증의 하나라고 하겠다.

4. 날개터골

날개터골은 삼태봉 옆의 골짜기로 조선시대에 매를 날리던 곳으로 매봉재와 그 유래가 같다.

5. 삼태봉

삼태봉은 추동의 응달마을 뒤에 있는 봉우리로 응달마을이 삼태기 모양으로 생겨서 그 봉우리를 삼태기봉이라고 하였다. 이 아래에 의정부초등학교 옆으로 서울로 왕래하는 길이던 서울고개가 있었다.

6. 황새모탱이

황새모탱이는 발이술리에서 둔뱀이로 돌아가는 모퉁이로 황새가 날아오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7. 바위백이

바위백이는 길가에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 앞의 논을 바위백이 논들이라고 한다.

8. 안산

안산은 황새모퉁이 오른쪽에 있는 산봉우리가 얕은 산으로 산의 모양새가 조그맣고 둥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 주막거리 터

주막거리는 지금의 신곡1동 240번지로 원산에서 누원점을 드나드는 길이었으며, 주막과 대장간이 있었다고 한다.

10. 둔뱀이(本芚夜)

둔뱀이는 둔과 배미의 합성어로, 둔은 芚으로 표기되었지만 이는 오기이며 둔(屯)이 정확한 표기로서 이는 역둔토의 준말이다. 배미는 농토를 세는 속칭으로 한 배미, 두 배미 하는 식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돈배미는 역둔토(驛屯土)를 이르는 속칭이 된다.

이를 한자어로 차자(借字)표기한 것이 둔야(屯夜)로서 이두 표기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이곳 의정부 지역에 의정부(議政府)소속의 역둔토(驛屯土)가 있어 이를 둔배미라 하였고 이는 우리 의정부의 지명 유래가 된다. 자료에는 의정부 둔(議政府 屯), 의정부 평(議政府 坪)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둔(屯)과 관련하여 군대 주둔지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誤謬)이다. 또한 이 곳을 본둔야(本芚夜)라고도 하는데, 이는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때 둔야리가 용현동으로 속해지게 되었으나 이 곳에 둔야면사무소(芚夜面事務所)가 있으므로 본래의

둔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1. 바랑굴골

바랑굴골은 상봉밑의 골짜기로 이 곳에는 다락과 같이 생긴 다락바위와 말등처럼 생긴 말등바위, 범 같이 생긴 범바위가 있고 매우 가파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12. 응달말

응달말은 둔뱀이의 상봉밑에 있는 마을로 응달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3. 양지말

양지말은 바위백이 왼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4. 당내미고개

당내미고개는 서낭당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본래는 이 고개 옆에 공(貢)고개라는 고개가 있었다고 한다. 공고개는 서울에 조공을 싣고 가는 나귀와 소가 많이 지나 다녀서 붙여진 이름인데, 철도가 부설되고 신작로가 생기면서 길이 쓸모없어지자, 공고개를 막아서 없어졌고 당내미고개로 넘어다녔다. 현재는 의무대가 들어서 있다.

15. 다랑굴고개

다랑굴고개는 둔야면사무소 터 앞의 고개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개 밑에는 그릇을 굽는 옹기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16. 장굴고개

장굴고개는 양현리 사람들과 둔야리 사람들이 용현리 사무소로 드나들던 지름길로 장굴로 가는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17. 오산릉

오산릉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으며, 이 곳 너머에 옹주의 묘가 하나 있다.

18. 지른너미

지른너미는 예전에 둔뱀이에서 의정부로 나갈 때 이 길로 가면 빨리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 동오리(東梧里)

동오리는 예전에 오동나무가 많았는데 이 곳이 동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둥우리라고도 부르는데 산 모양이 알둥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0. 고인돌 터

고인돌 터는 동오리 위쪽에 있으며, 현재는 개석만 남아 있다.

21. 바랑골

바랑골은 양지가 바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파평윤씨 세가의 묘가 있다.

22. 가래울(楸洞)

가래울은 의정부초등학교 윗쪽에 있는 마을로 음지쪽에 있다고 하여 음지말이라고도 불렸으며, 이 곳에 가래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가래울 또는 추동이라고 불려졌다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추동(楸洞)이라는 지명은 앞서 전좌마을에서 검토한『중종실록』기사에도 나오는 지명이다. <楸>는 개오동나무, 호두나무, 가래나무를 의미하는 한자로 자전을 찾으면 대표 의미로 개오동을 들고 있고 훈도 개오동나무 추로 새긴다. 단, 추목(楸木)로 쓰면 그 의미가 호도열매로 한정된다.

문제는 가래울에 가래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래울이라는 지명이 붙었다는 지명이 유래는 재검토의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왕조실록』에서 이 마을을 추동(湫洞)으로 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현지의 우리말 지명을 한역(漢譯)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것일 것이다. 즉 가래울이라는 지명을 듣고 가래를 가래나무 열매로 인식하여 이를 한자로 추동(湫洞)이라 표시한 것이다. 이는 우리말 지명을 한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다면 가래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갈>에서 온 것이다. 갈은 길이 갈라지는 곳을 나타난다. 외줄기 길이 진행하다가 지형을 따라 두 갈래 이상의 길로 갈라지는 들머리에 흔히 나타난다. 그런데 이 갈 계통의 지명은 한역의 관정에서 아주 다양한 한자로 표기된다. 주로 칡갈(葛)자로 한역되었는데 서울의 갈현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갈현동 역시 갈현, 즉 갈 고개 의 한자말 표기로 갈림길이 시작되는 언덕이라는 의미인데 이 갈을 한자말 갈(葛)로 표기하여 갈현(葛峴), 즉 칡이 무성한 언덕으로 바꾸어 놓아버린 것이다. 따라서 가래울은 갈림길 들머리의 마을이 보다 정확한 의미라고 보겠다.

23. 비석거리

비석거리는 윤은보(尹殷輔)의 신도비(神道碑)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윤은보는 조선 성종(成宗) · 중종(中宗)때의 문신(文臣)으로 『성종실록(成宗實錄)』과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의 묘소는 신곡동 산 33번지에 있으며, 묘소 입구에 위치한 신도비는 명종(明宗) 6년(1551)에 건립된 것으로 현재는 전면 각자(刻字)의 비문이 세월의 풍화로 마멸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렵다. 신도비는 의정부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다.

24. 윗골

윗골은 비석거리 위 윤은보의 묘 너머 골짜기로 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5. 개다리골

개다리골은 사람들이 나무를 해 오다가 지게를 받쳐 놓고 쉬던 곳이라고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26. 옻물샘

옻물샘은 물을 마시면 옻 오른 것이 고쳐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7. 앉은뱅이봉

앉은뱅이봉은 오산릉 골짜기 아래에 있는 등성이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28. 공고개마을

공고개마을은 막은데미라고도 불렸으며, 1913년부터 1927년까지 의정부에서 퇴계원으로 가는 길을 닦으면서 생긴 마을로 그 앞의 없어진 고개인 공고개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29. 오무작골

오무작골은 공고개마을 뒤쪽 골짜기로 움푹 파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너머 왼쪽골짜기를 벼락골이라고 하는데 그 곳에 있던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30. 신곡교(新谷橋)

신곡교는 1942년에 신설된 다리로, 6.25사변 때 폭격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신축되었다. 이 다리 위쪽으로는 두험소가 있었다.

31. 바위백이모퉁이

바위백이모퉁이는 현재는 흔적이 없으나 길바닥에 바위가 박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2. 능골(陵谷)

능골은 세조(世祖) 14년(1468) 9월 세조가 승하하자 능의 자리가 될 만한 명당을 잡기 위하여 지사(地師)가 이곳까지 와서 답사하고 능의 후보자로 내정

하였으나 세조의 능이 지금의 광릉으로 결정되어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일설이 있어왔다.

세조의 능침(陵寢)으로 정해졌다가 이를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지명이 또 있어, 의정부 지역에 세조의 능침 선정과 관련한 사실이 있는가를 실록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세조 14년, 왕의 병세가 위중해 지면서 세조는 왕위를 세자 예종(睿宗)에게 전위하고 피접(避接)하였으나 결국 승하하고 말았다. 왕이 훙서(薨逝)하자 바로 능침 선정에 들어갔는데, 광릉과 함께 능침의 후보지로 간심된 곳은 경기도 광주(廣州)와 양주 풍양(豊壤), 그리고 연희동(衍禧洞), 여흥(驪興), 승산(勝山) 등지였다. 이 과정에서 양주 송산(松山)은 능침으로 결정되기는커녕 논의조차 된바 없었다. 인용이 조금 길어지겠으나 문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록의 관계기사를 여기에 게재해 후일의 고증에 대비하려 한다.

○ 예종 즉위년 9월 18일 (갑술)

처음에 여러 종친과 재추가 광주(廣州) 이지직(李之直)의 분영(墳塋)이 능침에 적당하다고 아뢰었는데, 임금이 장차 친히 거둥하여 보려고 하자 밀성군 이침(李琛) · 영순군 이부(李溥) · 영의정 이준(李浚)등이 풍양(豊壤)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정흠지(鄭欽之)의 분영이 산 모양이 기이하고 빼어나서 능침에 매우 합당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고령군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상지관(相地官)을 데리고 다시 살펴보고 아뢰게 하고, 광주의 거둥을 정지하였다.

○ 예종 즉위년 9월 17일 (계유)

화공(畵工) 한귀(韓貴)가 죽산(竹山) · 양지(陽智) 두 고을 주산(主山)의 형세(形勢)를 그려서 올리며 말하기를,

"만약 능침(陵寢)을 이 땅에 모시면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이 그림을 보니 산과 물이 나뉘고 등져서 능을 모시기에 마땅하지 못한데 한귀(韓貴)가 와서 망령되게 고하니, 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투어 본받을 것이다.

그를 추핵(推劾)하여 계달하라."

○ 예종 즉위년 9월 19일 (을해)

고령운 신숙주(申叔舟)등이 풍양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상지관(相地官)이 모두 말하기를, '정흠지(鄭欽之)의 분영(墳塋)이 매우 좋아서 이지직(李之直)의 분영보다 낫다.' 고 하는데, 단지 한사람만이 말하기를 오른쪽 팔뚝이 좁고 주혈(主穴)이 기울어져서 흠이라고 합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경기(京畿)안에 혹시 이보다 나은 곳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상지관(相地官)을 나누어 보내어 열흘을 기한으로 와 모여서 각각 본 땅을 아뢰게 한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예종 즉위년 9월 28일 (갑신)

여러 종친과 재추가 연희궁(衍禧宮) 뒷산을 보고 와서 아뢰기를,

"쓸 만하나 다만 조금 이로울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쓸 만한 여러 산을 의논하여 한 곳을 정하라."

하였다. 상지관(相地官) 등은 모두 여흥(驪興) 권총(權聰) 부모의 묘 자리와 승산(勝山)이 상(上)이고, 가까운 곳을 구한다면 연희궁 뒷 산만한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서거정(徐居正) 등이 말하기를,

"연희궁 뒷산이 과연 좋으나,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을 모두 조금 이로운 곳에 쓰지는 아니하였으니, 정흠지(鄭欽之)와 박은(朴隱)의 묘자리를 골라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이 아뢰기를,

"정흠지의 무덤은 나무를 제어서 소통(疏通)하게 하여 다시 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무를 벤 뒤에 정승들이 상지관(相地官)을 모두 데리고 다시 살펴 보라."

하고, 곧 안효례(安孝禮)와 경기 도사(京畿都事) 박숭질(朴崇質)을 보내어 나무를 베도록 하였다.

○예종 즉위년 9월 30일 (병술)

종친과 재추에게 명하여 정흠지(鄭欽之)의 묘자리를 가서 살피게 하였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정흠지의 무덤 밑에 유견(兪堅)의 무덤이 있는데, 그 혈(穴)이 매우 좋아서, 신의 소견으로는 이 산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명하여 고령군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치서(馳書)하여 아울러 살펴보게 하였다. 밀성군 이침(李琛) · 영순군 이부(李溥)와 신숙주 등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유견의 무덤을 보니 쓸 수가 없고 정흠비의 무덤은 능침으로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주혈(主穴)이 단정치 못한 것이 흠이 될 만하나 상지관(相地官)들이 보토(補土)하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오직 최호원(崔灝元) · 전찬(全贊)만은 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마땅히 2품 이상의 종친과 재추를 불러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예종 즉위년 10월 2일 (무자)

임금이 풍양(豊壤)에 거둥하였다. 백관이 모두 최복(최服) · 백립(白笠) 차림으로, 위사(衛士)는 백의(白衣) · 백립 차림으로 호종(扈從)하였다. 풍양의 궁 앞에 이르러 행장(行帳)을 설치하고 연(輦)을 멈추었다.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소연(小輦)을 타고 지름길[徑路]을 경유하여 안산(案山)의 내맥(來脈)을 살피소서. 길이 좁으니, 청컨대 대가(大駕)앞의 위사(衛士)를 줄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가가 정흠지(鄭欽之)의 분영(墳塋)에 이르러 여러 종친과 재추를 불러 산세(산세)의 길흉을 의논하니,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은 말하기를,

"산세는 매우 좋으나 다만 명당(明堂)이 비뚤어진 것이 한스럽습니다."

하고, 보덕(輔德) 최사로(崔士老)는 말하기를,

"이산은 명당이 없고 또 청룡(靑龍)이 배주(背走)하여 수구(水口)를 향해 갔으니, 능침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예빈시 정(禮賓寺 正) 최호원(崔灝元)은 최사로의 말과 같고 전일에 아뢴 것과

다르므로 임금이 반복하여 따져 물으니, 최호원이 억지로 변명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최사로와 서거정(徐居正) · 임원준(任元濬)등으로 하여금 다시 길흉(吉凶)과 절을 지을 터를 살피게 하고, 조금 후에 대가가 주산(主山)에 올라 산세의 내맥을 보고 청룡산 등을 타고 내려와서 환궁(還宮)하였다. 드디어 최호원을 의금부에 내렸다.

○ 예종 즉위년 10월 3일 (기축)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번에 상지관(相地官) 등을 불러 모아서 정흠지(鄭欽之)의 분영(墳塋)의 길흉을 물으니, 최호원(崔灝元)이 다만 명당(明堂)이 비뚤어져서 보토(補土)하여야만 쓸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어제 친히 거둥하여 다시 물으니 최사로(崔士老)와 부동하여 말하기를 명당이 좁아서 쓸수 없다고 하면서 억지로 변명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니, 반드시 남의 촉탁을 들은 것이다. 추국(推鞫)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위의 기사에 나타난 것처럼 광릉과 함께 끝까지 선왕 세조의 능침 자리로 논의된 곳은 풍양에 있던 정흠지의 무덤 자리였다. 이 풍양의 능침 후보지에는 국왕 예종이 직접 거둥하여 그 묘 자리를 살펴 볼 정도로 한때 유력한 곳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내 능침은 현재의 광릉으로 정해졌고, 풍양을 포함한 여타 후보지들은 논의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신곡동 능골이나 송산동, 민락동 등지에 나타나는 능계통의 지명은 세조의 능침 간택과는 관계가 없는 지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명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능계통의 지명은 그 유래가 무엇인가? 실제 지명에 나타나는 능은 능(陵)과는 관계가 없다. 이 능은 제법 커다란 능선을 갖춘 언덕에 붙여지는 지명이다. 따라서 능안은 능성을 갖춘 언덕의 안쪽, 또는 구릉의 안쪽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본 동의 능골 역시 구릉 안쪽의 골짜기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시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 능관련 지명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을 문헌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33. 시루봉

시루봉은 능골 위의 봉우리로 능골의 입구는 좁고 안쪽은 넓어서 시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그 곳에 있는 봉우리에 붙인 이름이다.

34. 마외들

마외들은 능골 앞에 있는 넓은 벌판으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곳에는 사기를 구웠다는 사기둥지라는 곳이 있는데 살구나무가 많아서 살구둥지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현재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35. 찬우물

찬우물은 마외들 뒤에 있으며,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으나 예전에는 이 곳의 물이 상당히 시원하여 유명했다고 한다.

36. 뒷개울

뒷개울은 불당골에서 흘러 나오는 개울로 마을 사람들이 등목을 많이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7. 불당골

불당골은 효자봉 밑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약수터가 있는데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38. 뒷골

뒷골은 신촌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9. 신촌(新村, 새말)

신촌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년경 조선 성종(成宗)의 열번째 아들 경명군(景明君)의 후손들이 이 곳에 와서 마을을 새로 개척해 살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일설에는 선조(宣祖) 25년(1592)경부터 전주이씨 일가가 이 곳에 낙향하여 마을을 새로 개척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

은 바깥새말과 안새말로 나뉘며, 안새말에서 바깥새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새말 고개라고 한다.

40. 등산너머

등산너머는 진등(황등산) 너머에 집이 생기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순천향병원이 들어서 있다.

41. 진등(황등산)

진등은 등산너머의 서쪽에 있는 등성이로 진흙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며, 흙이 황색을 띄어서 황등산이라고도 불린다.

42. 민치골

민치골은 뒷골의 왼쪽골짜기로 민씨네가 모여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3. 송지나무골

송지나무골은 민치골 왼쪽 골짜기로 500년 정도된 큰 소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나무는 현존하지 않는다.

44. 모릉구지

모릉구지는 새말에서 민치골로 가는 독두소 앞에 있는 산모퉁이로 6.25 사변 후 임시로 장이 서던 곳이라고 한다.

45. 앞자리

앞자리는 장마가 질때면 생기는 독두소 앞의 모래밭을 말한다.

46. 독두소(獨逗沼)와 독개울

독두소는 7천여평 정도의 상당히 큰 소(沼)로 현재 자금동사무소 뒤에 위치했으며, 독개울은 부용천(芙蓉川)의 물과 축석고개의 물이 앞자리 근방에서 만나 거북나루까지 흐르던 개울로 그 길이가 약 1㎞에 달했다고 한다.

47. 거북나루

거북나루는 귀내(龜川)라고도 하는데, 이 앞의 등성이가 비가와도 잠기지 않는 부분이 거북이등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변에 거북마을이라는 동네와 거북들이라는 논과 밭이 있다.

48. 두험내다리(楊州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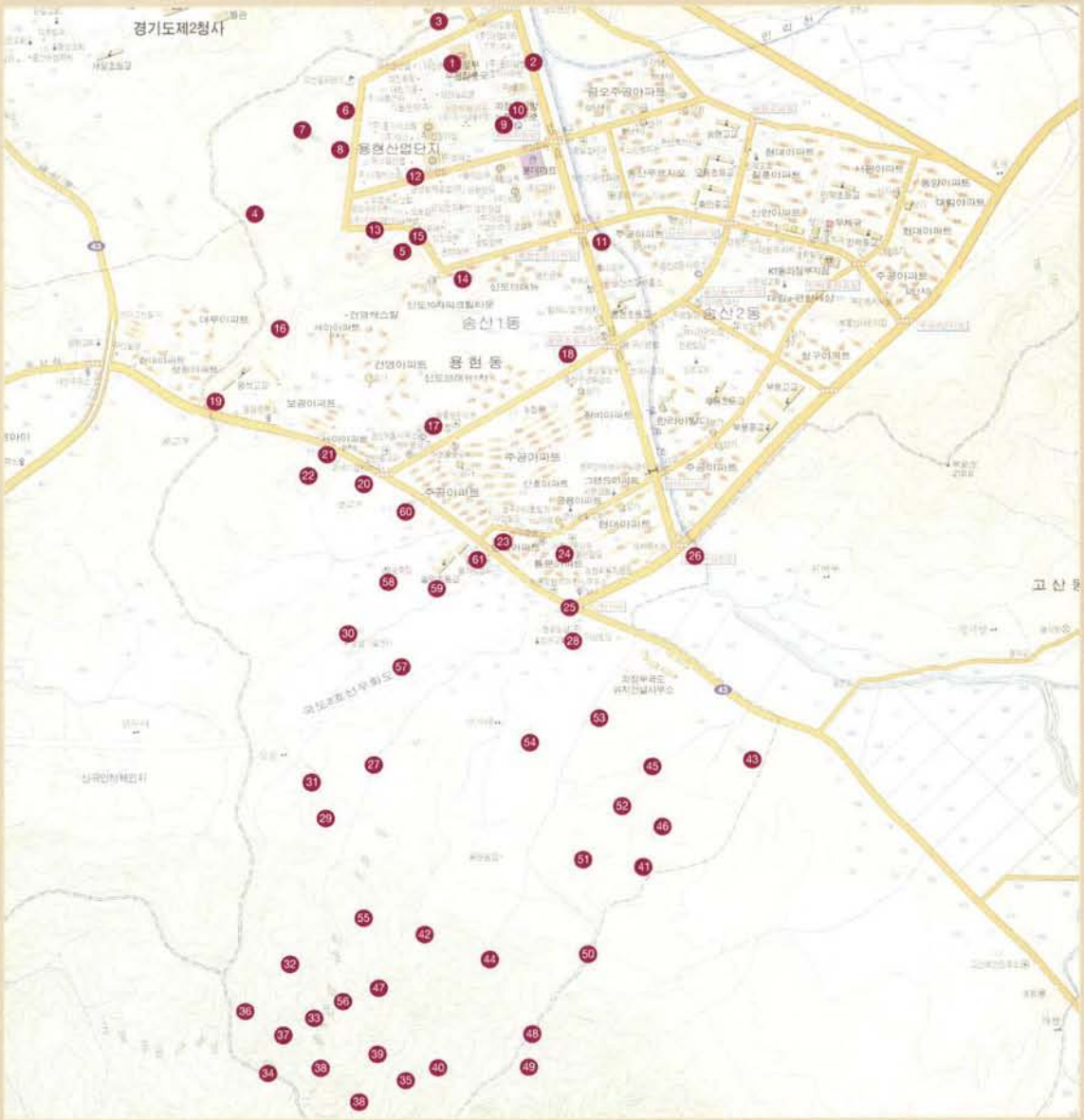
두험내다리는 현재의 양주교(楊州橋)로 두험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23년에 축조되었는데, 당시의 일본인들은 포천교라고 불렀다고 한다.

제5장 송산동

제1절 용현동 | 제2절 고산동 | 제3절 산곡동
제4절 민락동 | 제5절 낙양동

松山洞

용현동(龍峴洞)



1. 어룡굴(魚龍)
2. 덧개울
3. 진등
4. 효자봉(孝子峰)
5. 무자봉(無慈峰)
6. 승지골(承旨谷)
7. 한위골
8. 기단이골
9. 참나무백이
10. 앞고래
11. 돌다리보(洑)
12. 샘막굴
13. 막굴
14. 갓굴
15. 방생이
16. 정렬(貞烈)
17. 길렬
18. 방아다리
19. 대장골
20. 볕고개(陽峴)
21. 고인돌
22. 장골
23. 탑석(塔石)
24. 능너머
25. 송장웅덩이
26. 굴치기들
27. 성골(城谷)
28. 만가대(萬家垈)
29. 여우골
30. 둔야면사무소(屯夜面事務所)터
31. 풀무골
32. 강가마골
33. 절터골
34. 골안
35. 긴골
36. 된내미고개
37. 함박바위
38. 할아버지바위와할미바위
39. 부엉바위
40. 이은골
41. 돼지골
42. 관대박골
43. 재집골
44. 막은골
45. 무내미
46. 떼쟁이골
47. 절터 입구
48. 큰골
49. 작은골
50. 국수당개울
51. 물레방아골
52. 벼락바위
53. 안개울
54. 이스락골
55. 독박골
56. 쇠파리봉
57. 담안밭
58. 옥장터
59. 진사태도랑
60. 멍에밭
61. 수락골고래

제5장 송산동(松山洞)

연 혁

송산동은 용현동(龍峴洞), 민락동(民樂洞), 낙양동(樂陽洞), 고산동(高山洞), 산곡동(山谷洞)등 5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동이다. 송산동이라는 지명은 송산(松山) 조견(趙狷)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하여 새왕조의 부름을 여러번 받았으나 벼슬을 버리고 이 곳에서 한거(閑居)하였다는 일설이 있다. 동(東)과 남(南)으로는 남양주시 별내면(別內面), 북(北)으로는 포천시 소흘면(蘇屹面), 북서(北西)로는 자금동(自金洞), 서로는 장암동(長巖洞), 신곡동(新谷洞)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26.94㎢로 시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제1절 용현동(龍峴洞)

연 혁

용현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때 시북면(柴北面) 어룡리(魚龍里), 탑석리(塔石里), 양현리(陽峴里)와 둔야면(芚夜面) 둔야1리(芚夜1里)를 합하여 시둔면(柴芚面) 용현리(龍峴里)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5월 8일 「의정부시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되면서 용현동이 되었다.

지명유래

1. 어룡굴(魚龍)

어룡굴은 마을 뒤편에 효자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앞에는 부용천(芙蓉川)이 흘러 중랑천(中浪川)에 이르고, 그 산의 모양이 갈용음수형(渴龍飮水形)으로 마치 용이 누워서 부용천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한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부용천의 물고기가 용이 된 후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다가 승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산이 되었다고 한다. 물고기가 용이 되었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룡굴의 어룡이라는 지명을 한역하여 채록하는 과정에서 어룡을 용(龍)으로 착각하여 나타난 오류라고 본다. 어룡은 전국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흔한 지명으로 일례로는 가까운 남양주, 포천에도 소재한다. 이 어룡은 우리말 얼에서 온 것으로 "어울린다" 라는 뜻이다. 이 어울계통의 지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지명은 아우라지를 들 수 있다. 두 물이 각각 흘러와 한 물로 합수 되는 양수리 지역에 두물머리라는 지명과 함께 흔히 나타난다. 강원도 평창의 아우라지나, 연천 청산면의 한탄강 아우라지등이 잘 알려진 지명이다. 어우라지, 아우라지와 같은 계통의 어룡 역시 두개로 각각 나뉘어오던 길, 또는 개울, 산줄기 등이 하나로 합쳐 어울러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반증하는 지명으로 의정부 지역에 소재하는 낙양동의 어렁굴 개울을 들 수 있다. 의정부 지명유래에 실린 어렁굴 개울의 지명 유래를 보자

어렁굴 개울

어렁굴 개울은 부용천을 말하며, 수락산에서 나오는 물과 민락동 무지랭이에서 흐르는 물이 합쳐지는 삼각형 모양의 개울이다. 이 개울을 곤제나 공말 사람들은 어렁굴 개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한 곤제 앞 논에 이물을 대서 <곤제보(洑)>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어룡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수락산에서 흐르는

물과 민락동에 흐르는 물이 어울어지는 곳, 함수머리를 어렁이라고 부른다고 정확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가능동 동명이 유래하는 가능동의 어룡골 역시 동일 계통의 지명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 덧개울

덧개울은 낙양동 곤제(昆弟)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고산동 · 산곡동 · 민락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금오동사무소 뒤 축석으로부터 내려오는 물과 합쳐지는 개울로 마을 가장자리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진등

진등은 어룡굴에서 덧개울로 넘어가는 등성이로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4. 효자봉(孝子峰)

효자봉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정문부(鄭文孚)와 관련된 지명이다. 정문부는 부친상을 당하자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또한 형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외읍을 청하여 노모를 봉양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 여러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부친의 묘가 있는 어룡마을에 은거하였다. 이 곳 사람들이 그의 효성을 기려 어룡굴 뒤에 있는 봉우리를 효자봉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의 묘는 효자봉 기슭에 있으며 그 옆에 신도비가 있다.

5. 무자봉(無慈峰)

무자봉은 효자봉(孝子峰) 아래 봉우리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정문부가 무고로 말미암아 이괄의 난과 관련되었다하여 옥사(獄死)하자 이 고장사람들이 너무 애처로워 왕이 자비심이 없다고 하여 무자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6. 승지골(承旨谷)

승지골은 어룡굴에서 효자봉으로 오르는 골짜기로, 승지(承旨)를 지낸 분의 산소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 한위골

한위골은 어룡굴에서 승지골을 오르는 왼쪽 골짜기로 청주 한(韓)씨네가 오래 살아서 한씨가 사는 위쪽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졌다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서쪽을 가르키는 우리말 <하늬>에서 온 지명 일 수도 있다.

8. 기단이골

기단이골은 효자봉 정상까지 기다랗게 뻗는 골짜기로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좁은골이라고도 부른다.

9. 참나무백이

참나무백이는 안산모탱이 또는 참나무모탱이라고도 하는데, 예전부터 참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 앞고래

앞고래는 어룡굴 앞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곳에는 새논, 두목논, 우렁논 등이 있다.

11. 돌다리보(洑)

돌다리보는 현재의 오목리 앞에 돌다리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곳에 있는 논을 돌다리논들, 돌다리계라고 한다.

12. 샘막굴

샘막굴은 참나무백이 오른쪽의 작은 마을로 어룡굴과 막굴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3. 막굴

막굴은 무자봉 밑의 마을로 뒤가 막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14. 갓굴

갓굴은 방아다리 오른쪽의 마을로, 막굴의 가장자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5. 방생이

방생이는 무자봉 아랫쪽에 있는 연못으로 이 곳에다 물고기를 방생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6. 정렬(貞烈)

정렬은 대장골, 장골, 빼벌, 수돌고개, 서라리고개, 외끝이라는 지명과 관련된 곳으로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의병들을 한데 모아 묻은 말무덤이 있다. 이 말무덤은 우관전투 때 죽은 의병들을 묻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관전투는 경상도방어사 이시언(李時言)이 수락산 근방에서 왜적과 싸워 승전한 전투이다.

17. 길렬

길렬은 정렬 아래쪽으로, 원산에서 서울로 드나들던 길이었다. 현재 송산동 사무소가 있는 근방이다.

18. 방아다리

방아다리는 길렬 아래쪽으로,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 대장골

대장골은 현재 영석고등학교 부근 일대로, 대장간이 있었던 사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20. 볕고개(陽峴)

볕고개는 햇볕이 잘 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1. 고인돌

고인돌은 대장골과 장골 사이의 등성이에 있으며, 그 등성이 끝에 큰 나무가 있어서 장목동(長木洞)이라고도 불렸다.

22. 장골

장골은 현재 보충대가 있는 곳으로 정확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인다.

23. 탑석(塔石)

탑석은 어느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알 수 없으나 탑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기 소원을 빌고 가곤 했다고 한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24. 능너머

능너머는 탑석 뒤로 지금은 흔적이 없으나 석물(石物)을 잘 갖춘 옹주의 묘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일단 이 지명은 앞에서 언급한 능 계통의 지명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옹주묘와 관련된 지명 유래는 오류라고 보아야 한다. 이 지명유래가 오류인 것은 우선 옹주의 묘를 능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다는 사실과 함께 옹주의 묘는 출가한 이후에는 시가의 가문에서, 출가하기 전에 조성된 무덤이라면 궁가에서 관리하기 까닭에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며 적어도 어느 옹주의 무덤인지를 분명히 밝힐 석물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옹주가 묻혔었다더라 하는 식의 전승은 전해지지 않는 것이 상례인 때문이다.

능 너머는 릉(陵)과는 관계가 없고, 지명 그대로 구릉의 너머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25. 송장웅덩이

송장웅덩이는 탑석 앞 용두머리에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사람들을 왜병들이 이곳에 버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6. 굴치기들

굴치기들은 탑석의 진등 끝에서 부용천(芙蓉川)까지의 약 만여평의 논으로,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고, 현재는 현대아파트가 있다.

27. 성골(城谷)

성골은 정확한 지명유래는 알 수 없으며, 이 곳 주위는 지금도 땅을 파면 기왓장과 주춧돌이 출토되고 있다.

28. 만가대(萬家垈)

만가대는 집이 많았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집을 더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집이 많이 들어섰다고 하여 만가대(滿家垈)였는데, 지금은 만(滿)자가 바뀌어 만가대(萬家垈)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양주목 호구장 교지(楊州牧 戶口帳 敎旨)」에 의하면 박씨 일가가 누대에 걸쳐 살고 있어 조선시대에는 이 곳이 둔야1리(芚夜1里)였음을 알 수 있다.

양주목 호구장 교지

29. 여우골

여우골은 성골의 오른쪽 골짜기로 바위와 굴이 많다. 그 굴에서 예전에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0. 둔야면사무소(芚夜面事務所) 터

둔야면사무소 터는 현재 용현동 496번지로 군 의무대가 주둔해 있다. 그 앞에 공고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대가 주둔하면서 길을 돌려 당내미고개로 길이 나 있고, 그 왼쪽으로는 시북면 면사무소와 수령이 동일한 느티나무가 있다. 느티나무 아래쪽 모퉁이는 참나무모퉁이라고 한다.

둔야면사무소에 있던 느티나무

31. 풀무골

풀무골은 여우골 너머 골짜기로 예전에 대장간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2. 강가마골

강가마골은 성골 뒤의 제일 큰 골짜기로, 골은 넓으나 너무 길고 가파라서 올라갈 수 없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3. 절터골

절터골은 골안의 왼쪽 아래 절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은 아래절골과 위절골로 나뉜다.

34. 골안

골안은 여우골, 강가마골, 큰골, 작은골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5. 긴골

긴골은 골 안에서 제일 긴 골짜기를 말한다.

36. 된내미고개

된내미고개는 고개가 험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암동에서는 이 고개가 내려다보면 마치 배와 흡사하다고 하여 배내미고개라고 부른다.

37. 함박바위

함박바위는 오리봉 아래쪽에 있는 함지박 모양처럼 생긴 바위를 말한다. 자금동에서는 이 바위를 족두리 바위라고 부르며, 거문돌에서는 할미봉이라고 부른다.

38. 할아버지바위와 할미바위

할아버지바위는 긴골 쪽으로 할미바위는 이은골 쪽으로 마주 바라보면서 정답게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수당할머니바위와 국수당할아버지바위라고도 한다.

39. 부엉바위

부엉바위는 할아버지바위와 할미바위 아래 긴골 능선에 있는 바위로 예전에 이 바위에서 부엉이가 항상 울었다고 하여 부엉이바위라고 불렸다.

40. 이은골

이은골은 긴골과 은선동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 끊어질 듯 이어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1. 돼지골

돼지골은 이은골에서 교도소로 넘어 가는 골짜기로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42. 관대박골

관대박골은 이은골 아래 골짜기로 사모관대를 쓴 것과 같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43. 재집골

재집골은 교도소 앞 논 위의 골짜기로 예전에 집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집을 다시 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앞의 논을 재집골 논들이라고 부르는데 넓이가 6천여평 정도가 된다.

재집골

44. 막은골

막은골은 교도소뒷쪽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로 가파라서 더 이상 올라 갈 수 없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5. 무내미

무내미는 떼쟁이골에서부터 만가대 국수당개울까지 흐르는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옆쪽으로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6. 떼쟁이골

떼쟁이골은 막은골 옆쪽 골짜기로 잔디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47. 절터 입구

절터입구는 윗절터와 아랫절터로 올라가는 골안의 입구를 말한다. 이 곳에도 부엉이가 항상 울었다는 부엉바위가 있다.

48. 큰골

큰골은 만가대 뒤쪽 골짜기로, 큰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9. 작은골

작은골은 만가대와 성골뒤의 골짜기로 작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0. 국수당개울

국수당개울은 긴골에 있는 할머니바위와 할아버지바위(국수당할머니바위와 국수당할아버지바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개울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1. 물레방아골

물레방아골은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물레방아골을 조금 지나 개울 오른쪽에 마을 사람들이 산 치성을 드리던 노구메터가 있다. 지금도 이 곳에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52. 벼락바위

벼락바위는 만가대 뒤 군부대 안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은 바위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3. 안개울

안개울은 국수당개울 아래쪽에 있으며, 이 안개울과 국수당개울 사이에 만가대가 형성되어 있다.

54. 이스락골

이스락골은 만가대에서 작은골과 큰골을 가는 길에 있는 논과 밭으로 곡식이 잘 익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독박골

55. 독박골

독박골은 큰골과 작은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곳에는 말박골 · 좁은골 · 벽장골 · 굳대바지골 등이 있다. 굳대바지골은 무당들이 치성을 드리던 골짜기이며, 벽장골은 옛 가옥의 벽장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좁은골은 골짜기가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말박골은 말 발자국 흔적이 있는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독박골에는 독바위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고 한다.

56. 쇠파리봉

쇠파리봉은 독바위골 위에 있는 봉우리로 쇠파리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을 기점으로 강가마을 · 큰골 · 작은골과 굳대바지골 · 좁은골 · 벽장골 · 독박골 · 말박골이 형성되어 있다.

57. 담안밭

담안밭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으며, 이 곳과 옥장터 사이의 작은 등성이를 동네너머라고 한다.

58. 옥장터

옥장터는 예전에 죄인을 가두던 옥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9. 진사태도랑

진사태도랑은 강가마골 · 여우골에서 성골을 거쳐 흘러내리는 도랑을 말하는데, 이 옆에 둔야면사무소 터에 있던 느티나무가 지금도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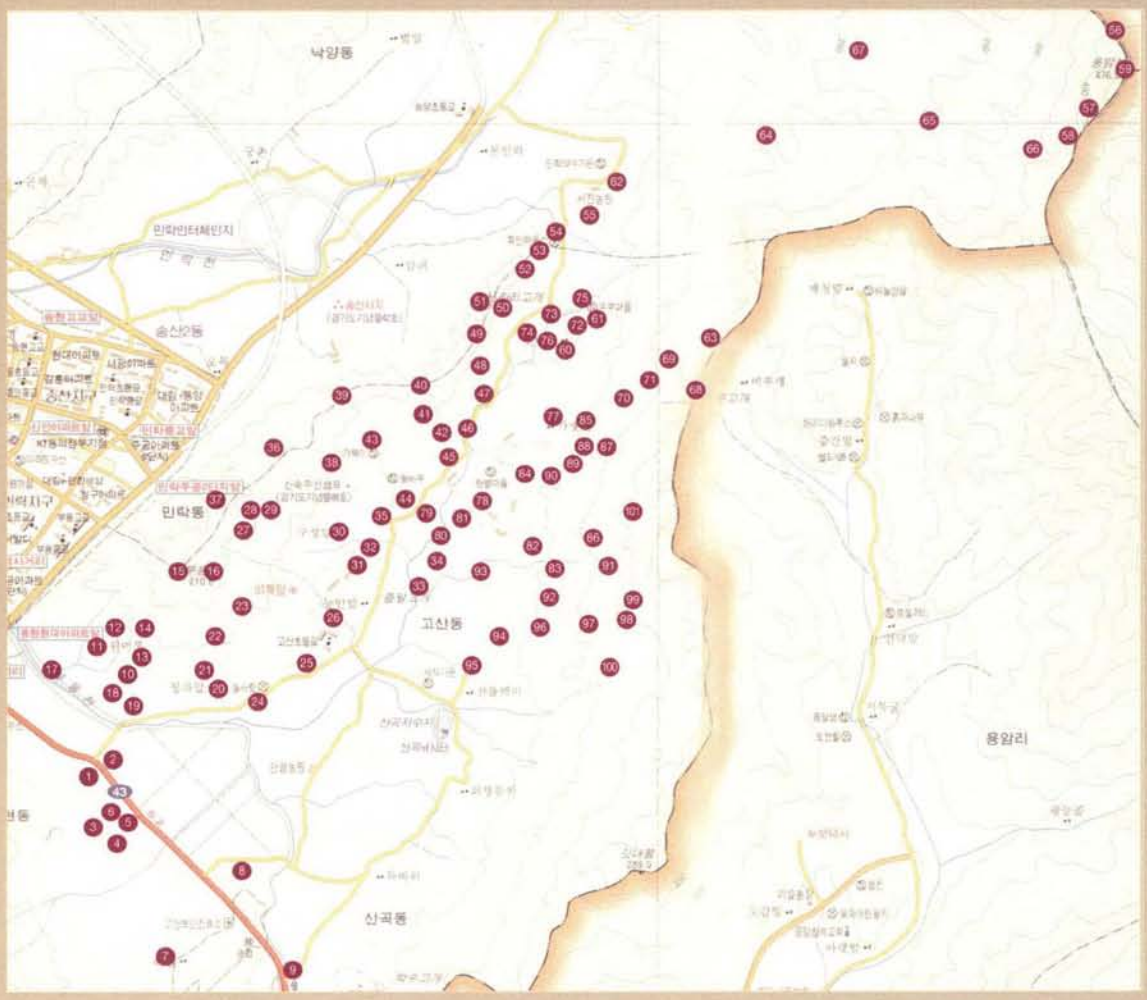
60. 멍에밭

멍에밭은 현재 군 보충대 앞의 밭으로, 멍에를 얹은 소들이 이 곳에서 많이 쉬어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1. 수락골고래

수락골고래는 진사태 도랑 주위와 만가대 앞에 있는 논으로 수락산 골짜기가 있는 논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산동(高山洞)



1. 높은뫼(高山)
2. 장승거리
3. 막은골
4. 양지마을
5. 도림(桃林)뫼
6. 응달마을
7. 빼뱔
8. 말무덤
9. 회유(回流)물 모퉁이
10. 원머루(遠隅)
11. 뱅골모퉁이
12. 양마산소
13. 황새바위
14. 아기동박골
15. 부용봉
16. 빈장(實將)대
17. 맥재보(洑)
18. 광쟁이보(洑)
19. 광쟁이벌
20. 정자마을
21. 복혜(服鞋) 터
22. 윗방굴
23. 샘말
24. 불콩논들
25. 사북밭
26. 능안말
27. 송이봉
28. 안산고개
29. 은행나무고개
30. 아래구석말
31. 월유(月遊)
32. 안산
33. 바대논들
34. 바위백이논들
35. 안고래
36. 여의(如意)고개(여우고개)
37. 기차바위
38. 골안
39. 쇤굴고개
40. 삼귀고개
41. 부정골
42. 딴뚱우리
43. 구석말(舊石峴)(구성말)(九星峴)
44. 안산
45. 옻밭모퉁이
46. 벼락바위
47. 낭위
48. 당그뫼골
49. 임춘굴골
50. 세귀밭
51. 건릉골
52. 서라리고개
53. 느티나무산
54. 담뒤밭
55. 불당골
56. 용암산(龍岩山)
57. 갓바위(笠岩里)
58. 토끼마당
59. 형제바위
60. 갓바위마을
61. 고인돌
62. 진등
63. 도당산(제터골)
64. 호랑이굴
65. 긴등
66. 짧은등
67. 된봉
68. 별윗개(벼루개)
69. 버덩
70. 안산골
71. 감자골
72. 당그뫼고개
73. 능너머
74. 말무덤
75. 앞골(앞고래)
76. 개강주고래
77. 상장논들
78. 가좌말(嘉座洞,可座洞)
79. 홈다리
80. 쌀광
81. 위마전(衛馬田)
82. 활터
83. 좁은골
84. 진등
85. 쉼터
86. 갈무봉(竭武峰)
87. 두루봉(周峰)
88. 고래당
89. 옻물악수터
90. 승지골
91. 된매기
92. 배양현(培養峴)
93. 뱀굴모퉁이
94. 장수우물
95. 중말고개
96. 마당바위
97. 고라댕이골
98. 굴바위
99. 불개미등
100. 동무봉(東武峰)
101. 왕재

제2절 고산동(高山洞)

연 혁

고산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내동면(內洞面) 고산리(高山里) · 입암리(笠岩里)를 합하여 별내면(別內面) 고산리(高山里)로 개칭하였다가 1980년 4월 1일 의정부시(議政府市)로 편입되면서 고산동이 되었다. 고산동이라는 지명은 이 마을 부근에 있는 야산이 높아서 이 곳을 높은 뫼라고 칭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지명유래

1. 높은뫼(高山)

높은뫼는 수락산에서 길게 내려오는 등성이로 위쪽으로 오리가 많이 날아 왔다는 오리둑이 있었다고 한다.

2. 장승거리

장승거리는 1913년부터 1927년까지 의정부에서 퇴계원으로 가능 길을 신설하면서 생긴 거리로, 이 근방 사람들이 장승을 세워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장승은 남아 있지 않다.

3. 막은골

막은골은 높은 뫼 왼쪽의 골짜기로 가파라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 양지마을

양지마을은 높은 뫼 양지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앞의 논을 양

지말고래라고 불렀으며, 지금은 교도소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이전하였다.

5. 도림(桃林)뫼

도림뫼는 양지말에서 거문돌로 가는 산등성이로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있는 마을을 도림동(桃林洞)이라고 하였다.

6. 응달마을

응달마을은 도림뫼의 음지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7. 빼뻘

빼뻘은 배나무가 너무 많아서 붙여진 이름(梨坪)이기도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이시언(李時言)이 이끈 우관전투 때 백병전을 하던 곳으로 변음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말무덤 터

8. 말무덤

말무덤은 빼뻘에서 동쪽으로 500m 정도의 거리에 있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왜병과 싸우다 전사한 의병들을 한 곳에 묻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말무덤이 의정부시에 4군데 정도 있다.

9. 회유(回流)물 모퉁이

회유물모퉁이는 빼뻘에서 거문돌로 가는 모퉁이로 고산동과 산곡동의 경계를 이룬다. 장마에 산등성이가 갈라져서 물이 거문돌로 흐르게 되면서 돌아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0. 원머루(遠隅)

원머루는 예전에 서울에서 수락산 고개를 거쳐 포천을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될 만큼 먼 모퉁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 곳 지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원우(遠隅)라고 쓰게 되었다. 또한 일설에는 이 모퉁이를 지나야 원님의 산소와 양마산소로 갈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곳에는 6.25사변이

후 군부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11. 뱅골모탱이

뱅골모탱이는 원머루에서 오목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현재 도로가 있다.

12. 양마산소

양마산소는 양모양의 망부석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원님의 산소라고도 한다.

13. 황새바위

황새바위는 1960년대까지 만해도 황새들이 이 바위위에서 서식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그 모양도 황새와 같이 생겼다고 한다.

14. 아기동박골

아기동박골은 황새바위 아래로 아기가 나왔다는 아기동박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5. 부용봉

부용봉은 이 곳에서 부용이라는 기생이 술장사를 했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6. 빈장(賓將)대

빈장대는 부용봉 위쪽의 편평하게 넓은 곳으로 어느 전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장(敵將)이 서로 만난 자리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구전(口傳)으로 봉화대였다고 전해진다.

17. 맥재보(洑)

맥재보는 민락동의 중부들로 흐르던 보(洑)로서 의정부에서 최초로 수리를 이용한 곳이다. 이 지명은 물을 가로질러 막았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18. 광쟁이보(洑)

광쟁이보는 용현동 일대의 물을 대던 보(洑)로, 이 광쟁이보와 맥재보를 한식 전에 농사를 준비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손보던 행사가 매우 컸다고 한다.

19. 광쟁이벌

광쟁이벌은 광장과 같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광쟁이보, 광쟁이 개울, 광쟁이다리가 있다. 광쟁이다리는 그 앞에 장승거리가 있어서 장승거리 다리라고도 한다.

20. 정자마을

정자마을은 예전에 이 마을 어귀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마을사람들이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노는 정자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서 문집에 보면 송정동(松亭洞)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21. 복혜(服鞋) 터

복혜터는 옷과 신발을 빨던 예전의 빨래터를 말한다.

22. 윗방굴

윗방굴은 부용봉 아래의 편평한 곳으로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곳에서 동쪽으로 미륵암이라는 절이 있다.

23. 샘말

샘말(사이말)은 정자마을과 능안마을 사이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샘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한다.

24. 불콩논들

불콩논들은 정자마을 앞의 논들로 이 곳의 주인이 흉년이 나자 물에 불린 콩 세 양재기와 이 논을 바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5. 사북밭

사북밭은 현재 고산초등학교 자리로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26. 능안말

고산초등학교 부근의 마을로 1468년 세조(世祖)가 승하하자 지사(地師)가 능자리를 물색하기 위하여 신곡동의 능골을 거쳐 이 곳까지 와서 명당자리를 찾았다고 한다. 그때 지사가 여기에 능자리를 삼을 것을 마음먹었으나 광릉이 더 좋은 땅이라고 하여 그곳으로 결정하자 이름만 능안말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의정부에 소재하는 여러 개의 세조 능침 간심 계열 지명의 하나이지만 이미 고증한 바와 같이 그 역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지명 유래에는 능에 관한 유래의 설명은 있지만 정작 지명의 근간인 안말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구릉의 안쪽 마을로 파악하면 되겠다.

27. 송이봉

송이봉은 능안말 뒤의 산봉우리로 송이버섯이 많이 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봉우리 모양도 송이버섯과 같이 생겼다.

28. 안산고개

안산고개는 송이봉의 아래쪽 고개로 산이 조그맣고 둥글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29. 은행나무고개

은행나무고개는 능안말에서 여의고개로 넘어가는 고개로,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0. 아래구석말

아래구석말은 신숙주(申叔舟)묘 뒤쪽에 있는 마을로 신숙주의 후손들의 묘가 많이 있다. 그 후손 중의 하나로 양주목사를 지낸 신경락(申景洛)묘가 있다.

31. 월유(月遊)

월유동산은 월배원(月排園)이라고도 하며, 달맞이를 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2. 안산

안산은 아래구석말 앞의 둥글고 조그마한 산으로 마을의 재앙을 막아 주고 편하게 해준다 한다.

33. 바대논들

바대논들은 월유동산 앞의 논들로 바다 같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논들은 노구논, 길섶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길따배기논, 기다랗게 생겨서 붙여진 시렁떼배미논 등이 있다.

34. 바위백이논들

바위백이논들은 논 안에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5. 안고래

안고래는 구석마을 안에 있는 논으로 마을 안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6. 여의(如意) 고개(여우고개)

여의고개는 이 고개를 넘으면 마음먹은 대로 뜻이 잘 풀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있으나 이는 여우가 나오는 고개, 즉 여우고개를 음차하여 변이 된 듯하다.

37. 기차바위

기차바위는 멀리서 보면 기차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는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 구멍으로 궁말이 보이는데 그 구멍을 막아 놓지 않으면 궁말의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하늘바위라고도 한다.

38. 골안

골안은 신숙주묘 너머 왼쪽 골짜기로 골짜기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39. 쇤굴고개

쇤굴고개는 윗구석말에서 쇤굴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곳에는 병풍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울린다고 하여 메아리방천고개라고도 한다.

40. 삼귀고개

삼귀고개는 윗구석말에서 민락동의 삼귀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귀마을에서는 수리고개라고 부른다. 삼귀는 삼거리라는 뜻이다.

41. 부정골

부정골은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으며, 이 옆에 이서(李曙)의 묘가 있다. 이서는 인조반정에 참여한 정사공신으로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전사하였다.

42. 딴뚱우리

딴뚱우리는 부정골 옆에 있는 조그마한 분지를 말한다.

43. 구석말(構石洞) (구성말(九星洞))

구석말은 세종(世宗)의 막내아들인 운림도정(雲林都正)의 후손들이 와서 살면서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입구에 있는 구석(構石, 푯돌백이)이라는 돌을 딛고 말을 타거나 내려서 걸어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구석말이 변음되어 구성말(九星洞)이라고도 한다. 또한 600년 정도 된 은행나무에 황새가 많이 날아와서 황새마을이라고도 불렀다는 일설이 있다. 이 마을에는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의묘와 완풍부원군(完豊府院君) 이서(李曙)의 묘, 완성군(完城君) 이기축(李起築)의 묘 등 당대에 명성을 날렸던 명인들의 묘가 있다. 그러나 이 지명 유래는 그 내용 자체의 파악이 쉽지 않다. 효성이 지극한 것과 마을 입구에서 푯돌을 딛고 말을 타고 내린 것이 무슨 상

관관계를 가지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명 유래의 내용자체가 혹시 하마비(下馬碑)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마을 안으로는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지가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구석말>은 우리말 지명 그대로 <구석에 있는 마을>이다. <안말>과 같은 계통의 지명으로 쉽게 이해되는 지명인데, 이를 굳이 <구석(構石)>에 연관시킨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하겠다.

44. 안산

구석마을에는 두 개의 안산이 있는데 신숙주의 묘를 기준으로 왼쪽은 윗말안산이고, 오른쪽은 아랫말안산이다. 신숙주의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신숙주는 6대왕을 보좌하면서 사국(史局)을 맡아 『세조실록(世祖實錄)』『예종실록(睿宗實錄)』등을 편찬하였고『동국통감(東國通鑑)』의 편찬 총재관을 맡았다. 세종(世宗)때는 집현전 학사로 임금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소장학자로서 촉망이 높았으며,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가담하여 후세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성종(成宗)의 묘정에 배향되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45. 옻밭모퉁이

옻밭모퉁이는 윗구석말에서 가잿말로 가는 산모퉁이로, 옻모퉁이로, 옻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46. 벼락바위

벼락바위는 가잿말 입구 왼쪽 능선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7. 낭위

낭위는 가잿말에서 갓바위로 가는 길에 500m 정도의 낭떠러지가 둘러 있는데 그 위를 낭위라고 하며, 그 아래를 낭아래라고 한다.

48. 당그뫼골

당그뫼골은 낭위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치성을 드리던 당이 있었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다.

49. 임춘굴골

임춘굴골은 나주 임씨 선조의 묘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0. 세귀밭

세귀밭은 갓바위에서 민락동의 삼귀마을로 가는 길에 있는 삼각형의 밭을 말한다.

51. 건릉골

건릉골은 임춘굴의 왼쪽 골짜기로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52. 서라리고개

서라리고개는 임진왜란 당시 이 고개에서 조총을 가진 왜병과 돌팔매로 맞선 의병이 왜병을 이길 수 없자 서럽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서라리고개

53. 느티나무산

느티나무산은 서라리고개 오른쪽으로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54. 담뒤밭

담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土城)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55. 불당골

불당골은 갓바위 뒤의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약수터가 있는데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용암산

56. 용암산(龍岩山)

용암산은 본래는 용암산(鎔岩山)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57. 갓바위(笠岩里)

갓바위는 남양주시 용암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용암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바위가 갓모양으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갓바위

58. 토끼마당

토끼마당은 용암산에서 광릉으로 가능 세 갈래 길가에 있는 분지로 토끼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9. 형제바위

형제바위는 바위두개가 절을 하듯이 사이좋게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60. 갓바위마을

갓바위는 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모양이 갓과 같이 생겼다하여 갓바위, 입암(笠岩)이라 불린다.

61. 고인돌

고인돌은 윗갓바위마을과 아랫갓바위마을 사이의 길가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62. 진등

진등은 불당골에서 서라리고개까지의 등성이로 바닥이 진흙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63. 도당산(제터골)

도당산은 마을사람들이 산 치성을 드리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제터골이라고도 한다.

64. 호랑이굴

호랑이굴은 긴등 왼쪽골짜기에 있으며, 호랑이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5. 긴등

긴등은 용암산 상봉에 있는 등성이로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그 골짜기를 긴등골짜기라고 한다.

66. 짧은등

짧은등은 긴등의 오른쪽 등성이로 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아랫쪽에 나무를 하러 온 사람들이 쉬어 가던 이터개라는 곳이 있다.

67. 된봉

된봉은 긴등의 왼쪽 등성이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68. 별윗개(벼루개)

별윗개는 별 위처럼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9. 버덩

버덩은 윗갓바위마을에서 용암리로 가는 길에 넓은 분지로 한문표기로는 번등(樊登) 또는 번평(樊坪)이다. 이 곳에 검은바위가 있다.

70. 안산골

안산골은 조그맣고 얕은 산인 안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71. 감자골

감자골은 골짜기의 생김새가 감자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72. 당그뫼고개

당그뫼고개는 윗갓바위마을에서 아랫갓바위마을 사이의 조그만 고개로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73. 능너머

능너머는 윗갓바위와 아랫갓바위 앞에 있는 자그마한 산으로,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74. 말무덤

말무덤은 임진왜란 당시 서라리고개에서 전사한 의병들을 한꺼번에 묻은 무덤이라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말무덤 역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명인데 평지에 커다란 무덤의 형태로 돌출한 봉분 상의 특정 지형을 의미한다. 말무덤의 말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따라서 단어의 의미는 대개 커다란 무덤이 된다. 고고학적으로는 각지의 말무덤이 대개 고대의 고분으로 밝혀지는 예가 많고 말무덤이라는 지명 또한 삼국 이전의 고분에 주로 붙여진다. 조사자는 고산동의 말무덤을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집단 무덤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임란 당시 의정부 지방에서 벌어진 전투는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현재까지는 의정부 지방의 임란 의병활동 사례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경기감사 고언백의 군사 활동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임란 의병의 집단 매장지로 보는 데에는 보다 정확한 문헌적 사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75. 앞골(앞고래)

앞골(앞고래)은 윗갓바위 앞의 논으로 마을앞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76. 개강주고래

개강주고래는 담뒤밭 앞의 논으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77. 상장논들

상장논들은 아랫갓바위 아래의 논들로, 토질이 좋아서 쌀이 잘 여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8. 가잿말(嘉座洞, 可座洞)

가잿말은 효령대군의 후손인 의원군(義源君) 락(櫟)이 제주도로 유배갔다가 인조반정(1623)으로 방면되어 안식처로 삼은 곳으로, 살기가 좋고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가잿말에 대하여는 이미 고증한 바가 있다. 가장자리 마을, 끝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의정부 지역의 가재울, 갓굴, 개쟁이 개울, 가좌동 등과 같은 계통의 지명이다. 참고로 본문에 나오는 인명(人名)에서 의원군의 이름, 락(櫟)은 상수리나무라는 뜻으로 그 음은 락이 아닌 력이라야 맞는다.

79. 홈다리

홈다리는 가잿말 입구에 있던 나무다리로 큰 나무를 소여물통처럼 홈을 파서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0. 쌀광

쌀광은 홈다리에서 300m정도 아래에 있는 샘으로 쌀알만한 크기의 모래가 솟아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1. 위마전(衛馬田)

위마전은 가잿말과 골말 입구에 있는 밭으로 활터에서 훈련을 하는 병사들이 말을 매어 놓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82. 활터

활터는 위마전 윗쪽 등성이 너머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곳에 활을 쏘던 대석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83. 좁은골

좁은골은 골말 바로 너머로 골짜기가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치갈이밭과 돌밭이 있는데, 치갈이밭은 좁고 길어서 한 방향으로만 밭갈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4. 진등

진등은 골말고개에서 활터 · 위마전으로 이어지는 긴 등성이로, 바닥이 찰진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85. 쉼터

쉼터는 진등 북쪽 등성이에 있으며, 나무꾼들이 나무를 해오다가 쉬어 가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86. 갈무봉(竭武峰)

갈무봉은 군사들이 훈련을 하던 곳으라고 전해지며, 이 봉우리 밑에 과녁을 두고 활터에서 활을 쏘았다고 한다.

87. 두루봉(周峰)

두루봉은 갈무봉의 동북쪽 봉우리로 산봉우리의 모양이 둥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생김새가 갈무봉과 매우 흡사하다.

88. 고래당

고래당은 두루봉 아래에 있는 논으로 가음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9. 옻물약수터

옻물약수터는 승지골 아래에 있는 약수터로 옻이 오른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도 이 앞에 절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90. 승지골

승지골은 어룡골에서 효자봉으로 오르는 골짜기로, 승지(承旨)를 지낸 분의 산소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1. 된매기

된매기는 갈무봉의 왼쪽 모퉁이로 오르기 힘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92. 배양현(培養峴)

배양현은 왕재 아래 쪽에 있으며, 군사훈련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배양현이 변음되어 뱀굴이라고도 한다.

93. 뱀굴모퉁이

뱀굴모퉁이는 뱀굴(배양현)로 들어가는 모퉁이를 말한다.

94. 장수우물

장수우물은 배양현의 오른쪽 계곡에 있으며, 우물위에 있는 구기자나무의 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어 이 물을 마시면 장수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5. 중말고개

중말고개는 산곡동과 고산동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마을과 마을의 중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6. 마당바위

마당바위는 장수우물에서 500m정도 위쪽에 있는데 바위의 모양이 넓다란 마당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97. 고라댕이골

고라댕이골은 마당바위 앞 골짜기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98. 굴바위

굴바위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주민들이 은신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울자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그 아이와 어머니를 내쫓았으나 결국은 모두 발각되어 왜병에게 몰살한 곳이라고 전해진다.

99. 불개미등

불개미등은 왕재에서 동무봉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등성이로, 불개미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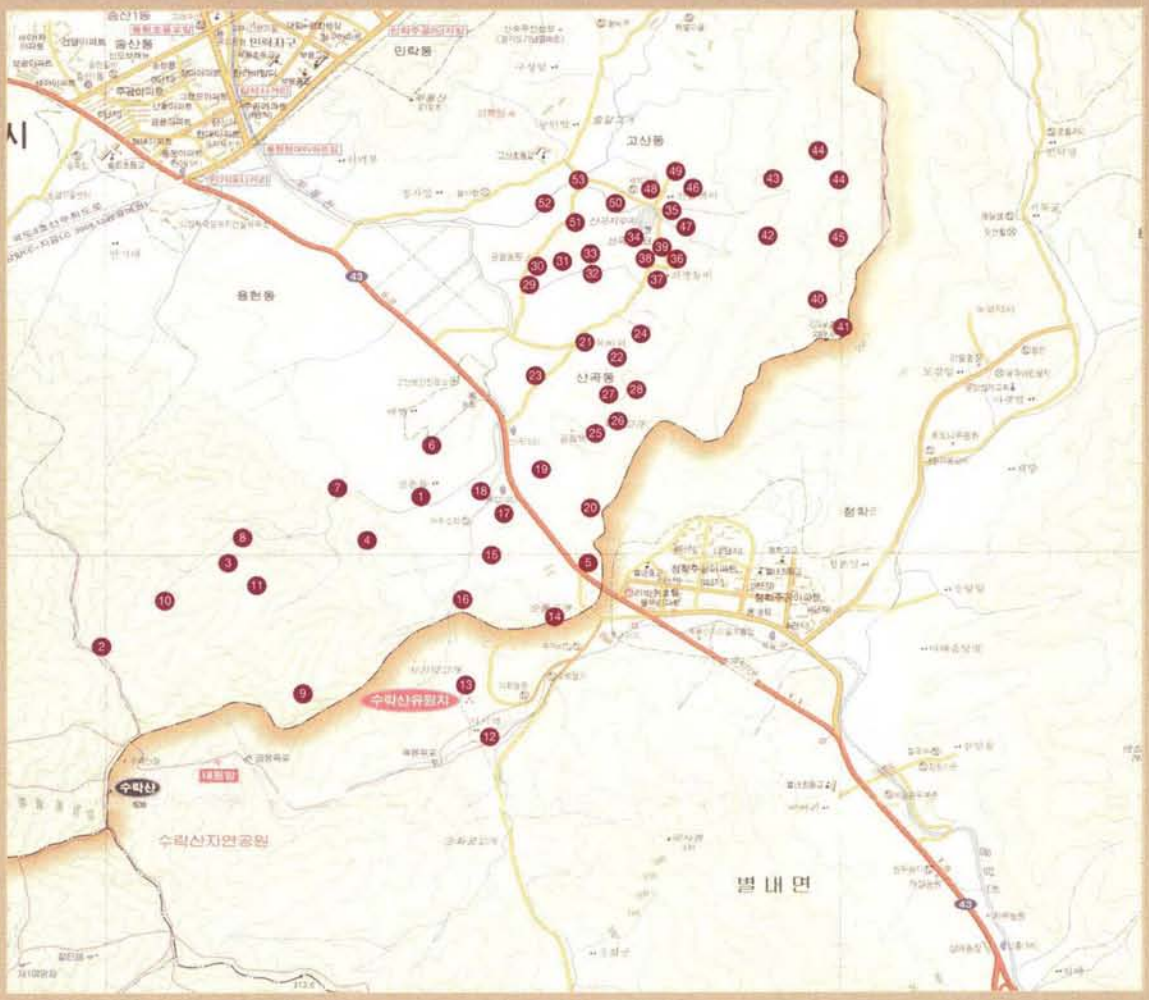
100. 동무봉(東武峰)

동무봉은 갈무봉이나 활터와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을 하던 곳으로 추정되며, 이 곳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산곡동, 북쪽으로는 고산동이 된다.

101. 왕재

왕재는 굴바위 동쪽 위에 있는 고개로 큰 고개로도 불린다.

산곡동(山谷洞)



1. 거문돌	12. 사기막	23. 앞고래	34. 양가뫼등	45. 연장봉
2. 국수당할미봉	13. 주전(鑄錢) 터	24. 진등	35. 산꽃마을	46. 햇재(햇거리)
3. 가마솥골	14. 數突(수돌) 고개	25. 불당골	36. 샘말	47. 안골(안고래)
4. 퉁두란 묘	15. 안산	26. 할미바위·할아버지바위·메주바위	37. 새말	48. 억간터
5. 올챙이골	16. 덤바위	27. 매봉재	38. 해게논	49. 잔돌백이(細石)
6. 진등	17. 술청계	28. 어두니고개	39. 좀바위	50. 외재
7. 능안	18. 쌍절비	29. 방아다리	40. 성지(城址)우물 터	51. 쇠챙이벌
8. 꽃마루재	19. 온두막골(溫逗幕谷)	30. 살구쟁이벌	41. 남영안(南營內)	52. 물덤바위
9. 뭉어리골	20. 좁은골	31. 송아지뫼	42. 대문바위	53. 외재다리
10. 은선동(隱仙洞)	21. 독바위	32. 우래울고래	43. 동무봉(東武峰)	
11. 치마바위	22. 피나무쟁이	33. 쇠재등	44. 형제봉	

제3절 산곡동(山谷洞)

연 혁

산곡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때 내동면(內洞面) 산곡리(山谷里)와 별비면(別非面) 흑석리(黑石里)를 합하여 별내면(別內面) 산곡리(山谷里)로 개칭하였다가 고산동과 함께 1980년 4월 1일 의정부시(議政府市)에 편입되면서 산곡동이 되었다. 산곡동이라는 산골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일설에는 이 곳에 있는 충신열녀(忠臣烈女)와 관련된 지명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당시 안산김씨(安山金氏)와 평산신씨(平山申氏)가 강원도 금성부 산곡간으로 피난하였는데, 갑자기 왜병을 만나자 김씨는 품고 있던 은장도로, 신씨는 물에 투신하여 각기 자결하였다.

1592년 6월 6일의 일로 이듬해에 두 동서가 함께 정절을 지켰다고 하여 충신열녀라는 정려(旌閭)를 내리고 당시 영의정이던 이호민(李好閔)이 쌍절비문(雙節碑文)을 지어 내렸다. 이후 마을 이름을 그들이 자결한 곳인 산곡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지명유래

1. 거문돌

거문돌은 조선시대에는 東幕(동막)으로 불렸다. 동막은 이 마을 동쪽에 더운 물이 땅에서 솟아올라서 그 곳에 사람들이 막을 세워 놓고 목욕을 하였다는 온두막골(溫逗幕谷)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후 묵현(默峴)이라고도 불렸다. 묵현은 거문돌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흑석동(黑石洞)으로 부르고 있다.

거문돌

2. 국수당할미봉

국수당할미봉은 상봉과 오리봉의 중간에 있는 봉우리로 거문돌에서는 함박바

위봉이라고 부르고, 자금동에서는 쪽두리봉이라고 부른다.

3. 가마솥골

가마솥골은 거문돌에서 꽃마루재를 넘어가기 전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숯가마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 퉁두란 묘

퉁두란 이씨 묘는 능안과 꽃마루재 사이의 능선에 있으며, 퉁두란 이씨는 고려 공민왕때 귀화하여 이(李)씨의 성과 청해(靑海)를 본관으로 하사받아 이두란(李豆蘭) 또는 이지란(李之蘭)이라고도 하며, 조선건국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다.

퉁두란 이씨 묘

5. 올챙이골

올챙이골은 수돌고개와 불통골 사이의 작은 골짜기로, 임진왜란 우관전투 당시 왜병들이 많은 수로 돌격해 오는 것이 마치 개구리와 같고 우리 의병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올챙이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6. 진등

진등은 빼뻘과 거문돌의 경계가 되는 등성이로 능안에서부터 산줄기가 길게 뻗어있다.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7. 능안

능안은 구릉의 안쪽이라는 뜻으로 거문돌에서 은선동 올라가는 길에 있다.

8. 꽃마루재

꽃마루재는 거문돌에서 은선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꽃이 항상 일찍 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 뭉어리골

뭉어리골은 거문돌에서 치마바위로 올라가는 골짜기로, 이 곳에 예전에 뭉어

리라는 고기도 아니고 도마뱀도 아닌 이상한 동물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10. 은선동(隱仙洞)

은선동은 수락산의 기암괴석이 萬壑千峰(만학천봉)을 이루고 起伏轉回(기복전회)하여 이룬 계곡으로 옛 사람들이 신선이 놀다가 자취를 감춘 곳이라고 하여 암벽에다 은선동이라고 음각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있는 폭포를 은선동 폭포라고 한다.

은선동 폭포

11. 치마바위

치마바위는 안산 위쪽에 있는 바위로 주름을 잡은 치마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12. 사기막

사기막은 마당바위로 넘어가는 오른쪽 능선에 있으며, 예전에 이 곳의 백토로 사기를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3. 주전(鑄錢) 터

주전터는 거문돌에서 마당바위를 가다가 사기막을 약 500m 정도 못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곳에서 엽전이 나왔다고 한다. 엽전을 만들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4. 數突(수돌) 고개

수돌고개는 임진왜란 우관전투 당시 빼뻘에서 백병전이 벌어졌을 때, 이 고개로 많은 왜병들이 일시에 몰렸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곳 옆에는 의병들이 분해서 자결하였다는 분통골이 있다.

15. 안산

안산은 거문돌에서 동남쪽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산으로 둥글고 편안하게 생

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16. 덤바위

덤바위라는 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곳에는 말잔등 같이 생긴 말바위와 개구리 모양의 개구리 바위가 있으며, 바위 위로 비석이 하나 서 있다.

쌍절비

17. 술청계

술청계는 거문돌 입구의 길가로, 예전에 주막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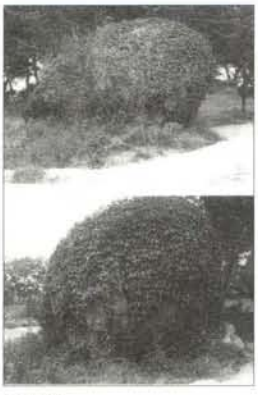
18. 쌍절비

쌍절비는 임진왜란 당시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자결한 안산김씨(安山金氏)와 평산신씨(平山申氏)를 기려 세운 비석으로 두 열녀와 유질(柳秩)을 모시고 있는 정려각(旌閭閣) 안에 서 있다.

온두막골의 샘우물

19. 온두막골(溫逗幕谷)

온두막골은 거문돌 입구 왼쪽의 논에서 더운물이 솟아 올라서 사람들이 막을 세워 놓고 목욕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모두 논으로 개간되어 온두막이 있었던 자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도 수온이 따뜻해서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한다.


독바위

20. 좁은골

좁은골은 오두막골에서 남양주시 청학리로 넘어가는 골짜기로 좁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1. 독바위

독바위는 독바위마을 입구 왼쪽 능선에 있으며, 현재는 마을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던 곳으로 지금도 계단석이 남아 있다

22. 피나무쟁이

피나무쟁이에서 수돌고개로 가는 길가에 피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3. 앞고래

앞고래는 독바위마을 앞에 있는 논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4. 진등

진등은 독바위 뒤의 긴 능선으로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25. 불당골

불당골은 매봉재 옆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약수터가 있는데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26. 할미바위 · 할아버지바위 · 메주바위

할미바위는 불당골 뒤 능선의 동쪽으로 향해 있고, 할아버지바위는 그 너머 골짜기에서 할머니바위를 마주보고 있으며, 메주바위는 메주 모양으로 생긴 바위로 할아버지바위 위쪽에 위치한다.

27. 매봉재

매봉재는 할아버지바위 · 할머니바위 · 메주바위 위쪽의 능선 봉우리로 조선시대에 매를 날리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를 날리던 매바위라는 바위도 있다.

28. 어두니고개

어두니고개는 물도랑같이 양쪽이 상당히 높고 긴 골짜기에 있는 고개로, 나무가 많아서 항상 어둡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지만, 고산초등학교가 생기기전에 고산 · 산곡에서 별내초등학교를 가려면 학생들이 고개를 넘어 다녀야 했다고 한다.

29. 방아다리

방아다리는 우래울고래에서 내려오는 물과 거문돌에서 내려오는 물이 부용천(芙蓉川)과 합쳐 흐르는 곳에서 우래울고래쪽에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0. 살구쟁이벌

살구쟁이벌은 우래울고래 아래 쇠재등 끝에 있는 들로 예전에 살구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흐르는 개울을 살구쟁이개울이라고 한다.

31. 송아지뫼

송아지뫼는 쇠재등으로 넘어가는 길가 오른쪽에 있으며, 소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임진왜란 우관전투 당시 빼뻘에서 사망한 의병중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옮겨다 묻은 무덤이 20여개가 있는데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32. 우래울고래

우래울고래는 쇠재등 바로 앞쪽에 있는 논들로 땅이 기름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논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모를 내지 못한 적이 없으며, 예전에는 의정부의 논 3평을 팔아야 이 곳 논 1평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논 위에는 곡식이 잘 여문다는 상답논이 있으며 상답골(上畓谷)이라고도 한다.

33. 쇠재등

쇠재등은 양가뫼 모퉁이에서부터 송아지뫼까지의 약 1㎞의 진흙등성이다. 아래쪽에는 쇠재고개가 있으며, 맨 끝에는 살구쟁이가 있다. 쇠재등은 정자마을쪽에서 보면 마치 소머리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재등의 평수는 약 3만여평이 된다.

34. 양가뫼등

양가뫼등은 쇠재등 맨 꼭대기의 등성이로 양씨네 묘가 있던 자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있는 잔돌백이에서 산꽃마을로 가는 모퉁이를 양가뫼모퉁이라고 부른다.

35. 산꽃마을

산꽃마을은 양가뫼 너머 안쪽에 있는 마을로 산꽃이 많이 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6. 샘말

샘말은 산꽃마을과 독바위 사이에 있는 마을로 샘이 잘 나오는 우물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7. 새말

새말은 산꽃마을과 독바위 사이에 있는 마을로 6.25사변 이후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8. 해게논

해게논은 새말과 샘말로 가는 길 아랫쪽에 있는 논으로 토질이 나빠서 농사가 잘 안되었으며, 이 논 때문에 재판 사건이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논 주위를 해게논들이라고 부른다.

39. 좀바위

좀바위는 해게논에서 새말로 가는 왼쪽 길 옆에 있으며, 바위가 좀이 먹은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40. 성지(城址)우물 터

성지우물터는 남영안 밑에 있는 우물 터로 그 위에 성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1. 남영안(南營內)

남영안은 예전에 군영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바로 밑에 성지우물터가 있고, 여기서 8번 능선을 타고 동쪽으로 가면 동무봉과 배양현이 나온다. 이 동무봉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 갈무봉이며, 갈무봉 밑에 활터가 있고, 활터 밑에 말을 매었다는 위마전이 있다. 또 뱀골 위에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를 왕재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남영안의 넓이는 약 만오천여평 정도로 산등성은 가파르고 서쪽으로 성지우물 터가 있는 곳으로만 통행로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6.25사변 때도 인민군이 참호를 파놓고 잠복하던 곳이다.

42. 대문바위

대문바위는 동무봉 앞에 있는 대문과 같이 생긴 바위를 말한다. 또한 장롱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농바위라고도 부른다.

43. 동무봉(東武峰)

동무봉은 산곡동과 고산동의 경계를 이루는 봉우리로 남영안에서부터 거리가 약 1㎞정도가 된다.

44. 형제봉

형제봉은 동무봉 윗쪽 능선인 불개미등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좌우로 생김새가 같은 봉우리를 말한다. 생김새가 형제와 같이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5. 연장봉

연장봉은 산곡동 산 1번지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46. 햇재(햇거리)

햇재는 동무봉 남쪽의 양지쪽을 말하며, 햇거리라고도 부른다. 햇빛이 잘 들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햇절이라는 절이 있었다고도 한다.

47. 안골(안고래)

안골(안고래)는 잔돌백이마을 안에 있는 논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48. 억간터

억간터는 안골에서 산꽃마을로 가는 길의 조그만 산등성이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49. 잔돌백이(細石)

잔돌백이는 독바위 마을 입구에서 우측으로 자리 잡은 동네를 말한다. 잔돌백이는 땅을 파면 논, 밭 어느 곳에서나 잔돌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이 꽤 넓게 형성되어 있다.

50. 외재

외재는 잔돌백이에서 능안말로 가는 작은 고개로, 기와를 굽는 가마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임진왜란 당시 왜병이 주둔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기와를 굽던 곳이었으면 가맛재, 또는 점재로 명명되어야 맞고, 왜재가 변이되었다면 애재로 되어야 음운에 맞는다. 왜가 이보다 더 발음하기 어려운 단모음 외로 변이되었다는 것은 음운 변이를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재는 외미와 같은 계열의 지명으로 이는 외딴 고개의 뜻이다.

51. 쇠쟁이벌

쇠쟁이벌은 쇠쟁이등 너머 저수지 아래의 들로, 이 곳에는 길마배미라는 논이 있다. 길마배미는 논의 모양이 소의 등에 얹는 길마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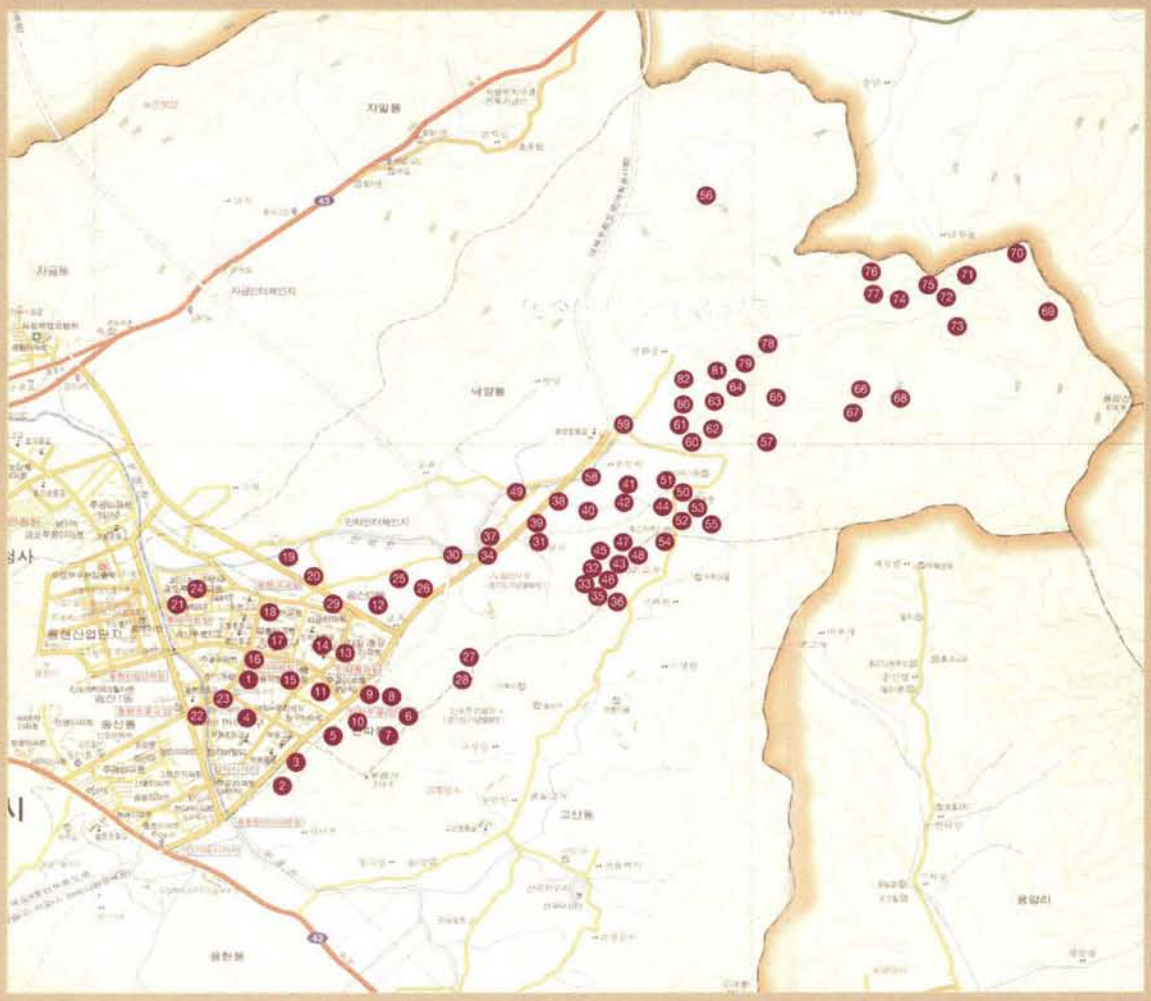
52. 물덤바위

물덤바위는 용암산 갓바위 · 가잿말 · 구석말 · 뱀굴을 거쳐서 흐르는 물이 잔돌백이에서 합쳐져 흐르는 개울 안에 있는 바위로 물이 바위에 부딪혀 ㄱ자의 곡선을 이루면서 아래로 흐르게 된다. 물이 바위에 부딪혀 꺽어져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3. 외재다리

외재다리는 고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다리(현재의 산곡교)로 이 다리가 있는 개울을 외재개울이라고 한다.

민락동(民樂洞)



1. 오목리(梧木里)
2. 뱀굴
3. 건너말
4. 동산부리
5. 제비바위
6. 범바위여우굴
7. 우묵골
8. 빼꾹골
9. 가재골
10. 승지골
11. 독박골
12. 사당고개
13. 점말
14. 뒷골
15. 능안
16. 능모퉁이
17. 진등
18. 석반탱이
19. 동안논
20. 콩죽한방구리논
21. 중부들
22. 다리목계
23. 오목삼거리
24. 망부백이
25. 쇤굴
26. 신후곡
27. 메아리방청고개
28. 미사리봉(美沙里峰)
29. 작은고래
30. 두껍바위
31. 삼귀(三歸)
32. 독수원(獨樹)
33. 골우물
34. 쇠굴고래와 새둥지논
35. 검천이골
36. 수리고개
37. 삼귀삼거리
38. 앞고래
39. 외끝
40. 뵛가라리고래와 아랫가라리고래
41. 동안개울
42. 공사태
43. 능안
44. 새테미
45. 쑥모루
46. 줄밤나무골
47. 명다리고개
48. 패팝골(오리나무골)
49. 사장(射場) 터
50. 너머말
51. 가마둥지
52. 중논
53. 더운우물
54. 서라리 고개
55. 진등과 할매밭
56. 뒷골
57. 원추리골
58. 동산마을
59. 아랫말
60. 섬둥지
61. 독립유공자 이용재李龍載의 집터
62. 병문(竝門) 밤나무골
63. 행상바위
64. 찬우물(冷川)
65. 작은도장굴
66. 큰도장굴
67. 물만등
68. 진도둑골
69. 토끼뫼
70. 무지랭이(無至嶺)
71. 동유골(東幽谷)
72. 동유골삼거리
73. 새능안
74. 최최골(催花谷)
75. 돌고개
76. 유골(幽谷)
77. 꼭두봉(덜봉)
78. 불당골
79. 고촌(古村)
80. 새뫼
81. 덕수봉(德壽峰)
82. 돌고지부리

제4절 민락동(民樂洞)

연 혁

민락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때 시북면(柴北面) 민락리(民樂里) · 오목리(梧木里) · 삼귀리(三歸里)등 3개리를 합하여 시둔면(柴芚面) 민락리(民樂里)로 고쳐 부르다가 1964년 5월 8일『의정부시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민락동이 되었다.

지명유래

1. 오목리(梧木里)

오목리는 예전에 오동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이 이름 역시 우리말 지명을 한역(漢譯)하는 과정에서 본뜻이 변의(變義)된 지명이다.

오목리를 오목리(梧木里)로 채록하면서 편의상 붙인 오동나무(梧)에 구애 받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오목리는 오목한 곳,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목에서 왔다고 본다. 이곳의 현지 지명이 오목리보다는 오목이였다는 점 역시 이를 방증한다. 이 곳 오목이의 부용천에 걸린 다리를 당시에는 오목이 다리라고 불렀다.

2. 뱀굴

뱀굴은 오목리에서 고산리의 원모루로 가는 길로 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3. 건너말

건너말은 오목리와 뱀굴사이 동산부리 너머의 마을로 오목리의 건너편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6.25사변 후부터라고 한다.

4. 동산부리

동산부리는 건너말 아래의 산등성이로 이 앞의 논들을 동산부리들이라고 하며, 이 곳으로 맥재보(洑)가 흘러들어 온다. 동산부리 남쪽 기슭에 고인돌이 있었는데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5. 제비바위

제비바위는 제비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택지개발로 남아 있지 않다.

6. 범바위여우굴

범바위여우굴은 제비바위 동쪽으로 마주 보이는 계곡이 있는 굴로, 예전에 범과 여우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위네 너구리가 많이 살았다는 너구리바위도 있다.

7. 우묵골

우묵골은 범바위 아래 오른쪽으로 삼태기처럼 우묵하게 들어간 골짜기를 말한다.

8. 뻐꾹골

뻐꾹골은 우묵골짜기 아래 등성이 너머로, 항상 뻐꾸기가 울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 가재골

가재골은 여우고개 왼쪽 골짜기로 가재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여러 번 고증한 대로 <가쟁이+골>로 이루어진 지명이다. 가장자리 골짜기라는 의미가 된다.

10. 승지골

승지골은 가재골 아래 오목리와 여우고개 사이의 골짜기로 승지(承旨)를 지낸 사람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1. 독박골

독박골은 오목리와 점말 사이의 얕은 고개로 독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2. 사당고개

사당고개는 오목리에서 삼귀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전주 이씨의 사당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3. 점말

점말은 오목리 앞에 있는 마을로, 독을 굽는 가마터와 독점이 있었다고 한다.

14. 뒷골

뒷골은 점말뒤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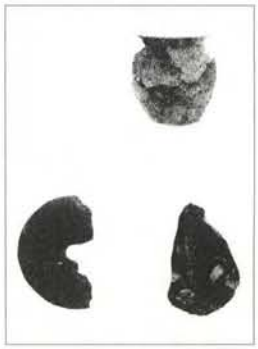
15. 능안

능안은 뒷골 앞의 기다란 진흙 등성이로 세조의 능자리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지명이라는 일설이 있었다. 조사자는 능과 관련된 지명을 장소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세조의 능침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우선 불합리한 일이다.

설사 의정부에 세조의 능침 자리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장소라 있다하여도 이는 한 군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곳 능안 역시 구릉의 안자락이라는 일반 지명의 형태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같은 지역의 능모퉁이 역시 동일한 이해 선상에 있다.

16. 능모퉁이

능모퉁이는 오목리에서 삼귀로 가는 모퉁이로 그 아래 밭을 능아래밭이라고 한다.



출토유물

17. 진등

진등는 개발 이전 주소로 민락동 519번지부터 522번지 일대로, 한국토지공

사에서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선사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의 구석기 유적과 유물은 모두 큰 하천변이나 바닷가등 해성층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곳에서 출토된 유적은 처음으로 내륙지방에서 발견되었으며, 한반도 구석기시대의 유물분포와 구석기인들의 생활범위가 훨씬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은 혈암제, 가로날밀개, 세석인석핵, 흑요석제 등 모두 36점이 발굴되었다.

18. 석받탱이

석받탱이는 진등 아래쪽에 있으며, 물푸레나무가 많았다는 물푸레밭과 그 아래에 참나무백이가 있다. 석받탱이는 돌 투성이라는 뜻이다.

19. 동안논

동안논은 궁말삼거리 아래 중부들에 있는 논으로 그 지명의 유래는 동네안의 논이라는 뜻이다.

20. 콩죽한방구리논

콩죽한방구리논은 궁말삼거리 왼쪽 밑의 논으로 어느해 가뭄에 흉년이 들자 이 논의 주인이 이 논을 콩죽 한방구리와 바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1. 중부들

중부들은 오목리 앞에 있는 넓은 들로 이 곳에 있는 논은 맥재보(洑)의 물로 농사를 짓는데 장마에는 수해가 적고 가뭄에는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22. 다리목계

다리목계는 오목이다리 근방을 말하며, 오목이다리는 용현동과 민락동의 경계를 이루는 다리로 이 곳을 건너면 왼쪽이 중부들이고 오른쪽이 동산부리논들이다.

23. 오목삼거리

오목삼거리는 다리목계에서 오목리로 오는 길로 예전에는 이곳에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24. 망부백이

망부백이는 석받탱이 아래로 망부석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농민들이 논농사를 지으러 다니면서 이곳에서 쉬곤 하였다고 한다.

25. 쇤굴

쇤굴은 사당고개 너머로 이곳을 거쳐 삼귀로 가게 된다.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26. 신후곡

신후곡은 메아리방청고개로 올라가는 골짜기로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27. 메아리방청고개

메아리방청고개는 큰 바위가 있어서 메아리가 울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바위에서 소원을 빌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고산동의 구석말에서는 쇤굴고개라고 한다.

28. 미사리봉(美沙里峰)

미사리봉은 메아리고개 앞의 동그란 산봉우리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29. 작은고래

작은고래는 사당고개 아래 논으로, 중부들의 논에 비해 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햇볕이 잘 들어 이삭이 제일 먼저 핀다는 해창위논이 있으며, 옥씨가 농사를 지었다는 옥가논이 있다.

30. 두껍바위

두껍바위는 사당골 밑 길가에 있는 두꺼비 모양의 바위로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두꺼비의 입이 놓인 방향의 마을은 흉년이 들고 꼬리쪽의 마을은 풍년이 든다고 하여 마을간의 바위를 돌려놓으려는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옮겨져 흙속에 파묻혀 있다.

31. 삼귀(三歸)

삼귀는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조견(趙狷) · 원선(元宣) · 정구(鄭矩) 등 세분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면서 이 곳에서 은거하여, 세 분의 어진이가 이 곳에 함께 돌아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송산사(松山祠)가 있는데 정조22년(1798)에 이들의 절개를 기리기 위하여 유림들이 삼귀서사(三歸書祠)라는 사당을 세워 조견 · 원선의 위패를 모시다가 이후 1804년에 송산사로 개칭하였고, 1865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강제로 철거되었다. 이후 1996년에 발굴 복원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조견과 정구는 고려 절신이 아니라는 반론이 현재 제시 되고 있어 이를 지명유래로 확증하기에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인근 양주 지역과 동두천 지역에 네거리를 뜻하는 <사귀>라는 지명이 있어 삼귀를 세거리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역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2. 독수원(獨樹)

독수원은 삼귀마을 안에 있는 등성이로 이 곳 맨 끝은 축동과 경계를 이루는데 100여년 정도 된 소나무가 있다.

33. 골우물

골우물은 삼귀에서 구성말로 넘어가는 오른쪽 등성이인 검천골에 있으며, 등너머에 우물이 또 하나 있는데 한쪽의 물을 뜨면 다른 쪽 우물의 물이 줄어서 물길이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4. 쇠굴고래와 새둥지논

쇠굴고래는 쇠굴 앞에 있는 논들을 말한다. 이 앞 길가에 새둥지논이 있는데 새둥지 같이 잡초가 너무 많아서 해마다 김을 매게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35. 검천이골

검천이골은 삼귀에서 구성말로 넘어가는 오른쪽 골짜기로 흙이 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6. 수리고개

수리고개는 삼귀에서 구석말로 넘어가는 고개로, 구석말에서는 이 고개를 삼귀고개라고 하고 삼귀에서는 수리고개라고 한다. 예전에 독수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37. 삼귀삼거리

삼귀삼거리는 삼귀와 본민락으로 통하는 길로, 이 옆으로 무탱이논이 있다. 무탱이논은 토질이 너무 좋아서 아무렇게나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잘 자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8. 앞고래

앞고래는 삼귀마을 앞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안에 수렁자리논이 있고 옆으로는 영자자리논과 길둑배미논이 있다.

39. 외끝

외끝은 송산사 왼쪽의 얕은 산등성이의 끝을 말하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이곳까지 쳐들어 왔다가 들어갔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우리말 지명 <외>는 <외따로 떨어진> 이라는 의미로 이 외끝 역시 호원동의 외미와 같은 계통의 지명이다. 외끝은 지명 그대로 외따로 떨어진 맨 끝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론하거니와 음운 변이의 형태상 외는 애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이며, 왜가 외로 변하지는 않는다.

40. 윗가라리고래와 아랫가라리고래

윗가라리고래는 능안 앞들의 논이고, 아랫가라리고래는 송산사(松山祠) 앞의 논을 말한다. 가라리라는 이름은 아래 위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뜻이다.

41. 동안개울

동안개울은 윗가라리고래에서 아랫가라리고래 옆으로 흐르던 개울로, 수해를 입은 적이 없을 정도로 둑이 든든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2. 공사태

공사태는 윗가라리고래 옆의 밭으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43. 능안

능안은 송산사 위쪽으로 능성의 안쪽이라는 뜻이며, 그 앞의 논을 능앞자리논이라고 한다.

44. 새테미

새테미는 능안에서 서라리고개로 가는 모퉁이를 말하며, 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다.

45. 쑥모루

쑥모루는 능안 아래에 있는 모퉁이로 쑥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46. 줄밤나무골

줄밤나무골은 삼귀 뒤의 골짜기로 줄을 맞춘 듯 밤나무가 자라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47. 명다리고개

명다리고개는 삼귀에서 갓바위로 가는 길 분지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무당이 명이 짧은 사람을 이곳에 있는 바위에 치성을 드리게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8. 패팝골(오리나무골)

패팝골은 명다리고개 옆의 골짜기로, 돌배나무인 패팝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문배나무가 없어지고 오리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오리나무골이라고도 한다.

49. 사장(射場) 터

사장 터는 활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의정부농협 창고가

들어서 있다. 이 옆의 개울을 사장터개울이라고 하고, 그 곳의 다리를 사장터 다리라고 한다.

50. 너머말

너머말은 민락골에서 서라리고개로 가는길의 왼쪽에 있는 마을로, 원래는 입암리에 속하다가 민락동으로 편입되었다. 이 곳에 더운우물이 있다.

51. 가마둥지

가마둥지는 너머말 앞 미락골 쪽에 작은 등성이로 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2. 중논

중논은 새테미 모퉁이와 가마둥지 사이에 있는 논으로 축동 앞에 있다고 하여 축논인데 변음이 되어 중논이라고 부른다.

53. 더운우물

더운우물은 너머마을 안에 있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더운물이 나와서 겨울에 빨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54. 서라리 고개

서라리고개는 임진왜란 당시 조총을 가진 왜병과 돌팔매로 맞선 의병이 이길 수 없자 서럽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55. 진등과 할매밭

진등은 바닥이 진흙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며, 그 옆으로 할매밭(老姑田)이 있으며, 이 곳에서 남쪽으로 100m 정도 지점에 고인돌이 있다.

56. 뒷골

뒷골은 너머말에서 용암산에서 올라가는 골짜기로 늑대가 살던 늑대굴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밑으로는 절터 샘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였던 곳

이다. 새마을 뒤쪽에 있던 골짜기로 커다란 바위 사이로 물이 흘러서 마을사람들이 빨래와 등목을 많이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가재가 살았을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다. 현재는 부근에 추동 정보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57. 원추리골

원추리골은 늑대골 맞은 편에 있는 골자기로 원추리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머말에서 용암산을 오르자면 늑대골과 원추리골을 지나서 오르게 된다.

58. 동산마을

동산마을은 동산 위에 집이 몇 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아랫쪽에 삼귀에서 끝과 마주하는 외끝이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이곳까지 왔다가 물러갔다고 한다. 또한 진등도 있다.

59. 아랫말

아랫말은 송산 사거리에서 민락동 방향으로 가면 개울을 건너게 되는데 그 개울을 건너면 오른쪽에 있는 마을로 아래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0. 섬둥지

섬둥지는 섬처럼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근방의 논을 섬둥지논이라 하며, 예전에 대장간이 있었다고 한다.

61. 독립유공자 이용재(李用宰)의 집터

이용재 집터는 민락동 199번지로, 이용재는 1926년 6 · 10만세 운동의 격고문 및 전단 인쇄를 담당하였다가 이 곳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62. 병문(竝門) 밤나무골

병문밤나무골은 무지랭이 입구의 오른쪽 골짜기로, 밤나무가 양쪽으로 줄지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동산이라고도 한다.

63. 행상바위

행상바위는 민락동에서 무지랭이 쪽으로 200m 정도 올라가면 바위로, 그 모양이 죽은 사람을 실어 가는 행상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64. 찬우물(冷川)

찬우물은 행상 바위에서 100m 정도 지점의 계곡에 있으며, 물이 차고 주위의 경관이 좋아 민락동 사람들이 예전부터 신성시했다고 한다. 이 물을 마시면 부스럼이 낫는다는 얘기도 전해오며, 물이 너무 좋아서 젖물이라고도 한다. 이 곳에 관한 낙곡(樂谷) 진익한(陣翼漢)의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冷 泉(냉 천)

(玉嶺之南有冷泉)옥령 남쪽에 물이 찬 샘이 있는데
(村人沐浴百病痊)동네 사람들은 이 물에 목욕하고 모든 부스럼병 나았네
(我來秋日洗雙眼)가을 햇살이 쪼이던 날 내 이 물로 두 눈을 씻으니
(神骨爽然渾欲仙)정신과 뼛골이 시원하기 신선이 된 것 같네

(樂谷 陣翼漢)

65. 작은도장굴

작은도장굴은 찬우물 위에 500m 정도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숨어 있던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이곳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숨어 있던 곳이라고 전해 온다.

66. 큰도장굴

큰도장굴은 작은동장굴과 지명의 유래는 같으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숨어 있던 곳이고 전해진다.

67. 물만등

물만등은 작은도장굴 위쪽에 있으며,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여름이면 이 곳에서 등에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8. 진도둑골

진도둑골은 작은 도장굴과 큰도장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골짜기로, 주위가 상당히 넓다. 독립군 의병장이 숨어있던 곳이라 진도둑골이라 불리어 졌다.

69. 토끼뫼

토끼뫼는 용암산의 얕은 등성이로 토끼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70. 무지랭이(無至嶺)

무지랭이는 고개를 넘어가도 인가가 없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71. 동유골(東幽谷)

동유골은 새능안 동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골짜기가 길어 아래 골은 아랫동유골, 위 골은 윗동유골이라고 한다.

72. 동유골삼거리

동유골삼거리는 무지랭이 밑 새능안에 있는 세 갈래의 오솔길을 말한다. 이곳에서 위로 오르면 동유골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무내미로 가게 된다.

독립군들이 마셨다는 샘물

73. 새능안

새능안은 큰 동장굴 · 물만등 · 동유골삼거리 · 토끼뫼 밑까지를 모두 말한다. 이 장소가 광릉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에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마셨다는 샘물이 있다.

74. 최최골(催花谷)

최최골은 작은도장굴의 양지쪽에 있어서 봄이 오면 꽃이 제일 먼저 핀다고 하여 최화골이라고 부르다가 변음되어 최최골이 되었다.

75. 돌고개

돌고개는 무내미를 가려면 이 곳을 돌아가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최

최골 윗쪽에 위치하며 동유골 건너편에 있다.

76. 유골(幽谷)

유골은 돌고개 밑의 골짜기로 상당히 으슥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동쪽위가 동유골(東幽谷)이다.

77. 꼭두봉(덜봉)

꼭두봉은 최최골의 왼쪽 봉우리로 산 치성을 드리던 곳이다. 꼭대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주위가 넓어서 덜봉이라고도 한다.

78. 불당골

불당골은 꼭두봉 밑의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낙곡(樂谷) 진익한(陣翼漢)이 즐겨 찾던 곳이라고 한다.

79. 고촌(古村)

고촌은 불당골 아래에 있는 마을로, 고려 후기에 탁씨가 와서 살았다고 전해지며, 옛집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0. 새뫼

새뫼는 낙곡(樂谷) 진익한(陣翼漢)의 후손 진연걸(陣延杰)이 이 곳에서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부모의 산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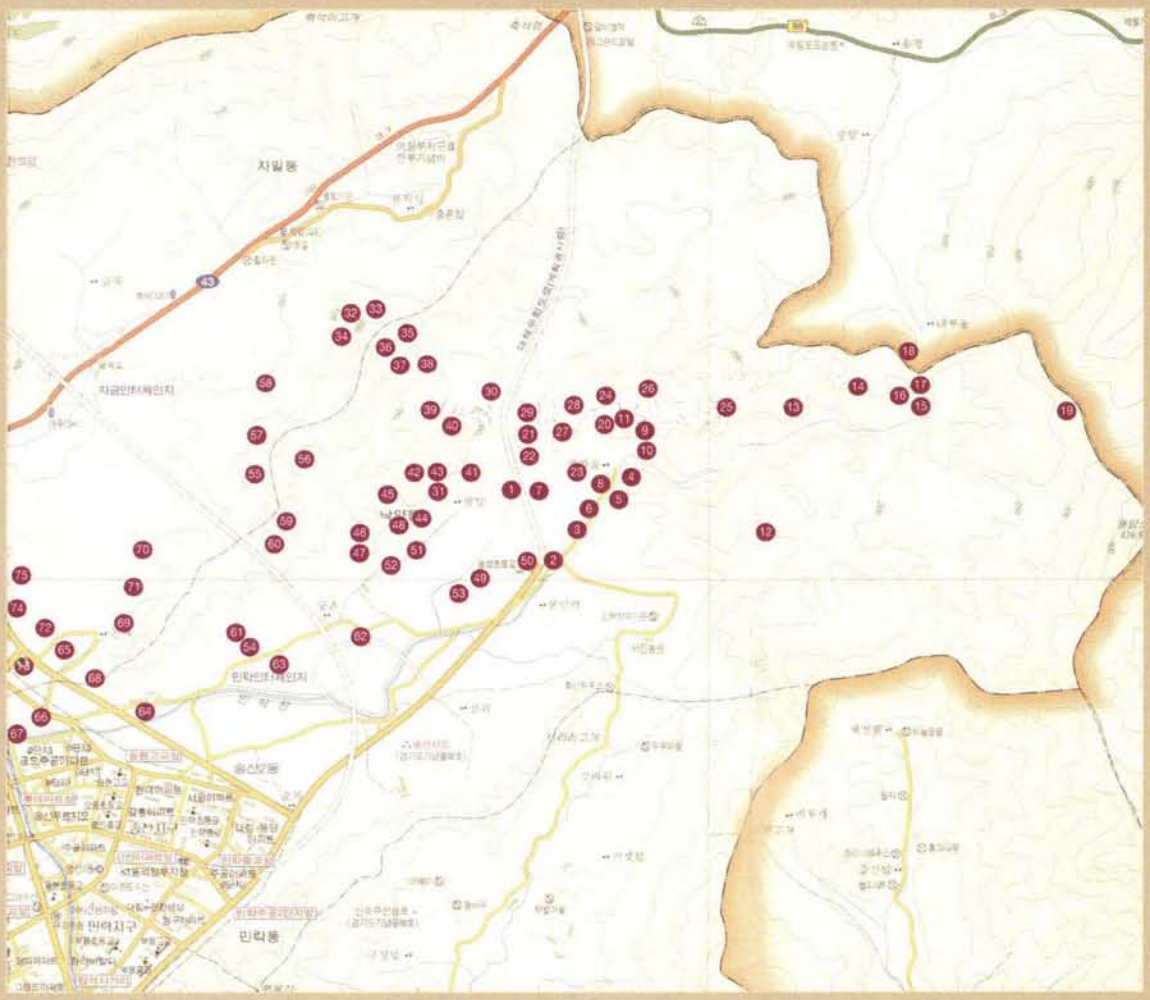
81. 덕수봉(德壽峰)

덕수봉은 비단이골의 봉우리로 덕묘봉(德廟峰)이라고도 하며,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82. 돌고지부리

돌고지부리는 민락동에서 포천을 가려면 이 곳을 돌아서 옥재로 넘어가야 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낙양동(洛陽洞)



1. 평촌(坪村)
2. 산사거리
3. 망수보들
4. 씨름밭
5. 더운우물
6. 방아다리
7. 알밑둥우리
8. 오리골
9. 부계(鳧溪)표석
10. 개바위
11. 호랑바위
12. 삼태골
13. 도둑골
14. 남근봉(男根峰과 여근곡(女谿)
15. 가마소
16. 짝박굴
17. 기석(祈石)
18. 옥(玉)재
19. 둔바위
20. 뒷골천둥지기
21. 방화골(芳花洞)
22. 돼랭이터
23. 첫골
24. 꽃봉
25. 뒷골
26. 불당골
27. 가는봉
28. 범바위
29. 범바위모퉁이
30. 옻물터
31. 양지말
32. 명마골
33. 바가지우물
34. 병풍바위
35. 방치골
36. 두껍바위
37. 능안
38. 말무덤
39. 능안고개
40. 진등
41. 고창모루(高唱隅)
42. 봉화봉
43. 두루봉
44. 동덕동(同德洞)
45. 뒷골
46. 연무골고개
47. 쑥모루
48. 외미둑
49. 유두들
50. 보통머루
51. 복두논들
52. 끝밤나무들
53. 방아다리
54. 궁말(宮村)
55. 연무골(煙霧谷)
56. 신선방아골
57. 법적골
58. 삼테미고개
59. 복사골
60. 능안
61. 조산(朝山)
62. 용새울
63. 진두골(진두고래)
64. 곤제고래실
65. 곤제(昆弟)
66. 곤제모퉁이
67. 어렁굴개울(芙蓉川)
68. 너구리바위
69. 전나무백이
70. 색사골과감자무골
71. 윗말
72. 낮은턱고개
73. 선달모퉁이
74. 모라지밭
75. 새말

제5절 낙양동(洛陽洞)

연 혁

낙양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시북면(柴北面) 곤제리(昆弟里) · 양지리(陽地里) · 궁촌리(宮村里) 등 3개리를 합하여 낙양리(洛陽里)로 고쳐 부르다가 1964년 5월 8일 「의정부시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낙양동이 되었다.

낙양리라는 지명은 태종(太宗)의 총애를 받던 조말생(趙末生)이 곤제(昆弟)에 자리를 잡고 서울 원남동에 집이 있었는데 이곳에 꽃동산을 곤재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루는 무학대사가 이곳에 들렀다가 보고 이것이 마치 중국의 낙양과 같다고 하여 낙양화원이라고 이름 지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지명유래

1. 평촌(坪村)

평촌은 마을에 넓은 들에 있어서 벌말이라고도 하며, 조견(趙狷)이 살던 곳이다. 예전에는 이 평촌과 양지편을 합쳐서 동덕동(同德洞)이라고 하였다.

2. 송산사거리

송산사거리는 송양초등학교에서 민락골, 옥재, 축석으로 가는 사거리로 원산에서 누원점을 거쳐 서울로 가는 길이 발달하면서 생겼다고 한다. 민락골사거리라고도 한다.

3. 망수보들

망수보들은 송산사거리에서 오리골로 가는 길에 있는 들로 망수보(洑)가 있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4. 씨름밭

씨름밭은 덕수원보(洑) 밑의 2천평 정도의 넓은 밭으로 이 곳에서 단오 때면 씨름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더운우물

5. 더운우물

더운우물은 덕수봉 밑에 있으며 수량이 많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한다.

6. 방아다리

방아다리는 더운우물 옆으로,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 알밑둥우리

알밑둥우리는 평촌에서 축석을 가자면 오리골 입구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으로 둥굴게 생겨 꽃봉이라고도 한다.

8. 오리골

오리골은 원래는 옥재에서 이 곳까지 5리(里)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이 곳에 낙곡(樂谷) 진익한(陣翼罕)이 부계(鳧溪)라는 표석을 세워 놓아서 오리(鳧)골이 되었다고 한다.

부계표석

9. 부계(鳧溪)표석

부계표석은 낙곡(樂谷) 진익한(陣翼漢)이 세워 놓은 표석으로, 오리(五里)골이 오리(鳧)골이 된 원인이 되었다.

10. 개바위

개바위는 오리골에서 남쪽으로 보면 개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11. 호랑바위

호랑바위는 개바위 맞은편 양지쪽에 있는 바위로, 이 곳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에 오리골에 한 효자 · 효부가 살았는데,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형님댁으로 가던 중 바위에 앉아 있던 호랑이가 맞은편 개바위를 바라보다가 이들을 개로 착각하여 물어 죽인 후 사람을 죽인 것을 깨닫고 그 시신을 부모의 무덤 앞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 이후 사람들은 이 바위를 호랑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12. 삼태골

삼태골은 오리골에서 옥재로 오르는 첫골짜기로 골짜기의 모양이 삼태기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13. 도둑골

도둑골은 삼태골을 지나 왼쪽 양지 골짜기로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숨어 있었다는 골짜기로 입구는 좁으나 안의 면적은 꽤 넓다.

도둑골

14. 남근봉(男根峰)과 여근곡(女根谷)

도둑골의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가 남근봉이고, 윗쪽에 있는 골짜기가 여근곡이다.

15. 가마소

가마소는 부연곡(釜淵谷)이라고도 하며, 장마에 유실되어 지금은 없어졌다.

16. 짝박굴

짝박굴은 이 곳에 독바위(기석)가 아래 위로 두 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에 있는 독바위는 부엉이가 항상 울었다고 하여 부영바위라고도 하며 그 앞에 마을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던 흔적인 제단이 현존하고 있다.

기 석

17. 기석(祈石)

기석은 짝박굴에 있는 독바위로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이 기석령(祈石嶺)이라는 시를 남겨서 유래한 이름이다. 사람들이 이 기석에 돌을 던져 얹히면 아들을 낳거나 과거에 급제하는 등 소원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기석령이란 시는 다음과 같다.

祈 石 嶺(기 석 령)

(山泉雲齧足)산골 샘물은 구름을 물어 당기고
(草露沾人衣)산초의 이슬은 사람의 옷깃을 적시우며
(長歌行路難)흥얼거리며 가도 가도 산길은 험한데
(欲悉西山薇)나도 서산의 고사리나 캘가나
(世故何偪側)속세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고
(雲林無是非)구름과 수풀은 시비가 없는데
(何加拂袖去)이렇든 저렇든 결연히 속세를 떠나
(穩臥靑山扉)청산을 집 삼아 살련다

(梅月堂 金時習)

18. 옥(玉)재

옥재는 포천과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옥(玉)이 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 둔바위

둔바위는 무지랭이 밑에 있는 바위로, 넓적하고 큼직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 뒷골천둥지기

뒷골천둥지기는 오리골 뒤에 있는 논으로 주위에 수리시설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1. 방화골(芳花洞)

방화골은 이른 봄부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윗방화골과 아랫방화골로 나뉜다.

22. 돼랭이터

돼랭이터는 아랫방화골 앞 오른쪽에 있는 밭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다.

23. 첫골

첫골은 방화골에서 초천의 무내미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24. 꽃봉

꽃봉은 봉우리가 꽃처럼 예쁘게 생겼고 꽃도 일찍 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5. 뒷골

뒷골은 새마을 뒤쪽에 있던 골짜기로 커다란 바위 사이로 물이 흘러서 마을사람들이 빨래와 등목을 많이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가재가 살았을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다. 현재는 부근에 추동정보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 자리이다.

26. 불당골

불당골은 꽃봉 맞은 편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7. 가는봉

가는봉은 불당골의 뒤에 있는 봉우리로 기다랗게 산등이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8. 범바위

범바위는 가는봉 밑에 있으며, 바위가 호랑이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29. 범바위모퉁이

범바위모퉁이는 낙양동과 자일동의 경계를 이루는 모퉁이로 범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0. 옻물터

옻물터는 서라리 고개 밑에 있으며, 이 물을 마시면 옻 오른 것이 고쳐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31. 양지말

양지말은 금오동의 하금오리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편 또는 양지리라고도 하며, 윗말과 아랫마을로 나뉜다. 미 공병부대 위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32. 명마골

명마골은 예전에 이곳에서 말을 길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3. 바가지우물

바가지우물은 명마골에 있으며, 바가지로 물을 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산골(山骨)이라고 하는 파란 광채가 나는 돌이 났다고 하는데 뼈가 부러진데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34. 병풍바위

병풍바위는 명마골 안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병풍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35. 방치골

방치골은 명마골 아래 왼쪽 골짜기로 방치라는 다듬이돌이 나서 붙여진 이름

이다.

36. 두껍바위

두껍바위는 능안에 있는 바위로, 두꺼비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껍바위의 입이 방화골로 향해 있어 방화골은 흉년이 들고, 뒤는 양지편으로 향해 있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37. 능안

능안은 말무덤 위 원선(元宣)의 묘가 있는 골짜기로, 능선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38. 말무덤

말무덤은 능안 아래쪽에 있으며 커다란 구릉이라는 뜻이다.

말무덤

39. 능안고개

능안고개는 양지편에서 능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0. 진등

진등은 바닥이 진흙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며, 이 곳 옆에 우라리짝이라는 지명이 있다.

41. 고창모루(高唱隅)

고창모루는 조견(趙狷)과 원선(元宣)이 이 곳에 앉아서 원선이 퉁소를 불면 조견이 사군곡(思君曲)을 읊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2. 봉화봉

봉화봉은 양지편 뒤의 봉우리로, 봉화를 올렸던 곳으로 봉화둑이라고도 한다.

43. 두루봉

두루봉은 봉화봉 옆의 봉우리로, 매를 날렸다고 하여 매봉재라고도 하고, 오독재라고도 한다.

44. 동덕동(同德洞)

동덕동은 예전에 양지편과 벌말을 합쳐 부르던 이름으로, 덕이 크신 조견(趙狷)과 원선(元宣)이 이 곳에 함께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 사람들은 흔히 동도울로 부른다.

45. 뒷골

뒷골은 새마을 뒤쪽에 있던 골짜기로 커다란 바위 사이로 물이 흘러서 마을사람들이 빨래와 등목을 많이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가재가 살았을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다. 현재는 부근에 추동정보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46. 연무골고개

연무골고개는 양지편에서 연무골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7. 쑥모루

쑥모루는 연무골 끝에 있는 산모퉁이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48. 외미둑

외미둑은 양지편의 윗말과 아랫말 사이에 있는 기다란 둑으로, 이 곳에는 치갈치밭, 외딴밭, 가내논 등이 있다.

49. 유두들

유두들은 송양초등학교 뒤에 있으며, 유두보(洑)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항아리 같이 동그란 잔돌이 많았다는 독돌밭이라는 밭이 있고, 논들이

많다.

50. 보통머루

보통머루는 송양초등학교 앞에 있으며, 초등학교의 예전 명칭인 보통학교 앞에 있는 모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51. 복두논들

복두논들은 양지편과 벌말 사이에 있는 산으로, 곡식이 잘 여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말배미논, 매기배기논, 장구배미논, 새경논, 모새논보, 군주보, 구정보, 독보, 대위보 등 논이 산재해 있다.

52. 끝밤나무들

끝밤나무들은 쑥모루 앞에 있으며, 밤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3. 방아다리

방아다리는 유두들에 있으며,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4. 궁말(宮村)

궁말은 예부터 이 마을에 들국화가 많이 자생하여 국촌(菊村)이라 불려오던 것을 한자표기의 잘못으로 궁말, 궁촌(宮村)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설에는 세종의 후궁인 명의궁(明懿宮)이 조카인 최사의(崔仕儀)를 데리고 이 곳에 와서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5. 연무골(煙霧谷)

연무골은 항상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흔히 연우골이라고 한다.

56. 신선방아골

신선방아골은 연무골 오른쪽의 긴 골짜기로, 경치가 너무 좋아 신선이 놀고 갔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신선바위와 신선방아골샘물이 있다.

57. 법적골

법적골은 신선방아골 너머 양지쪽 작은 골짜기로 절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법자(法字)가 들어가는 절이 있어서 법적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전해온다. 현재도 흔적은 남아 있다.

58. 삼테미고개

삼테미고개는 연무골에서 자금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연무골고개라고도 한다. 골짜기기 삼테미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개를 타고 곤제쪽으로 나가면 마나리고개가 나온다.

59. 복사골

복사골은 삼테미고개 밑의 골짜기로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60. 능안

능안은 궁말뒤의 산으로 이 곳에는 범과 같이 생긴 범바위가 있고 도당골이라고도 한다.

조 산

61. 조산(朝山)

조산은 아침에 해가 제일먼저 이 곳에 비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62. 용새울

용새울은 연무골 아래 논으로, 예전에 물이 잘 나오는 샘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구렁논과 보비논, 샘논이 있다.

63. 진두골(진두고래)

진두골은 궁말 앞의 논으로, 바닥이 찰진흙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구렁논과 거척논이 있다.

64. 곤제고래실

곤제고래실은 궁말에서 곤제 모퉁이 가기 전 왼쪽에 있는 논으로, 이 곳에는 열두배미논이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5. 곤제(昆弟)

양주조씨(楊州趙氏)의 족보에 의하면, 이 마을의 원래 지명은 양주(楊州) 외송산(外松山) 섭뒤울이라고 했으니 섭은 땔나무(柴) 즉 섶의 옛말로 시북면(柴北面) 뒷편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또한 5백여년전 양주조씨 두 형제가 이 곳에 와서 마을을 개척하고 살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곤제라고 불렸는데 형 조극관(趙克冠)은 단종 원년(1453)에 병조판서를 지냈고 동생 조수량(趙遂良)은 평안도 관찰사를 지냈으나 계유정란 때 두형제가 모두 수양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지금도 두 형제의 무덤이 이 마을 뒷산에 있고 그 후손들이 이 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곤제가 조극관, 조수량 두형제의 연고지역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명 유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극관, 조수량은 조선전기의 문신으로서 세종 사후 왕위 계승 과정에서 수양대군에 반대하였다가 변을 당한 사람들이다. 관계 기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인다.

○ 단종 1년 10월 10일 (계사)

조극관(趙克寬)이 이 일찍이 그 아우 조수량(趙遂良)에게 말하기를,

"안평대군(安平大君)이 거칠고 음란하여 탐하고 더러운 것은 나라 사람이 함께 아는 것이고, 수양대군(首陽大君)은 공명정대하여 세종께서 무릇 군국의 중한 일을 많이 자문하였고, 실로 명망이 있다."

하니, 조수량이 말하기를,

"참으로 말씀한 것과 같으나, 안평대군이 대신과 굳게 맺어 대신이 모두 비밀히 붙고, 혜빈(惠嬪)이 또 내응하는데, 우리들이 이미 음모에 참여하였으니, 중도에 변

할 수 없습니다."

○ 단종 1년 10월 10일 (계사)

세조가 새벽에 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홍달손(洪達孫)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은 요망한 도적을 소탕하여 종사를 편안히 하겠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약속과 같이 하라. 내가 깊이 생각하여 보니 간당(姦黨)중에서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로는 김종서(金宗瑞)같은 자가 없다. 저 자가 만일 먼저 알면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두 역사를 거느리고 곧장 그 집에 가서 선 자리에서 베고 달려 아뢰면, 나머지 도적은 평정할 것도 없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중략)

김종서의 부자 · 황보인 · 이양 · 조극관 · 민신 · 윤처공 · 조번 · 이명민 · 원구 등을 모두 저자에 효수(梟首)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 그 죄를 헤어라려 기왓 돌로 때리는 자까지 있었고, 여러 사(司)의 비복(婢僕)들이 또한 김종서의 머리를 향해 욕하고, 환시(宦寺)들은 김연(金衍)을 발로 차고 그 머리를 짓이겼다. 뒤에 저자 아이들이 난신(亂臣)의 머리를 만들어서 나희(儺戲)를 하며 부르기를,

"김종서 세력에 조극관 몰관(沒官)하네."

하였다.

○ 단종 1년 10월 13일 (병신)

(전략)

"지금 이용(李瑢) · 이우직(李友直) · 황보인(皇甫仁) · 김종서(金宗瑞) · 이양(李穰) · 조극관(趙克寬) · 민신(閔伸) · 윤처공(尹處恭) · 이명민(李命敏) · 김연(金衍) · 조번(趙藩) · 김승규(金承珪) · 원구(元矩) · 이현로(李賢老) · 대정(大丁) · 하석(河石)등의 아비와 자식의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백부(伯父) · 숙부(叔父)와 형제의 자식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유(流) 3천리하여 안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 · 처첩 · 조손 · 형제 · 자매 · 또는 자식의 처

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을 아울러 관에 몰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분(鄭忿)· 조수량(趙遂良)· 안완경(安完慶)· 조충손(趙衷孫)· 지정(池淨)· 이보인(李保仁)· 이석정(李石貞)· 이의산(李義山)· 박하(朴夏)· 조순생(趙順生)· 조완규(趙完珪)· 한숭(韓崧)· 이차효산(李差孝山)· 안막동(安莫同)· 황귀존(黃貴存)· 이징옥(李澄玉) 등은 아울러 변군(邊郡)에 안치하고, 주형(誅刑)을 받은 사람들의 아비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훤히 변군 관노(官奴)에 붙이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 및 모녀· 처첩· 조손· 형제· 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관노에 붙이고, 백숙부와 형제의 아들은 외방에 안치하라. 용(瑢)과 이우직(李友直)은 종친(宗親)· 정부(政府)· 육조(六曹)· 대간(臺諫)이 굳이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나 지친인 때문에 차마 형을 가하지 못하니, 교동현(喬桐懸)에 옮겨두고, 용· 이우직· 황보인· 김종서· 이양· 조극관· 민신· 윤처공· 이명민· 기연· 조번· 김승규· 원구· 이현로· 대정· 하석 등 외에는 재산을 적몰하지 말라."

하였다.

인용이 번잡하여 일일이 다 전재하지 못하나 <곤제> 지명유래의 역사성을 일부 엿보기에는 충분할 듯하다. 단 조사자료에 나타나는 인명 중 조극관(趙克冠)은 조극관(趙克寬)의 오기인 듯하다.

그러나 이 두 형제가 입향하여 이를 연고로 마을을 곤제(昆弟)라 하였다는 것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물론 곤제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昆弟>가 되고 이에는 형과 아우라는 의미가 되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말 지명 <곤>에는 <곱다>라는 의미가 있어 이 또한 상당히 널리 쓰이는 지명이기 때문에 다른 변에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서울 소공동의 우리말 지명이 곤담골로 덕수궁의 고운 돌담에서 유래한 지명인 것이 바로 한 예이다. 따라서 곤제를 우리말로 보아 곤재, 즉 고운 언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곤제(昆弟), 즉 형제라는 말만으로 지명을 삼기에는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명 곤제에는 곤제골, 또는 곤제향처럼 형제가 입향하여 개척한 마을의 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다. 곤제를 고운제로

이해하여야 비로소 함께 있는 곤제 모퉁이 등의 연관 지명 역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기도 하다.

66. 곤제모퉁이

곤제모퉁이는 궁말에서 곤제로 가는 산모퉁이로, 곤제로 가는 모퉁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7. 어렁굴개울(芙蓉川)

어렁굴개울은 부용천을 발하며, 수락산에서 나오는 물과 민락동 무지랭이에서 흐르는 물이 합쳐져서 삼각형 모양의 개울이다. 이 개울을 곤제나 궁말 사람들은 어렁굴개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한 곤제 앞 논에 이 물을 대서 곤제보(洑)라고도 했다고 한다.

68. 너구리바위

너구리바위는 곤제 입구 오른쪽 얕은 산에 있는 바위로 너구리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69. 전나무백이

전나무백이는 곤제 위쪽 마을인 윗말 옆에 있으며, 전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전나무는 남아 있지 않다.

70. 색시골과 감자무골

색시골과 감자무골은 곤제에서 자금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로,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포천에서 가마에 색시를 태우고 초행을 오는데 이 곳에서 도적떼가 색시를 죽이고 감쪽같이 묻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1. 윗말

윗말은 곤제 위에 있는 마을로 집이 몇 채 되지 않았는데, 형님은 위에 살고 동

생은 아래에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곳에는 골목밭이라고 불리는 긴 밭이 있다.

72. 낮은턱고개

낮은턱고개는 곤제마을 사람들이 의정부로 나갈 때 넘어 다니던 작은 등성이로 고개가 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73. 선달모퉁이

선달모퉁이는 의정부에서 곤제로 들어가는 모퉁이로, 궁말에서 의정부로 나갈 때도 이곳을 지나 다녔다고 한다.

74. 모라지밭

모라지밭은 선달 모퉁이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밭으로 모래로 되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산모퉁이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75. 새말

새말은 호암초등학교 옆 근처에 있는 마을로, 6 · 25 한국전쟁 후 새로 마을이 생기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구사(舊寺) 터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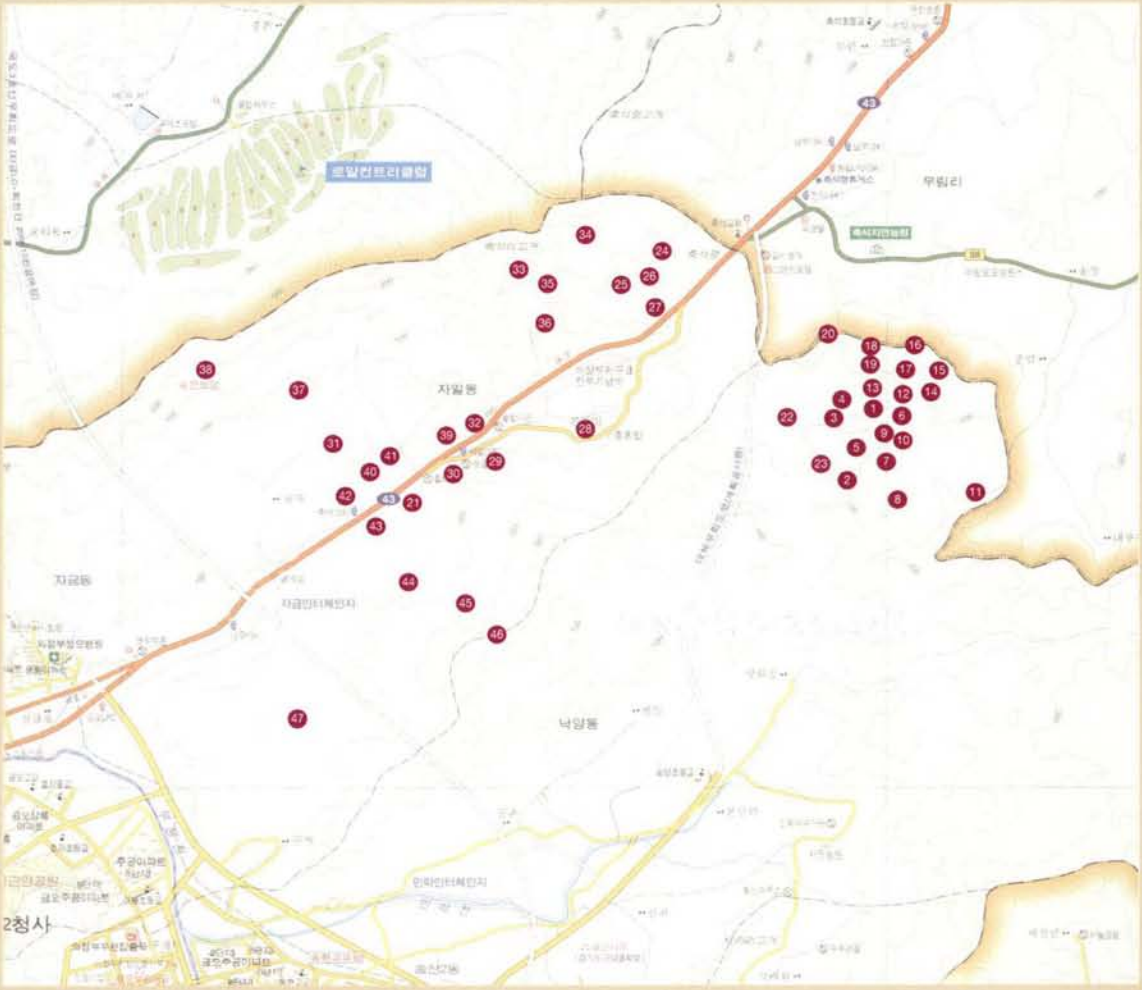
여 백

제6장 자금동

제1절 자일동 | 제2절 금오동

自金洞

자일동(自逸洞)



1. 귀락	11. 꽃봉	21. 금곡리(金谷里)	31. 쇳골	41. 방아골고래
2. 벼락바위	12. 앞고래	22. 나무아미타불모퉁이	32. 동산(東山)너머	42. 돌고개
3. 쇳골고개	13. 잣나무고개	23. 사자골	33. 백석이고개	43. 공사태밭
4. 서라리고개	14. 찬우물골	24. 목장골	34. 갓골	44. 작은자리골
5. 진등	15. 샛골고개	25. 성박골	35. 세자곡(世子谷)	45. 분두골(雰逗谷)
6. 진재등	16. 노구메골	26. 도둑골	36. 능안고개	47. 쉼재고개
7. 진너머	17. 거능골	27. 작은자일(自逸)	37. 뒷골	48. 쑥고개
8. 진들골	18. 범에골	28. 본자일(本自逸)	38. 절골	
9. 고인돌군	19. 불당골	29. 막너머	39. 쇳골고개	
10. 앞개울	20. 축석령(祝石嶺)	30. 모탱이산	40. 해동창	

제6장 자금동(自金洞)

연 혁

자금동은 자일동(自逸洞)과 금오동(金梧洞)의 2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동으로, 자금동이라는 이름은 자일 · 금오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자일동은 1914년 4월1일 전국행정구역 개편 때 양주군 시북면 자일리, 귀락리, 금곡리를 합쳐 시둔면 자일리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5월8일 「의정부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같은 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자일동이 되었다.

금오동은 1914년 4월1일 전국행정구역 개편 때 양주군 시북면 금곡리, 상서오리, 중서오리, 하서오리를 합쳐서 시둔면 금오리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5월 8일 「의정부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기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같은 해 6월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금오동이 되었다. 북(北)으로는 포천군 소흘읍(蔬屹邑)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東)으로는 부용천(芙蓉川)이 서류(西流)하여 중랑천(中浪川)에 합류한다.

제1절 자일동(自逸洞)

연 혁

자일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때 시북면(柴北面) 자일리(自

逸里) · 귀락리(歸樂里) · 금곡리(金谷里)를 합쳐 시둔면(柴芚面) 자일리(自逸里)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5월 8일「의정부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자일동이 되었다. 자일동이라는 지명은 봉선사본말사약지(奉先寺本末寺略誌)에 의하면, 6백여년전 태고 보우(太古 普愚)스님이 이곳에 천보사(天寶寺)를 짓고 자적유일(自適遊逸)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명유래

귀락마을

1. 귀락(歸樂)

귀락은 포천군 소흘면과 경계를 이루는 의정부시의 최북단(最北端) 마을로, 조선 영조(英祖) 중엽 박해문(朴海文)이라는 사람이 평안도 도사(平安道 都事)를 지내다 이 곳에 와서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산수가 아름다운 이 곳에서의 삶을 늘 만족하게 생각했다. 하루는 그의 가노(家奴)들이 마을이름이 없어서 불편함을 털어놓고 이름을 지어 줄 것을 간청하자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歸鄕) 여생을 즐겁게 지낸다(樂業)"라고 말하면서 마을이름을 귀락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또한 일설에는 이곳의 지형(地形)이 거북이가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귀락(龜落)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2. 벼락바위

벼락바위는 민락동에서 축석으로 넘어가는 길가에 있던 바위로, 벼락을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쇳골고개

쇳골고개는 쇳골(金谷)으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 서라리고개

서라리고개는 포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조총으로 싸

움을 하는 반면 의병들은 돌을 가지고 싸우므로 이길 수 없자 서럽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진등

진등은 귀락입구에서 벼락바위 아래까지 기다랗게 내려오는 등성이로 바닥이 찰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6. 진재등

진재등은 귀락에서 방아골로 넘어가는 진등의 중간에 있는 작은 고개를 말한다.

7. 진너머

진너머는 귀락에서 방아골로 가는 길로 진재등너머를 말한다.

8. 진들골

진들골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 고인돌군

고인돌군은 진들골에 위치하며, 논 안에 고인돌이 있기도 하고, 논에서 개석을 들어다 겹겹이 쌓아 놓기도 하였다고 한다.

고인돌

10. 앞개울

앞개울은 앞고래와 진들골 사이에 흐르는 개울로 앞고래 앞으로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1. 꽃봉

꽃봉은 귀락에서 광릉쪽으로 보이는 봉우리로 꽃같이 예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꽃봉을 넘어가면 무지랭이와 새능안이 된다.

12. 앞고래

앞고래는 만여평 정도의 넓은 논으로 예전에 수백년 묵은 향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향나무자리라고도 한다. 또한 이 곳에 기와배미논이 있는데, 기와배미는 어느 해에 너무 가물어서 논바닥이 기와장 같이 금이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3. 잣나무고개

잣나무고개는 잣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14. 찬우물골

찬우물골은 샛골고개의 응달 쪽에 있는 골짜기로 찬우물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앞의 고개를 찬우물고개라고 한다.

15. 샛골고개

샛(사이)골고개는 무내미로 넘어가는 고개로 포천과 경계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예전에 포천상인들이 이 길을 통해 장으로 갔다고 하여 옛고개라고도 불렀다 한다.

16. 노구메골

노구메골은 샛골고개로 올라가다 왼쪽으로 있는 작은 골짜기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치성을 드리던 곳이던 노구메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있는 소나무를 노구메소나무라고 한다.

17. 거능골

거능골은 누원점이 사라지고, 5일장이 생기면서 포천의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 있는 골짜기다.

18. 범에골

범에골은 호랑이골이라고도 한다. 이 곳에 피가 묻어 있는 바위가 있는데 호랑

이가 짐승을 잡아먹은 흔적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 불당골

불당골은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이 곳에서 기와장과 사기 등이 출토된다고 한다.

20. 축석령(祝石嶺)

축석령은 천보산(天寶山) 기슭에 있는 고개로 포천시 소흘읍(蘇屹邑)과 경계를 이루며 의정부시 북쪽 관문이 된다. 일명 2백리고개라고도 하는데, 이 고개를 분수령으로 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포천천을 거쳐 한탄강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중랑천을 거쳐 한강에 이르므로 철원과 서울까지의 거리가 2백리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축석령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3백여년전 포천 어룡리에 오백주(吳伯周)라는 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구성도호사(龜城都護使)로 있을 때 고향에 계신 부친이 병환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벼슬을 버린채 고향에 돌아와 부친의 병간호를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약도 차도가 없어 하늘을 탓하며 탄식만 하고 있는데 꿈에서 산신령이 크게 꾸짖으며 "네 아비의 병은 석밀(石蜜)을 먹으면 낫는데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냐"하고 호령하자 그는 석밀을 구하기 위해 정과 망치를 들고 온 산을 헤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가 "내가 죽으면 부친을 누가 돌본단 말인가"하며 통곡하자 호랑이는 간데 없고 바위만 남아 바위틈에서 석밀이 흘러 나왔다.

이에 부친의 병이 나으니 사람들이 오백주의 효성에 산신령이 가호를 베풀어 바위를 호랑이로 변신시켰다고 하여 그 바위를 범바위라고 불렀으며, 그 후 오백주가 매년 이 바위에 와서 고사를 지내고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하여 축석령이라고도 하였다 한다.

21. 금곡리(金谷里)

금곡리는 광부촌(鑛夫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2. 나무아미타불모퉁이

나무아미타불모퉁이는 6.25 당시 축석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 세운 전승비 밑의 모퉁이로, 사람들이 이 곳에서 소를 팔고 오다 도둑에게 털리는 일이 많아서 안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3. 사자골

사자골은 나미아불타불모퉁이 밑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곳을 넘으면 낙양동의 명마골이 나온다. 골짜기가 너무 으스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4. 목장골

목장골은 축석으로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곳에 목초지가 많아서 소와 말을 많이 길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5. 성박골

성박골은 목장골 아래 골짜기로, 바위가 하나 있는데 안쇳골에서 바라보면 마치 성을 쌓은 것 같아 보이고 바깥쇳골에서 보면 족두리 같이 보인다고 하여 안쇳골에서는 성박골이라고 부르고 바깥쇳골에서는 족두리 바위 또는 성바위라고 부른다.

26. 도둑골

도둑골은 성바위 아래 골짜기로, 민락동의 진도둑골 · 큰도장굴 · 작은도장굴 등과 같이 독립군이 숨어 있던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7. 작은자일(自逸)

작은자일은 본자일(本自逸)에서 축석으로 가는 길에 왼쪽으로 있는 작은마을을 말한다.

28. 본자일(本自逸)

본자일은 1914년 4월 1일 전국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일리(自逸里) · 귀락리

(歸樂里)·금곡리(金谷里)를 병합하기전의 자일리를 말한다. 자일리라는 이름은 봉선사본말사약지(奉先寺本末寺略誌)에 의하면, 6백여년전 태고보우(太古普愚) 스님이 이 곳에 천보사(天寶寺)을 짓고 자적유일(自適遊逸)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9. 막너머

막너머는 본자일에서 금곡으로 넘어가는 작은 산등성이로, 넘기가 수월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명이 있다. 우리말의 접두사 <막>은 마구, 함부로, 대충대충 등의 의미로 이 접두사는 막걸리, 막국수, 막된장 등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접두사에 쉽게, 수월하게라는 의미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명 너머는 어디 어디의 건너 편, 어디 어디의 뒤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성너머, 재너머, 등너머 등의 용례로 쓰인다. 따라서 막고개라면 몰라도, 수월하게 넘는 고개라는 의미로 막너머가 되었다는 설명은 막에도 너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막너머는 지명 그대로 막의 너머 막의 뒤편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정확하다. 이 경우 막이 주막을 뜻하는지, 독막 또는 병막을 뜻하는지 그것은 불명이다.

30. 모탱이산

모탱이산은 의정부에서 본자일로 가는 산모퉁이로, 이 앞의 개울을 모탱이개울이라고 한다.

31. 쇳골

쇳골은 43번 국도로 포천을 향해 가다가 축석고개 못미쳐서 왼쪽에 있는 천보산 입구의 마을로, 일명 금곡(金谷)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이곳에서 철을 캐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폐광된 흔적이 남아있다. 이 곳 금곡이 안쇳골이고, 본자일은 바깥쇳골이라고 불렀다.

이곳을 쇳골이라고 부른 것은 광구(廣口)와 관련된 것이 맞다. 그러나 쇠 즉 철(鐵)을 캐낸 것이 아니고 은(銀)을 캐던 곳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에 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기 때문이다. 관계기사를 인용해 보자.

○ 선조 39년 5월 1일 (무진)

경기 감사 이홍로(李弘老)가 장계하기를,

"양주 목사(楊洲牧使) 정섭(鄭燮)의 첩정(牒呈)에 '호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진고(陳告)한 사람의 말대로 주(州)의 경내 축석령(祝石嶺)의 은(銀)이 산출된다는 곳에 은장(銀匠)과 군인 14명을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부역해 은토(銀土) 1말을 굴취(掘取)하여 진목회(眞木灰) 1석, 송명(松明) 4백근, 숯 4석, 취련군(吹鍊軍) 18명을 들여 은자(銀子) 1편(片)을 취련하였는데 무게는 5돈이다.' 고 하였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소득은 매우 적은데 이토록 많은 백성의 힘을 소비하였으니, 이홍로가 일을 좋아하고 공(功)을 좋아한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선조 39년 7월 14일 (신사)

경기 관찰사 이홍로(李弘老)가 장계하기를,

"양주 목사(楊洲牧使) 정섭(鄭燮)의 첩정(牒呈)에 '양주의 은 생산지인 축석령(祝石嶺)의 은(銀)을 채취하는 데 대한 난이도와 은맥(銀脈)이 긴지를 살펴보게 하기 위해 본조(本曹)의 낭청(郎廳) 김경립(金敬立)을 보냈는데,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온 세가지 은 10여 두(斗)를 채취해 왔습니다. 대개 은혈(銀穴) 위아래의 바람과 햇볕이 미치는 곳은 모래와 돌이 드물고 은혈 안쪽의 판곳은 모래 또는 돌이 있는데 품질이 같지는 않으나 일어서 얻은 것은 다 은과 쇠가 섞였습니다. 산에 매장된 것은 다 이러하리라고 생각되나. 석공(石工)을 데리고 가지 않아서 깊이 파지 못하였으므로 은맥이 긴지는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왔습니다. 살펴본 상황은 별지에 써서 아룁니다. 단천(端川)의 은장(銀匠)이 올라온 뒤에 세가지 은을 녹여 만들어 보아 품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면 석공을 데리고 가서 다시 상세히 살피고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선조 39년 9월 22일 (무자)

별지는 다음과 같다.

"축석령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간 산 한 줄기가 빙 돌아서 동쪽을 향한 산을 이루었는데, 양쪽 산기슭 가운데 시냇물이 만나는 지점에 하나의 단안(斷岸)이 있고 돌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래가 곧 은이 나는 곳인데, 전일 이미 뚫은 구멍은 가로 두 발, 너비 한 자, 길이 두 자이고, 구멍안에는 철맥(鐵脈)이 돌 사이에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시켜 정(釘)으로 사면을 깨어 냈는데, 50여 명이 하루 일하여 얻은 수량은 쇠를 부수고 찌꺼기를 제거한 세 가지 품질을 아울러 10여 말이고 괴철(塊鐵) · 잡철(雜鐵)은 겨우 두어 말이었습니다. 대개 이번에 일한 구멍은 전후 판 것을 통틀어 좌우로 여섯 파(把), 앞뒤로 석 자, 밑너비 두 자이고, 깊이는 사람 키의 반쯤 됩니다. 또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구멍의 좌우에 액집(液汁)이 흙이 되어 오색이 얼룩지고 철기(鐵氣)가 양 머리에 이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석공을 많이 써서 남포질을 크게 해야 그 정혈(正穴)이 있는 곳을 알 수 있고 힘을 쓰고 공을 얻는 것이 얼마나 될지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32. 동산(東山)너머

동산너머는 안쇳골에서 바깥쇳골로 넘어가는 동산에 있는 작은 등성이로, 동쪽에 있는 산너머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3. 백석이고개

백석이고개는 축석에서 마전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는 많이 이용하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이다.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34. 갓골

갓골은 백석이고개의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곳에 호랑이 같이 생긴 호랑이 바위가 있다.

35. 세자곡(世子谷)

세자곡은 성바위 왼쪽의 골짜기로 능안이라고 부른다. 세자의 묘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 세자의 이름은 알 수 없고 묘도 남아 있지 않다.

36. 능안고개

능안고개는 안쇳골에서 큰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세자곡에 세자무덤이 있었다고 해서 이 고개를 능안고개라고 불렀다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이 지명 역시 능이라고 접두사에 구애되어 부회한 지명이다. 우선 세자의 무덤은 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추존왕을 포함하여 왕과 왕비의 무덤만을 능이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능호(陵號)가 붙게 된다. 세자의 경우 그 무덤은 묘(墓)라 하고 묘호(墓號)를 따로 붙여 다른 묘와 구분하게 되며 그대 무덤의 규모는 대게 능을 축소한 형태로 다양한 석물을 세우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설사 세자의 무덤이 있었다 하여도 이를 능이라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명 역시 구릉의 안쪽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정확하다고 하겠다.

37. 뒷골

뒷골은 안쇳골 바로 뒤의 골짜기로 광산이 있었다고 하여 광산골이라고도 한다. 새마을 뒤쪽에 있던 골짜기로 커다란 바위 사이로 물이 흘러서 마을사람들이 빨래와 등목을 많이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가재가 살았을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다. 현재는 부근에 추동 정보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 자리이다

38. 절골

천보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년전 태고(太古) 보우국사(普愚國師)가 창건한 절로 보우국사(1301~1382)는 고려말의 명승인데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면 이 절의 초창연대는 1350년 이후로 보인다. 1944년 법우니(法雨尼)가 옛 사지(寺址)에 대웅전을 짓고 천보사라고 하였다.

39. 쇳골고개

쇳골고개는 안쇳골고개에서 금오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40. 해동창

해동창

해동창은 의정부에서 안쇳골로 들어오는 다리 윗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해가 아침에 제일 먼저 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쇳골에서는 앞산이라고 한다.

41. 방아골고래

방아골고래는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가는 길의 왼쪽에 있는 논으로 예전에 이곳에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2. 돌고개

돌고개는 일제시대에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가는 길을 신설하면서 생긴 고개로, 산을 돌아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3. 공사태밭

공사태밭은 금곡마을 앞에 있는 큰 밭으로, 이 곳에서 광부들이 공을 차고 놀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앞의 개울을 공사태개울이라고 한다.

44. 작은자리골

작은자리골은 분두골 옆의 골짜기로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45. 분두골(雰逗谷)

분두골은 독두소 위의 골짜기로 항상 안개가 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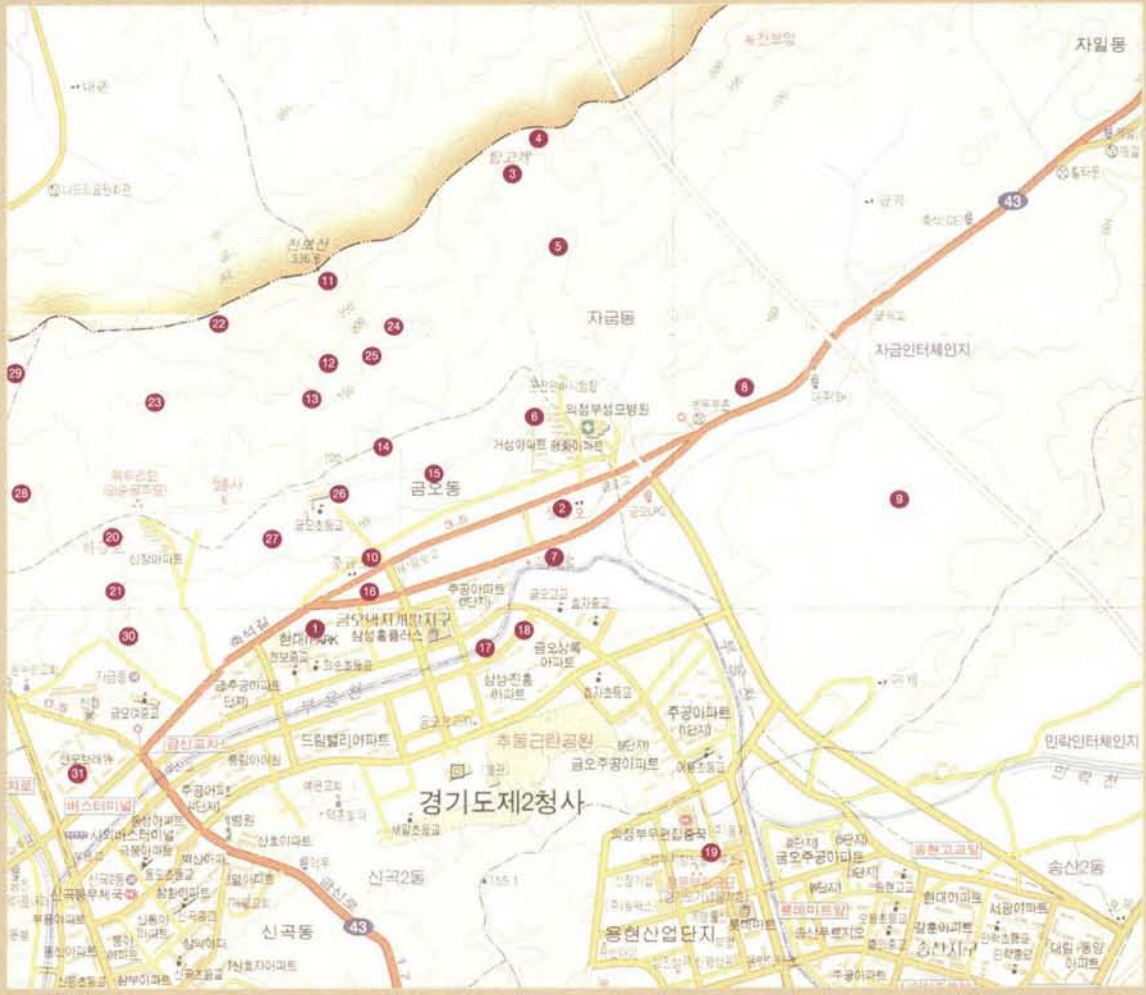
46. 쉼재고개

쉼재고개는 분두골에서 궁말로 넘어가는 고개로 낙양동에서는 연무골고개라고 한다. 고개가 가파라서 쉬어 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7. 쑥고개

쑥고개는 자금동과 낙양동의 경계를 이루는 얕은 고개로, 낙양동에서는 색시골과 감자무골이라고 부른다.

금오동(金梧洞)



1. 금오리(金梧里)	9. 오목골	17. 독두소(獨逗沼) 터	25. 안장바위
2. 상금오리(上金梧里)	10. 중금오리(中金梧里)	18. 독두산(獨逗山)	26. 시북면사무소 터
3. 탑고개	11. 천보산(天寶山)	19. 바위백이논	27. 당안들
4. 벼락바위	12. 치마바위	20. 하금오리(下金梧里)	28. 무정골(無情谷)
5. 사묵골(沙墨谷)	13. 청룡굴(靑龍谷)	21. 꽃동네	29. 호랑이굴
6. 참나무모퉁이	14. 고인돌	22. 정주당(敬主堂) 터	30. 거북말
7. 진천들(眞川)	15. 샘말	23. 공주샘	31. 도라리들
8. 빈골모퉁이	16. 주논들	24. 노구메골	32. 족두리봉

제2절 금오동(金梧洞)

연 혁

금오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행정구역 개편때 시북면(柴北面) 금곡리(金谷里) · 상서오리(上西梧里) · 중서오리(中西梧里) · 하서오리(下西梧里)를 합쳐서 시둔면(柴芚面) 금오리(金梧里)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5월 8일 「의정부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금오동이 되었다.

지명유래

1. 금오리(金梧里)

조선 선조(宣祖)의 일곱째 아들 인성군(仁城君)이 이 곳에 낙향하여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번창하였다. 한편 포천에는 병조판서 서성(徐渻)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서울을 왕래할 때 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늘 괴로움을 당했다고 한다. 한국국립지리원 지명조사록(地名調査錄)에 의하면 서성이 서쪽마을에 호랑이와 늑대같이 욕심많고 인정없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여 서호랑리(西虎郞里)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후 변음되어 서오리(西梧里)가 되었고 다시 상서오리 · 중서오리 · 하서오리로 나뉘었다가 1914년 금곡리 일부와 합쳐서 금오리로 합쳐졌다.

또한 이 곳을 부석동(浮石洞)이라고도 하였는데 현재 동사무소 앞 주논들에 있던 바위가 장마가 져도 잠기지 않고 물에 떠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 상금오리(上金梧里)

상금오리는 성모병원 왼쪽에 있는 마을로 상서오리(上西梧里)를 말한다.

3. 탑고개

탑고개는 탑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이 포천 현감으로 있을 때 포천에서 양주목으로 가는 길을 신설하면서 생긴 고개라고 한다. 일명 턱고개라고도 한다.

4. 벼락바위

벼락바위는 탑고개에서 능선을 따라서 300m쯤 북쪽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사묵골(沙墨谷)

사묵골은 탑고개와 세모꼴개울 사이에 있는 개울로, 계곡의 모래가 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6. 참나무모퉁이

참나무모퉁이는 뒷동산 왼쪽 끝에 있는 모퉁이로 참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동산은 마을 뒤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현재는 성모병원이 들어서 있다.

7. 진천들(眞川)

진천들은 독두소 근방의 들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참내(眞川)가 흘러서 붙여진 이름이다.

8. 빈골모퉁이

빈골모퉁이는 포천에서 금오리로 오는 돌고개 아래의 작은 모퉁이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 오목골

오목골은 분두골 아래의 작은 골짜기로 오목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 중금오리(中金梧里)

중금오리는 상금오리와 하금오리의 중간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1. 천보산(天寶山)

천보산은 보우국사(普愚國師)가 초창(初創)한 천보사(天寶寺)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조선 선조(宣祖)의 후궁인 정빈민씨를 비롯해서 제7자 인성군(仁城君), 손자 해원군(海原君), 증손 화릉군(花綾君), 화창군(花昌君), 화춘군(花春君) 그리고 인조의 동생인 능창군(綾昌君) 등의 왕손들의 묘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12. 치마바위

치마바위는 천보산 밑에 있는 바위로 주름을 잡은 치마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치마바위는 산곡동 거문돌의 치마바위 보다 훨씬 크다.

13. 청룡굴(靑龍谷)

청룡굴은 치마바위 남쪽의 골짜기로 청룡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4. 고인돌

고인돌은 미군부대 안의 산능성 끝인 203번지에 있었다. 6.25사변전까지는 고인돌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없애버렸다고 한다.

15. 샘말

샘(사이)말은 중금오리와 상금오리 사이의 작은 마을로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6. 주논들

주논들은 현재 구자금동사무소앞에 있는 들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곳에는 바위백이논, 구렁자리논, 가마우덩이 등이 있다. 위쪽으로는 일본 사람들

이 새로 만들었다는 새둑논들이 있다.

17. 독두소(獨逗沼) 터

독두소는 축석에서 내려오는 물과 부용천(芙蓉川)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생겼던 큰 소(沼), 독포(獨浦) 또는 독개울이라고도 한다. 이 곳의 물은 거북나루까지 이어졌었다.

18. 독두산(獨逗山)

독두산은 신곡2동의 민치골 북쪽에 있는 작은 산골짜기로 신곡동에서는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없고, 자금동에서는 독두소 앞에 있다고 하여 독두산이라고 한다.

19. 바위백이논

바위백이논은 주논들에 있는 논으로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마가 져도 그 바위만은 잠기지 않았다고 한다.

20 하금오리(下金梧里)

하금오리는 8.15 해방 후까지도 집이 몇 채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상금오리 · 중금오리보다 세대가 많다.

21. 꽃동네

꽃동네는 본래 절동네라고 불렸는데, 초대 노인회장 이만구씨가 마을 노인들과 함께 길가에 꽃을 많이 심고 난 후 회의를 거쳐 마을 이름을 꽃동네라고 고쳤다고 한다.

정주당 터

22. 정주당(定主堂) 터

정주당 터는 꽃동네 뒷산에 있으며 의순공주(義順公主)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터이다. 일명 경주당(敬州堂)이라고도 한다. 의순공주는 금오동에서 이개윤(李漑胤)의 딸로 태어나 효종 1년(1650)에 청

의 황자(皇子) 구왕(九王))으로부터 조선의 공주를 얻어 결혼하겠다는 요청이 있자 선발되어 청으로 보내졌다. 이후 환국하여 불운한 말년을 보내다가 현종(顯宗) 3년(1662)에 죽으니 정주당을 짓고 넋을 달래는 제향을 올렸다고 한다. 지금도 주춧돌과 기왓장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이 곳에 있는 봉우리를 공주봉이라고 한다.

23. 공주샘

공주샘은 경주당 아래에 있는 약수터로 명주실을 한 타래 넣어도 한 없이 들어갈 정도로 깊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 물을 마시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절이 생기면서 물을 관리하고 있다.

공주샘

24. 노구메골

노구메골은 하금오리와 탑고개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노구메소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소나무에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25. 안장바위

안장바위는 노구메골 능선에 있는데 말안장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에 앉으면 말을 타고 있는 것과 같고 앞뒤로 조금씩 흔들린다고 한다.

26. 시북면사무소(柴北面事務所) 터

현재 금오초등학교 정문 오른쪽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자금동 226번지로 시둔면사무소가 있던 곳이다.

시북면사무소에 있던 느티나무

27. 당안들

당안들은 바깥은 하금오리에 속하고, 안은 중금오리에 속한다. 매우 넓어서 논이 많으며, 경주당 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28. 무정골(無情谷)

무정골은 공주산 넘어 골짜기로 청나라에 끌려간 의순공주(義順公主)의 소식을 기다리기가 무정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9. 호랑이굴

호랑이굴은 무정골 꼭대기에 있는 바위굴로 위아래로 두군데가 있는데 예전에 이 굴에 사는 호랑이가 마을사람들을 괴롭혀서 토벌한 결과 호랑이를 12마리나 잡았다고 한다.

30. 거북말

거북말은 자금동파출소 뒤에 있는 마을로, 거북나루 앞에 있는 거북섬이 장마가 지면 능선만 남고 모두 잠겨 그 모양이 거북이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이 곳에는 신곡동 사람들이 독두소에서 여기까지 줄을 매어 배로 건너 다니던 거북나루가 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곳에서 물장수 하던 사람이 죽어 그 아들이 나루 앞에서 울고 있자 한 중이 지나가다가 우는 연유를 듣고는 이 곳의 자리가 좋으니 그냥 묻어 드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 집안에 3대에 걸쳐 원님이 나왔다고 한다.

31. 도라리들

도라리들은 예전에는 하천 바닥이었는데 물이 돌아 흘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후에 제방을 쌓으면서 논밭이 생겼고, 두물움논, 당할논, 돌알온 등의 논이 있었는데 현재는 자금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32. 족두리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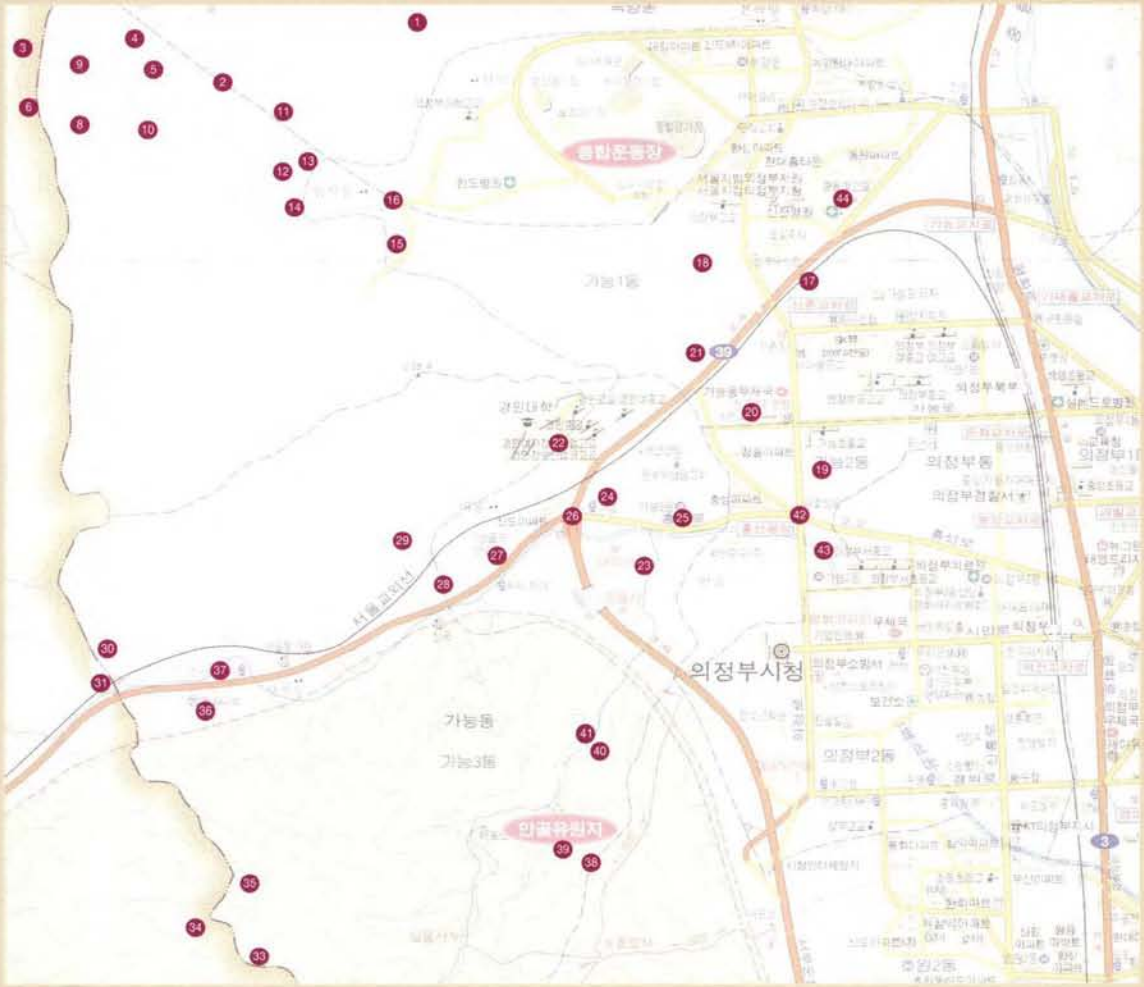
족두리봉은 수락산의 상봉과 오리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족두리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현동에서는 함지박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함박바위라고 하며, 거문돌에서는 할미봉이라고 한다.

제7장 가능동

녹양동
가능1동
가능동
가능2동
가능3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금오동
자금동
신곡2동
신곡1동
자일동
낙양동
용현동
민락동
호원2동
고산동
호원1동
장암동
산곡동

佳陵洞

가능동(佳陵洞)



1. 선돌(立石)
2. 고인돌
3. 홍복산(洪福山)
4. 오리나무골
5. 작골
6. 홍복(洪福) 고개
7. 충목단(忠穆壇) 터
8. 다심마골
9. 바사리고개
10. 참나무번더구니
11. 웃담불논
12. 산고사 터
13. 구방(舊坊) 터
14. 중간말
15. 앞말
16. 평양댁개울
17. 신촌(新村)
18. 통메
19. 새방죽
20. 어수정(御水井)
21. 어립(御立)개
22. 어룡(魚龍)골
23. 연내(延川)
24. 직곡산장(直谷山莊) 터
25. 아랫곧은골(下直洞)
26. 윗곧은골(上直洞)
27. 담안
28. 용머리
29. 진등
30. 용무골(龍舞谷)
31. 울대고개
32. 사패산(賜牌山)
33. 갓바위
34. 사기막
35. 선녀탕골짜기
36. 참나무쟁이
37. 고양리산
38. 절터
39. 안골
40. 능서들
41. 큰 폭포
42. 곧은골(直洞)
43. 오리골
44. 용두머리와 용두머리논들

제7장 가능동(佳陵洞)

연 혁

가능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때 시북면(柴北面) 가좌리(嘉座里), 어능리(魚陵里), 직동(直)洞)을 합쳐서 가능리(佳陵里)로 개칭하였다가, 1956년에 2개리로 분할되어 가능1리와 가능2리가 되었다. 1964년 5월 8일 「의정부시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되면서 가능1동과 가능2동이 되었고, 1970년 7월 1일 가능3동이 분리 ·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2년 2월 1일에 동(洞) 관할구역 변경으로 4개통의 24개반이 의정부4동으로 분리되어 행정구역도 4.57㎢로 줄었다. 가능동이라는 이름은 가좌리와 어릉리에서 한 자 씩 따온 것이다.

가능1동은 동(東)으로는 평화로(平和路)가, 남(南)으로는 가능로(佳陵路)가 가로 지르고 있으며, 교외선 철로와 벽제선 도로가 횡단 우회한다. 서(西)로는 양주시 홍복산이 드리워져 있고, 북(北)으로는 녹양동과 접하고 있다. 이 곳은 특히 중 ·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가능2동은 흥선로(興宣路)를 접경으로 의정부2동과 접해 있으며, 서(西)로는 가능3동, 북(北)으로는 가능1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가능3동은 서북(西北)으로는 양주시 장흥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교회선 철로가 북단(北端)으로 횡단한다.

지명유래

1. 선돌(立石)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홍복산 쪽으로 향한 마을을 말한다. 뒷산에 큰 바위가 있어 선돌 또는 입석이라고 한다. 지금은 가능동 입석마을을 윗선돌, 녹양동 입석마을을 아랫선돌이라고 한다. 선돌은 아랫선돌에서 노고봉까지 일직선을 이루는 6부 능선 약간 좌측 계곡에 있다.

고인돌 개석

2. 고인돌

고인돌은 선돌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1㎞ 지점인 5부 능선에 있다. 지금은 개석만이 흙에 묻혀 있다.

3. 홍복산(洪福山)

홍복산은 황골산이라고도 한다. 이 곳에 살던 홍씨가 잘 살게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임진왜란 당시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가 이곳에서 왜병과 15일 이상 이상 전투를 하였는데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 남게 되어서 황골산의 명칭을 홍복산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얘기는 『월사문집(月沙文集)』에 전한다.

4. 오리나무골

오리나무골은 홍복산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오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5. 작골

작골은 오리나무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좁고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6. 홍복(洪福) 고개

홍복고개는 홍복산에 있는 고개로 흔히 홍복고개라고 한다.

7. 충목단(忠穆壇) 터

충목단 터

충목단은 『월사문집(月沙文集)』에 의하면 홍복산 전투에서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와 다른 의병들이 신거상(愼居常)의 활약으로 살아남게 되자 그의 뜻을 기려 세운 사당(祠堂)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8. 다심마골

다심마골은 충목단 아래 골짜기로 예전에 문태영이라는 사람이 이 곳에 장뇌를 많이 심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 바사리고개

바사리고개는 홍복고개 아래에 있는 고개로 좁은 길이 구불구불하고 가파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10. 참나무번더구니

참나무번더구니는 바사리고개 아래쪽으로 큰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11. 웃담불논

웃담불논은 참나무번더구니 아래에 있는 논으로 원래는 돌이 많은 돌담불이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주위에 수리시설이 없어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여 천둥지기논이라고도 한다.

12. 산고사 터

산고사 터는 구방터의 북쪽 등성이 중간쯤에 있으며, 이 곳에서 산고사를 지낼 때는 소 2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13. 구방(舊坊) 터

구방 터는 바사리고개에서 홍복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쪽으로, 녹양역(綠楊驛)으로 인해 형성된 시장 터를 말한다. 녹양역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중엽

까지 수백년 이상 존속되었던 역(驛)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보면 경성(京城)에서 함경북도 경원(慶源)까지 연결되는 첫 번째 두참(頭站)으로 말 10필과 노비 · 역리가 72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은 보통 대로(大路)에 30리마다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서울에서 30리 지점에 있는 이 녹양역은 버드나무가 유달리 무성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14. 중간말

중간말은 선돌과 어릿개 사이에 있는 마을로,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5. 앞말

앞말은 어룡골앞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6. 평양댁개울

평양댁개울은 선돌에서 내려오는 개울로, 이 곳에 평양(平壤) 출신의 부자들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7. 신촌(新村)

신촌은 1910년대 이후에 형성된 마을로 새로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밭이 많이 있어서 큰밭 마을이라고도 한다.

18. 통메

통메는 의정부고등학교 앞에 있었던 산등성이로 쌀을 찧는 나무통인 메통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 새방죽

새방죽은 1920년대에 이 곳에 있는 5만여평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의정부경찰서에서 뒤 300m 정도 지점이 있던 저수지의 물을 끌어 오면서 방죽을 새로 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 어수정(御水井)

어수정은 왕이 물을 마신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서 200m정도의 거리에 효종(孝宗)이 군사훈련을 사찰했다는 어립개라는 곳이 있다.

21. 어립(御立)개

어립개는 현재 경민 중 · 고등학교에서 북쪽으로 가는 산 모퉁이로, 강한 북벌정책을 추진하던 효종(孝宗)이 군사훈련을 시찰하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 확실한 근거는 알 수 없다.

22. 어룡(魚龍)골

어룡골은 충목단(忠穆壇) 아래의 골짜기로 왕이 이 곳에서 하루 묵어 갔다고 하여 본래는 어(御)자를 썼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魚)자로 바꿔 놓았다고 한다. 이 곳은 독립운동가 이용재(李用宰)의 출생지이다. 그러나 어룡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히 고증한 바 있다. 이는 얼에서 온 말로 어우러지다, 어우른다의 의미를 가져 지명으로는 아우라지, 어룽, 어룡 등으로 나타나는 바 각각 두 갈래로 진행되어 오던 길이나 개울 등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에 나타나는 지명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갈>이 있다. 하나로 진행되던 길이나 개울이 둘로 갈라지는 지점에 나타난다.

가능동의 지명 유래는 가좌리와 어룽리가 합쳐 각각의 지명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명명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가능동 지명 유래에는 어룡이 아니라 어룽이 등장한다는 점 역시 이를 방증한다고 본다.

23. 연내(延川)

연내는 연안 이씨(延安 李氏) 일가가 살던 어룡골에서 흘러 나오는 개울로, 독립운동가 이용재가 일경에 잡혀가고 연안 이씨 일가가 망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재의 뜻을 기려 그 개울을 연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지명은 함부로 고증의 손길을 대기가 어려운 지명이다. 독립운동가의 소중한 행적이 관련된 지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지명 유래는 지나치게 부

회된 느낌을 받게 한다. 굳이 연안 이씨를 기린다면 <이내>라고 해야지 성이 아닌 본관을 그것도 한자만 가져다 붙일 까닭은 없다고 보이는 까닭이다. 연내는 <열다>와 <내>가 합쳐진 지명으로 이는 인공적으로 파서 새로 만든 개울이라는 뜻으로 이를 한자로 채록하면 개천(開川)이 된다. 예컨대 물이 고이는 작은 소(沼)의 한 옆을 터서 가까운 개울에 연결하는 작업을 했다던가, 규모가 작은 개울을 넓혀 그 개울의 규모를 확장했다던가하는 경우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이를 두고 부언하자면 의정부시 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연내천으로 하여 그 곳의 도로명을 연내천 1길 등으로 붙인 것은 연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치이다. 연내의 내가 개울의 뜻이라면 여기에다 다시 <내 천(川)>을 더한 것이야 말로 사족(蛇足)이기 때문이다.

24. 직곡산장(直谷山莊) 터

직곡산장은 가능3동사무소 뒤에 위치했었으며, 흥선대원군이 실각당하고 임오군란이 있기 전까지 8년간 은거하였던 곳으로, 현재는 주택이 들어서있어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흔히 직동산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지명에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흥선대원군이 1873년 최익현의 상소로 실권하고 이곳에 와 머물렀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로 사실에 맞는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이곳에 약 8개월간 머물렀고 이후에는 마포의 아소정(我笑亭)이나 운현궁(雲峴宮)에 머물렀다. 그리고 흔히 이곳을 직곡산장, 또는 직동산장이라고 통칭하나 이 산장의 주인이었던 문태영의 묘비문에 의하면 이 건물의 정식 명칭은 <양한당(養閑堂)>이었다. 단지 실록이나 <매천야록> 등에는 속칭인 <직곡산장>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흥선로와 흥선지하도의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25. 아랫곧은골(下直洞)

곧은골(直洞)은 윗곧은골과 아랫곧은골로 나뉜다. 아랫곧은골(下直洞)은 영재정이란 정자가 있었고, 그 아래 곧은골 삼거리 근방을 말하며, 6.25사변 전까지만 해도 소나무가 길가에 많이 서 있었다고 한다.

26. 윗곧은골(上直洞)

윗곧은골은 현재 경민전문대 · 경민학원 앞에서부터 곧은골삼거리까지를 말한다.

27. 담안

의정부에서 담안이라는 지명은 용현동 성골, 고산동 갓바위와 이 곳에서 나오는데, 성(城)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이며 그 정확한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28. 용머리

용머리는 울대고개 오른쪽 모퉁이로, 용두동(龍頭洞)이라는 표석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9. 진등

진등은 도림동에서 용머리로 내려오는 등성이로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북쪽 골짜기를 도림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다.

30. 용무골(龍舞谷)

용무골은 윗곧은골에서 울대고개로 넘어가기 전의 오른쪽 골짜기로 이 곳에 있는 깊은 소(沼)에서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암반(岩盤)만 남아있어 물이 깊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다.

31. 울대고개

울대고개는 담안에 있는 고개로 경민대학에서 송추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는데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32. 사패산(賜牌山)

사패산은 선조(宣祖)의 여섯째 딸인 정휘옹주(貞徽翁主)가 유정량(柳廷亮)에게 시집올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패산

33. 갓바위

갓바위는 사패산에서 울대고개 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에 있는 갓모양의 바위로,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서 쪽두리바위 또는 남근석이라고 한다.

34. 사기막

사기막은 가능동 산75번지로 넓이가 2천여평 정도가 되며 사기가 흩어져 있다. 현재도 예전의 가마터 자리의 흔적이 남아 있다.

35. 선녀탕골짜기

선녀탕골짜기는 갓바위 사기막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는 선녀탕이 있고 그 옆에 큰 탕과 작은 탕이 있었다. 선녀가 바위 위에 내려와 폭포에서 목욕을 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선녀바위 밑에는 사람 발자국이 있는데 장사가 걸어가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36. 참나무쟁이

참나무쟁이는 용두머리개울 건너쪽 골짜기로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일제시대에 영화촬영소가 있었다고 한다.

37. 고양리산

고양리산은 참나무쟁이 앞에 있는 산으로, 고양리에 있는 산의 모양과 똑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38. 절터

절터는 안골 앞 왼쪽 능선에 있으며,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 절은 정휘옹주(貞徽翁主)가 세운 것으로 빈대가 많아서 폐지되었다고 한다. 절터의 흔적이 현재도 남아 있다.

39. 안골

안골은 사패산 서쪽 계곡 일대로, 계곡은 그다지 깊지 않으나 봄에는 진달래,

철쭉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여름에는 피서지로 많이 이용되는 곳이다.

40. 능서들

능서들은 정휘옹주(貞徽翁主)의 묘와 남편인 유정량(柳廷亮)의 묘가 있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79년에 전주이씨(全州)의 후손들이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로 이장하였다.

41. 큰 폭포

큰 폭포는 능서들 아래 쪽에 있는 폭포로 이 아래에는 현재 수영장이 들어서 있다.

42. 곧은골(直洞)

곧은골은 직곡(直谷)이라고도 하는데, 예부터 마을길이 구불구불하지 않고 곧아서 곧은길, 직동(直洞)이 되었다. 곧은골삼거리는 현재는 6거리이며, 예전에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43. 오리골

오리골은 현재 의정부시청 근방으로, 일제시대에 곧은골개울의 흐름을 신시가지 방향으로 돌려 놓으면서 오리 모양의 하천분지가 생기게 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44. 용두머리와 용두머리 논들

용두머리는 산의 모양이 용의 머리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앞에 있는 논과 개울을 용두머리 논들과 용두머리 개울이라하며 현재 광동여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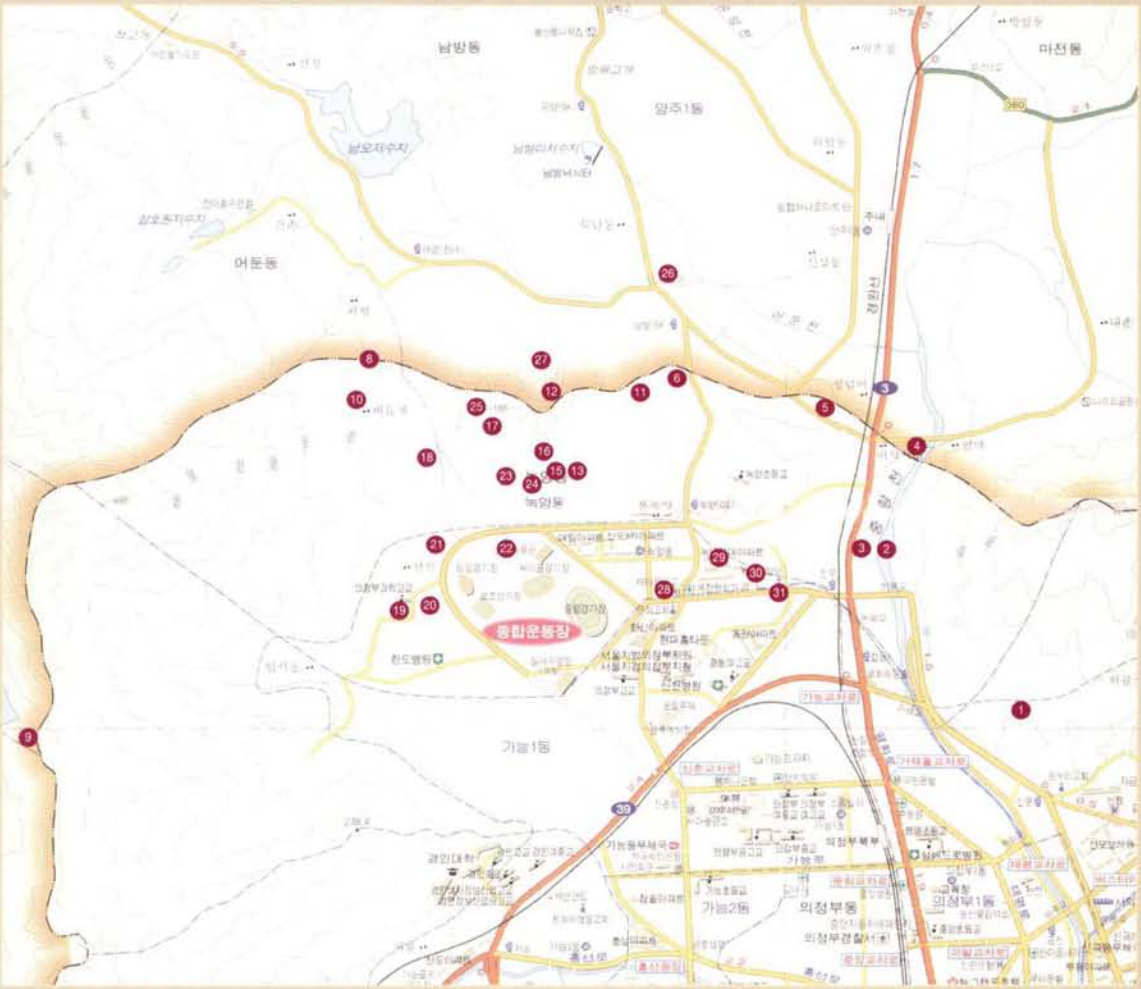
여 백

제8장 녹양동

녹양동
자일동
금오동
자금동
가능1동
낙양동
가능2동
의정부1동
신곡2동
가능3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신곡1동
용현동
민락동
호원2동
고산동
산곡동
호원1동
장암동

綠楊洞

녹양동(綠楊洞)



1. 양지말(陽村)	7. 오얏골	13. 냉이(囊上)	19. 아랫선돌	25. 안산고개
2. 하동촌(河東村)	8. 성(城)재	14. 한우물	20. 음푹말	26. 보논들과 방아다리
3. 깐깐이들	9. 노고봉(老姑峰)	15. 초당골	21. 아랫버들개	27. 진등고개
4. 비성거리(碑偶)	10. 버들개(柳峴)	16. 여우방골	22. 돌고개	28. 작두산
5. 성너머마을	11. 태마당과 갓무자리	17. 매봉재	23. 예결논	29. 작은골
6. 사냥골	12. 진등	18. 틈바위	24. 능논골	30. 떡골

제 8장 녹양동(綠楊洞)

연 혁

녹양동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때 녹양리(綠楊里) · 유현리(柳峴里) · 비우리(碑隅里)와 입석리(立石里)의 일부를 합쳐서 녹양리(綠楊里)로 개칭하였다가 1964년 5월 8일 「의정부시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조례 제19호)하여 동년(同年) 6월 1일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녹양동이 되었다. 녹양동의 의정부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北)으로는 양주시 남방동, 어둔동과 접하고 있다.

녹양리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에 이 곳에 녹양평(綠楊坪)이라는 군마(軍馬)사육 목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녹양평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 의하면 그 규모가 동서 7리, 남북 12리라고 하였으며, 중군(中軍)과 좌군(左軍)의 말을 방목하던 곳으로 마릿수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곳 목장은 세조 년간에 폐지되어 이 곳에 관한 기록은 그 후에 찬술된 『여지도서(輿地圖書)』나 『대동지지(大東地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명유래

1. 양지말(陽村)

양지말은 금오동의 하금오리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범모릉구지가 있다.

2. 하동촌(河東村)

하동촌은 천보산(天寶山) 낙맥(落맥脈) 기슭에 있는 마을로 중랑천(中浪川) 상류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깐깐이들

깐깐이들은 방어선 앞 개울 옆에 있는 들로 검은 진흙이 기름져서 곡식이 잘 여문다고 한다. 흙이 기름진 것을 깐깐하다고 부른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4. 비성거리(碑偶)

비성거리는 양주시 남방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의정부시의 최북단 마을로 예전에 양주목사(楊州牧使)가 순행다니던 길목으로 역대 목사들의 송덕비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변음되어 비성거리가 되었으며, 한자 표기로는 비우리(碑偶里)라 한다.

5. 성너머마을

성너머마을은 비성거리 위에 있는 마을로, 이 곳 너머에 성터 흔적이 있어서 붙여진 마을이다.

6. 사냥골

사냥골은 남방동과 냉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포수골, 도장골이라고도 한다. 포수골이라는 이름은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된 포수들이 숨어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7. 오얏골

오얏골은 사냥골 위 골짜기로 오얏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8. 성(城)재

성재는 윗버들개에서 어둔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토성(土城)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 노고봉(老姑峰)

노고봉은 경첩 전에 버들개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할머니가 이 곳에 올라와서 소변을 보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0. 버들개(柳峴)

버들개는 어둔리로 가는 길 윗쪽에 있으며, 이 마을 어귀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버드나무가 무성한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윗버들개와 아랫버들개로 나뉜다.

11. 태마당과 갓무자리

태마당은 녹양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작은 산골짜기로 예전에 죄인들의 볼기를 쳤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앞을 갓무자리라고 하는데, 갓무란 망나니가 사람을 죽일 때 갓을 쓰고 춤을 춘다는 말로, 갓무자리는 망나니의 집터자리를 뜻한다고 한다.

12. 진등

진등은 윗버들개에서 녹양초등학교 아래까지 뻗어 있는 진흙 등성이로 길이가 약 1㎞ 정도가 된다. 이 주위에 고인돌이 여러개 있었다고 한다.

13. 냉이(囊上)

냉이는 작두산 위 골짜기인 문수동 앞에 있는 낭떠러지의 위쪽을 말하며 낭위가 변음되어 냉이가 된 것이다.

14. 한우물

한우물은 냉이 사람들이 마시던 물로 6.25사변이 일어나고부터 9.28 수복때까지 계속 흙탕물이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치성을 드렸더니 다시 맑은 물이 나왔다고 한다. 현재도 당시의 우물형태가 남아 있다.

한우물

15. 초당골

초당골은 초당(草堂)과 큰 기와집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기와집이 이귀(李貴)의 집이라고 한다.

16. 여우방골

여우방골은 초당골 너머 골짜기로 여우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7. 매봉재

매봉재는 여우방골 위쪽으로 조선시대에 매를 날리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를 날리던 매바위라는 바위도 있다.

18. 틈바위

틈바위는 윗버들개에서 아래버들개로 가는 모퉁이에 있는 바위로, 바위에 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19. 아랫선돌

선돌은 아랫선돌과 윗선돌로 나뉘는데, 아랫선돌은 이 곳 녹양동에 속하고 윗선돌은 가능동에 속한다. 선돌은 마을 뒷산에 큰 선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선돌에는 늠말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너머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 음푹말

음푹말은 아랫선돌과 버들개 사이에 있으며 6.25사변 후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이 오목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집이 4~5채 정도밖에 없다.

21. 아랫버들개

아랫버들개는 버들개의 아래 마을을 말한다. 버들개는 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윗버들개와 아랫버들개로 나뉘는데 직선으로 500m정도 떨어져 있다.

22. 돌고개

돌고개는 녹양동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로, 동그란 모양의 잔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개 밑에 엎어지기라는 논이 있는데, 풀이 많아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을 매어 놓아 아낙들이 새참을 이고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23. 예결논

예결논은 냉이 안골에 있는 논으로, 예전에는 타작을 하면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의 반반씩을 갖는 것이 통례였는데 이 논만큼은 지주가 소작인에게 미리 소작료를 정해 주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4. 능논골

능논골은 용머리 앞에 있는 4천여평의 논으로, 어느 능인지는 알 수 없으나 능에 소속된 논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5. 안산고개

안산고개는 냉이에서 선돌로 넘어가는 고개로, 위쪽으로는 돌고개가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의정부 실내체육관이 있다.

26. 보논들과 방아다리

보논들과 할미봉에서 내려오는 물이 보(洑)를 이루고 있어서 보(洑)가 있는 논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물레방아가 있었다는 방아다리가 있다.

27. 진등고개

진등고개는 냉이와 공설운동장 사이에 있는 고개로 바닥이 찰진흙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28. 작두산

작두산은 안산고개 밑에 있는 산으로 산의 모양이 작두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29. 작은골

작은골은 골짜기가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30. 떡골

떡골은 용두머리 앞의 골짜기로 수수팥떡 같이 생긴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찾아보기

여 백

찾아보기

[ㄱ]

두험소(逗驗沼) 터 / 42
도살장 터 / 44
일본인학교 터 / 43
좀바위 / 129
가는봉 / 151
가래울(楸洞) / 83
가마둥지 / 141
가마소 / 149
가마솥골 / 124
가재골 / 134
가재울(佳佐洞) / 47
가잿말(嘉座洞, 可座洞) / 118
간장공장 터 / 45
갈무봉(竭武峰) / 120
감자골 / 117
갓골 / 173
갓굴 / 98
갓바위(笠岩里) / 116
갓바위 / 192
갓바위마을 / 116
강가마골 / 101
개강주고래 / 118
개구리바위 / 56
개다리골 / 84
개바위 / 148
개쟁이개울 / 75
갱개 / 64
거능골 / 168
거문돌 / 123
거북골 / 53
거북나루 / 92
거북말 / 182
건너말 / 133
건릉골 / 115
검천이골 / 138
경성방직공장 터 / 45
경찰서터 / 42
고라댕이골 / 121
고래당 / 120
고래뼈공장 터 / 45
고소리밭 / 57
고양리산 / 192
고인돌 터 / 83
고인돌 / 116
고인돌 / 179
고인돌 / 186

고인돌 / 58
고인돌 / 99
고인돌군 / 167
고창모루(高唱隅) / 153
고촌(古村) / 145
곤제(昆弟) / 157
곤제고래실 / 157
곤제모퉁이 / 160
곧은골(直洞) / 193
골안 / 102
골안 / 112
골우물 / 138
공고개마을 / 85
공사태 / 140
공사태밭 / 175
공석들 / 79
공주묘골 / 52
공주샘 / 181
관대박골 / 103
관솔공장 터 / 45
광쟁이벌 / 110
광쟁이보(洑) / 110
굉암(轟巖) / 61
구(舊) 장터 / 46
구멍바위 / 58
구바위 / 74
구바위소(沼)터 / 52
구방(舊坊) 터 / 187
구석말(構石洞)(구성말) / 113
국수당개울 / 104
국수당할미봉 / 123
굴바위 / 121
굴치기들 / 100
궁말(宮村) / 155
귀락(歸樂) / 166
금곡리(金谷里) / 169
금오리(金梧里) / 177
기단이골 / 98
기석(祈石) / 150
기와집터 / 73
기차바위(東峰) / 72
기차바위 / 112
긴골 / 102
긴등 / 117
길렬 / 99
김구 석굴암(白凡祠) / 66
깐깐이들 / 198
꼭두봉(덜봉) / 145
꽃동네 / 180
꽃마루재 / 124
꽃봉 / 151
꽃봉 / 167
끝밤나무들 / 155

[ㄴ]

나무아미타불모퉁이 / 170
날개터골 / 80
남근봉(男根峰)과여근곡(女根谷)/149
남영안(南營內) / 129
낭위 / 114
낮은턱고개 / 161
너구리바위 / 160

너러바위 / 63
너머말 / 141
노고봉(老姑峰) / 199
노구메골 / 168
노구메골 / 181
높은뫼(高山) / 107
뇡이(囊上) / 199
느름내개울 / 76
느티나무산 / 115
능골(陵谷) / 85
능너머 / 100
능너머 / 118
능논골 / 201
능모퉁이 / 135
능서들 / 193
능안 / 124
능안 / 135
능안 / 140
능안 / 153
능안 / 156
능안고개 / 153
능안고개 / 174
능안말 / 111

[ㄷ]

다락원(樓院) / 51
다랑굴고개 / 82
다리목계 / 136
다심마골 / 187
담뒤밭 / 115
담안 / 191
담안밭 / 105
당그뫼고개 / 117
당그뫼골 / 114
당내미고개 / 82
당안들 / 181
대문바위 / 130
대장골 / 99
더운우물 / 141
더운우물 / 148
덕수봉(德壽峰) / 145
덧개울 / 97
도끼바위 / 63
도당산(제터골) / 116
도둑골 / 149
도둑골 / 170
도둑골 / 55
도라리들 / 182
도림(桃林)뫼 / 108
독두산(獨逗山) / 180
독두소(獨逗沼) 터 / 180
독두소(獨逗沼)와 독개울 / 91
독립유공자 이용재의 집터 / 142
독바위(甕岩) / 56
독바위 / 126
독박골(독바위골) / 53
독박골 / 104
독박골 / 135
독수원(獨樹) / 138
독짓네다리 / 46
돌고개 / 144
돌고개 / 175

돌고개 / 201
돌고지부리 / 145
돌다리보(洑) / 98
동덕동(同德洞) / 154
동막골(東幕谷) / 75
동명사립학교 터 / 42
동무봉(東武峰) / 121
동무봉(東武峰) / 130
동백나들이 / 54
동봉서원 터 / 72
동산(東山)너머 / 173
동산마을 / 142
동산부리 / 134
동안개울 / 139
동안논 / 136
동오리(東梧里) / 83
동유골(東幽谷) / 144
동유골삼거리 / 144
돼랭이터 / 151
돼지골 / 102
된내미고개 / 102
된매기 / 120
된봉 / 117
두껍바위 / 137
두껍바위 / 153
두루봉(周峰) / 120
두루봉 / 154
두험내다리(楊州橋) / 92
뒴바위 / 150
둔뱀이(本芚夜) / 81
둔야면사무소 터 / 101
덤바위 / 126
뒷개울 / 90
뒷골 / 135
뒷골 / 141
뒷골 / 151
뒷골 / 154
뒷골 / 174
뒷골 / 90
뒷골천둥지기 / 150
등산너머 / 91
딴뚱우리 / 113
딸딸이밭 / 54
떡골 / 202
떼쟁이골 / 103

[ㅁ]

마당바위 / 121
마당방위 / 45
마외들 / 90
막굴 / 98
막너머 / 171
막은골 / 103
막은골 / 107
만가대(萬家垈) / 101
만장봉(萬丈峰) / 53
말무덤 / 108
말무덤 / 118
말무덤 / 153
망부백이 / 137
망수보들 / 147
망월사계곡 / 56

매바위 / 58
매봉재(鷹峰) / 73
매봉재 / 127
매봉재 / 200
맥재보(洑) / 109
멍에밭 / 105
메아리방청고개 / 137
명다리고개 / 140
명마골 / 152
모라지밭 / 161
모릉구지 / 91
모탱이산 / 171
목장골 / 170
무내미 / 103
무당바위 / 44
무자봉(無慈峰) / 97
무정골(無情谷) / 182
무지랭이(無至嶺) / 144
무지치(無至峙) / 59
무학골(無學谷) / 60
물덤바위 / 131
물레방아골 / 104
물만등 / 143
뭉어리골 / 124
미사리봉(美沙里峰) / 137
민치골 / 91

[ㅂ]

바가지우물 / 152
바대논들 / 112
바랑골 / 83
바랑굴골 / 82
바사리고개 / 187
바위백이 / 81
바위백이논 / 180
바위백이논들 / 112
바위백이모퉁이 / 85
발이술리(鉢伊述里) / 80
밤나무골 / 55
밤나무골 / 73
방생이 / 99
방아골고래 / 175
방아다리 / 127
방아다리 / 148
방아다리 / 155
방아다리 / 99
방죽계 / 44
방치골 / 152
방화골(芳花洞) / 151
배나무골 / 60
배내미고개 / 76
배양현(培養峴) / 120
백련이보(洑) / 46
백석이고개 / 173
뱀굴 / 133
뱀굴모퉁이 / 120
뱅골모탱이 / 109
버덩 / 117
버들개(柳峴) / 199
벌말 / 70
범굴 / 63
범바위 / 152

범바위모퉁이 / 152
범바위여우굴 / 134
범에골 / 168
법당골 / 61
법적골 / 156
벼락바위 / 104
벼락바위 / 114
벼락바위 / 166
벼락바위 / 178
벼락바위 / 59
별윗개(벼루개) / 117
병막 터 / 46
병문(竝門) 밤나무골 / 142
병문안(兵門內) / 59
병풍바위 / 152
볕고개(陽峴) / 99
보논들과 방아다리 / 201
보통머루 / 155
복두논들 / 155
복사골 / 156
복혜(服鞋) 터 / 110
본자일(本自逸) / 170
봉화봉 / 153
봉화재 / 74
부계(鳧溪)표석 / 148
부엉바위 / 102
부용봉 / 109
부정골 / 113
분두골(雰逗谷) / 175
불개미등 / 121
불당골 / 115
불당골 / 127
불당골 / 145
불당골 / 151
불당골 / 169
불당골 / 90
불콩논들 / 110
붕대공장 터 / 45
비석거리 / 59
비석거리 / 84
비성거리(碑偶) / 198
빈골모퉁이 / 178
빈장(賓將)대 / 109
빼뻘 / 108
뻐꾹골 / 134

[ㅅ]

사기막 / 60
사기막 / 125
사기막 / 192
사냥골 / 198
사당고개 / 135
사묵골(沙墨谷) / 178
사북밭 / 111
사자골 / 170
사장(射場) 터 / 140
사패산(賜牌山) / 191
산고사 터 / 187
산꽃마을 / 128
산보골 / 74
살구쟁이벌 / 128
삼귀(三歸) / 138

삼귀고개 / 113
삼귀삼거리 / 139
삼성재(三城峙) / 61
삼태골 / 149
삼태봉 / 80
삼테미고개 / 156
삼형제소(三兄弟沼) / 52
상금오리(上金梧里) / 177
상장논들 / 118
새끼줄야적장 터 / 45
새능안 / 144
새말 / 129
새말 / 161
새말 / 55
새뫼 / 145
새방죽 / 188
새장터 / 47
새테미 / 140
색시골과 감자무골 / 160
샘들 터 / 46
샘막굴 / 98
샘말 / 110
샘말 / 129
샘말 / 179
샛골고개 / 168
서계 박세당 학당터 / 70
서낭당 터 / 48
서라리 고개 / 141
서라리고개 / 115
서라리고개 / 166
석림사계곡 / 71
석받탱이(昔所상) / 136
선녀바위 / 60
선녀탕골짜기 / 192
선달모퉁이 / 161
선돌(立石) / 186
선유곡(仙遊谷) / 71
섬둥지 / 142
성(城)재 / 198
성골(城谷) / 100
성너머마을 / 198
성박골 / 170
성지(城址) 터 / 54
성지(城址)우물 터 / 129
세귀밭 / 115
세자곡(世子谷) / 174
송산사거리 / 147
송아지뫼 / 128
송이봉 / 111
송장웅덩이 / 100
송지나무골 / 91
쇠굴고래와 새둥지논 / 138
쇠재등 / 128
쇠쟁이벌 / 131
쇠파리봉 / 105
쇤굴 / 137
쇤굴고개 / 113
쇳골 / 171
쇳골고개 / 166
쇳골고개 / 174
數突(수돌) 고개 / 125
수락골고래 / 105

수리고개 / 139
술청계 / 126
쉼재고개 / 175
쉼터 / 120
승지골(承旨谷) / 97
승지골 / 120
승지골 / 134
시둔면사무소 터 / 42
시루봉 / 90
시북면사무소 터 / 181
신곡교(新谷橋) / 85
신선방아골 / 155
신촌(新村) / 188
신촌(新村, 새말) / 90
신후곡 / 137
신흥부락(新興部落) / 44
쌀광 / 119
쌍암사(雙岩寺) / 73
쌍절비 / 126
쑥고개 / 175
쑥모루 / 140
쑥모루 / 154
씨름밭 / 148

[ㅇ]

아기동박골 / 109
아래구석말 / 111
아랫곧은골(下直洞) / 190
아랫말 / 142
아랫버들개 / 200
아랫선돌 / 200
안개울 / 104
안고래 / 112
안골(안고래) / 130
안골 / 192
안말과 바깥말 / 55
안산 / 112
안산 / 114
안산 / 125
안산 / 81
안산고개 / 201
안산고개 / 111
안산골 / 117
안장바위 / 181
안평전 / 58
앉은뱅이봉 / 85
알밑둥우리 / 148
앞개울 / 167
앞고래 / 127
앞고래 / 139
앞고래 / 168
앞고래 / 98
앞골(앞고래) / 118
앞말 / 188
앞자리 / 91
약수골 / 58
양가뫼등 / 128
양마산소 / 109
양주군청 터 / 43
양지마을 / 107
양지말(陽村) / 197
양지말 / 152

양지말 / 69
양지말 / 82
어두니고개 / 127
어렁굴개울(芙蓉川) / 160
어룡(魚龍)골 / 189
어룡굴(魚龍) / 96
어립(御立)개 / 189
어수정(御水井) / 189
억간터 / 130
얹힌 바위 / 58
여각(旅閣) 터 / 43
여근곡(女根谷) 약수 / 75
여우골 / 101
여우방골 / 200
여의(如意)고개(여우고개) / 112
연내(延川) / 189
연못계 터 / 52
연무골고개 / 154
연백촌(延白村) / 46
연장봉 / 130
영(營)재 / 74
영당(影堂) 터 / 57
예결논 / 201
오리골 / 148
오리골 / 193
오리나무골 / 186
오리봉(鴨峰) / 73
오목골 / 178
오목리(梧木里) / 133
오목삼거리 / 136
오무작골 / 85
오산릉 / 83
오얏골 / 198
옥(玉)재 / 150
옥수골(玉水谷) / 59
옥수당개울 / 69
옥장터 / 105
온두막골(溫逗幕谷) / 126
올챙이골 / 124
옷물약수터 / 120
옻물샘 / 85
옻물터 / 152
옻밭모퉁이 / 114
왕재 / 121
외끝 / 139
외미 / 63
외미둑 / 154
외재 / 131
외재다리 / 131
용두머리와 용두머리 논들 / 193
용머리 / 191
용무골(龍舞谷) / 191
용무골(龍舞谷) / 56
용새울 / 156
용암산(龍岩山) / 116
우래울고래 / 128
우묵골 / 134
울대고개 / 191
웃담불논 / 187
원머루(遠隅) / 108
원추리골 / 142
월남촌(越南村) / 46

월유(月遊) / 112
위마전(衛馬田) / 119
윗가라리고래와 아랫가라리고래 / 139
윗곧은골(上直洞) / 191
윗골 / 84
윗말 / 160
윗방굴 / 110
유골(幽谷) / 145
유두들 / 154
은선동(隱仙洞) / 125
은행나무고개 / 111
음푹말 / 200
응달마을 / 108
응달말 / 82
이성재(二城峙) / 59
이스락골 / 104
이은골 / 102
일본신사(日本神社) 터 / 43
임춘굴골 / 115

[ㅈ]

작골 / 186
작두산 / 201
작은고래 / 137
작은골 / 103
작은골 / 202
작은도장굴 / 143
작은자리골 / 175
작은자일(自逸) / 170
잔돌백이(細石) / 130
잣나무고개 / 168
장골 / 99
장굴고개 / 82
장수우물 / 121
장수원(長水院) / 52
장승거리 / 107
장재울(長者洞) / 70
재집골 / 103
전나무백이 / 160
전좌(殿座)마을 / 64
절골 / 174
절터 입구 / 103
절터 / 192
절터골 / 101
절터골 / 59
절터골 / 75
점말 / 135
정렬(貞烈) / 99
정자마을(위말) / 73
정자마을 / 110
정주당(敬主堂) 터 / 180
제비바위 / 134
제주마을 / 57
조개골 (졸개골) / 66
조산(朝山) / 156
족두리 바위 / 56
족두리봉 / 182
좁은골 / 119
좁은골 / 126
주논들 / 179
주막거리 터 / 55
주막거리 터 / 81

주전(鑄錢) 터 / 125
줄밤나무골 / 140
중간말 / 188
중금오리(中金梧里) / 179
중논 / 141
중말고개 / 121
중부들 / 136
지른너미 / 83
직곡산장(直谷山莊) 터 / 190
진너머 / 167
진도둑골 / 144
진두골(진두고래) / 156
진들골 / 167
진등(황등산) / 91
진등 / 116
진등 / 119
진등 / 124
진등 / 127
진등 / 135
진등 / 153
진등 / 167
진등 / 191
진등 / 199
진등 / 55
진등 / 57
진등 / 63
진등 / 69
진등 / 75
진등 / 97
진등고개 / 201
진등과 할매밭 / 141
진사태도랑 / 105
진재등 / 167
진천들(眞川) / 178
짝박굴 / 149
짧은등 / 117

[ㅊ]

찬우물(冷川) / 143
찬우물 / 90
찬우물골 / 168
참나무계 / 44
참나무모퉁이 / 178
참나무백이 / 98
참나무번더구니 / 187
참나무쟁이 / 192
천보산(天寶山) / 179
첫골 / 151
청룡굴(靑龍谷) / 179
청룡부리 / 79
청풍정(淸風亭) 터 / 71
초당골 / 200
최최골(催花谷) / 144
축석령(祝石嶺) / 169
춘추좌전과 효경을 간행한 집터 / 60
충목단(忠穆壇) 터 / 187
치마바위 / 125
치마바위 / 179
치마바위 / 73
콩죽한방구리논 / 136

[ㅋ]

큰 폭포 / 193
큰골 / 103
큰도장굴 / 143

[ㅌ]

탑고개 / 178
탑석(塔石) / 100
태마당과 갓무자리 / 199
토끼마당 / 116
토끼뫼 / 144
통메 / 188
통두란 이씨 묘 / 124
틈바위 / 200
파발막 또는 두험천참 / 47
패팝골(오리나무골) / 140
평양댁개울 / 188
평촌(坪村) / 147
풀무골 / 101
피나무쟁이 / 126

[ㅎ]

하금오리(下金梧里) / 180
하동촌(河東村) / 198
한내(恨川) / 43
한우물 / 199
한위골 / 98
할미바위·할아버지바위·메주바위 / 127
할아버지바위와 할미바위 / 102
함박바위 / 102
해게논 / 129
해동창 / 175
햇재(햇거리) / 130
행상바위 / 143
험한골 / 53
형제바위 / 116
형제봉 / 130
호랑바위 / 149
호랑이굴 / 117
호랑이굴 / 182
호랑이코배기바위 / 56
홈다리 / 119
홍복(洪福) 고개 / 186
홍복산(洪福山) / 186
활터 / 119
황새모탱이 / 81
황새바위 / 109
회룡골(回龍谷) / 61
회유(回流)물 모퉁이 / 108
효자봉(孝子峰) / 97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의정부 시정 30년사
의정부 시정 40년사
구 한국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조선전도 부군면리동 명칭일람

議政府地名由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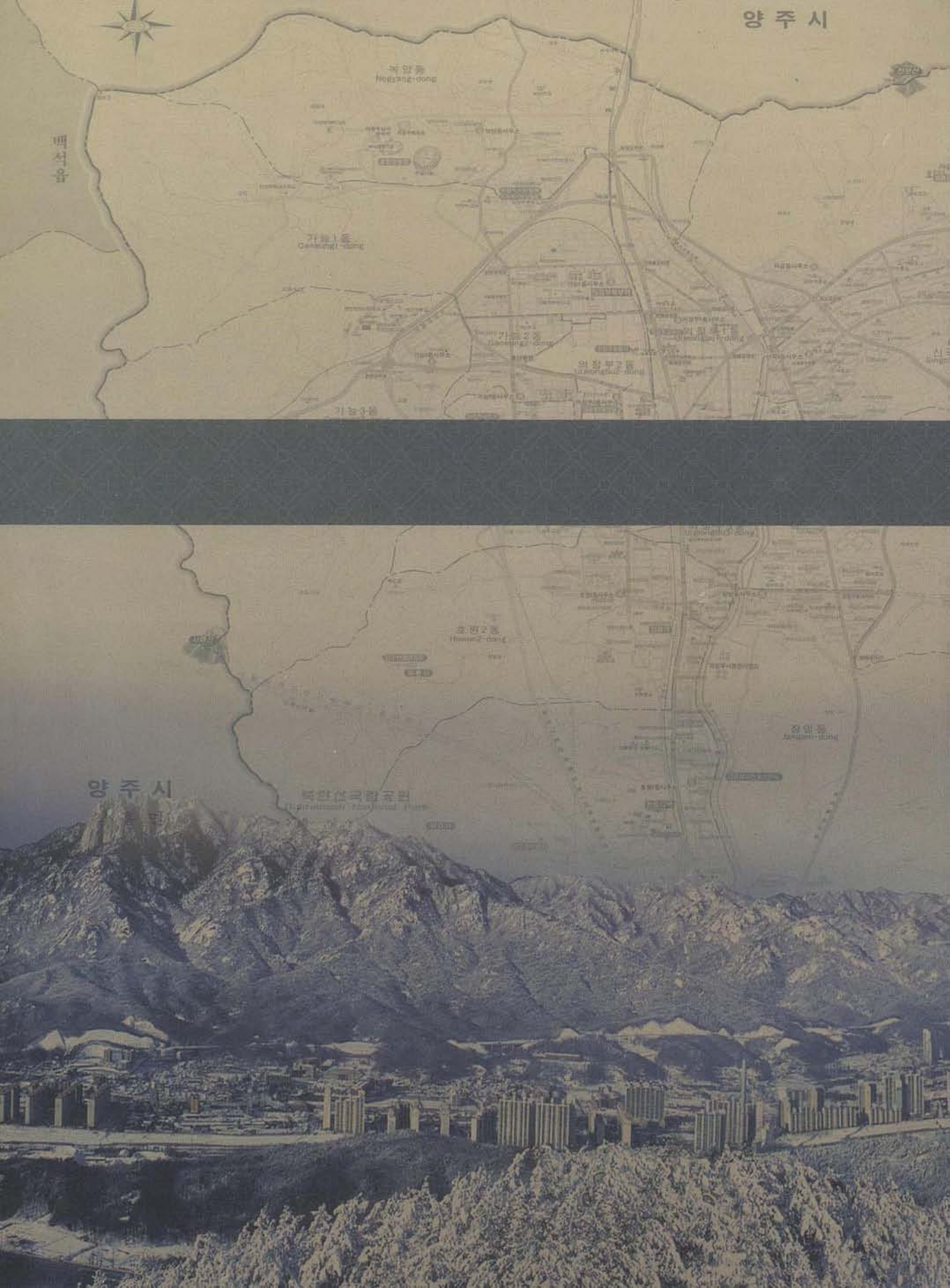
▶ 발 행 인
의정부시장 김 문 원

▶ 발 행 처
의정부시청 문화체육과

▶ 발 행 일
2007. 1.

▶ 자료수집 및 감수
의정부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인 쇄 처
나래디자인 (031)847-4199


양주시
백석읍
북한산국립공원